건축사

522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2 10
1966년 창간

칼 럼 건축서비스산업은 진흥되어야 한다!

에세이 건물 준공 후 몇 년 째가 가장 멋질까요?

한옥 개량,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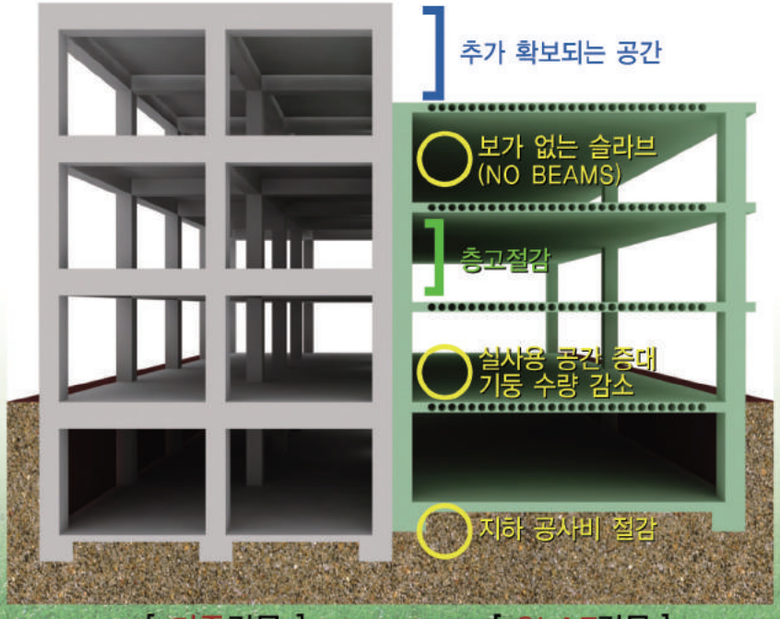
에너포르
www.kkpc.com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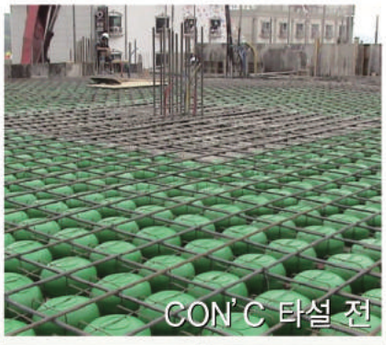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데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1길 27번지 1층 TEL : 02)333-4448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E-mail : sky23487@hanmail.net ■FAX : 054)973-0067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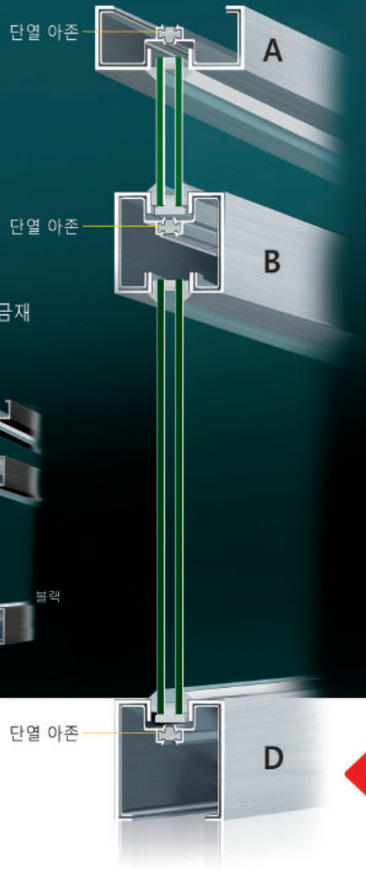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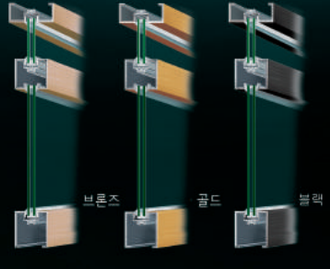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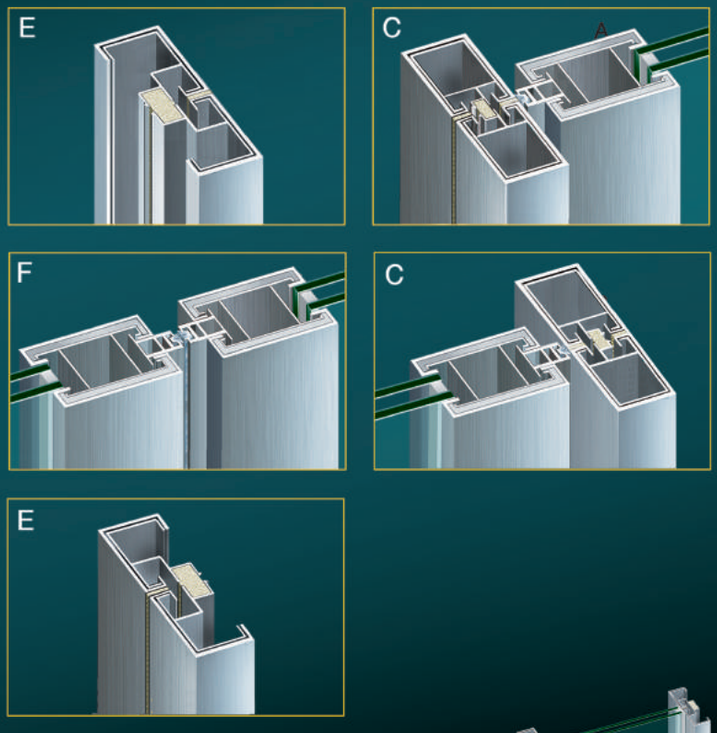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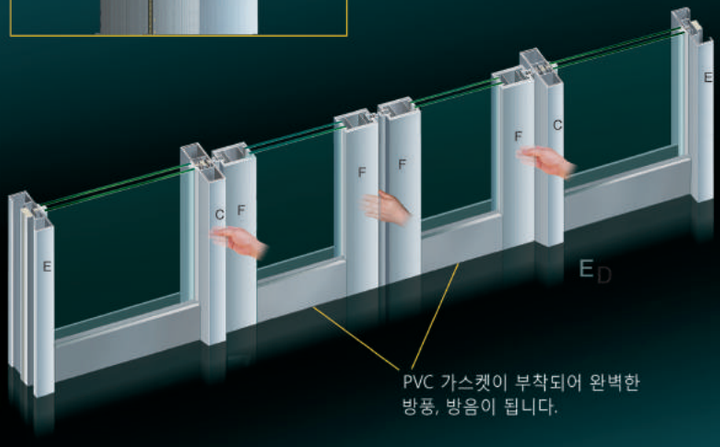
재질/한국산업규격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단면 상세도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출입구매트. 윌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윌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Luxury Entrance Matting System

시공실적

국립생태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국회의원회관, 월드건설 사옥,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3빌딩, 현대기아마북연구소, 한진중공업 필리핀메인오피스, 한진중공업 마닐라 사옥, 김포롯데몰, 제주보광휘닉스 아일랜드,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판교LIG넥스원R&D센터, 송도 포스코건설사옥, 삼성전자기흥연구동, 신도림대성디큐브시티,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랜드사옥,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의료원, 전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천안단국대치대병원, 아시아나 기내식센터, 전국 초·중·고교 시설환경개선공사, 두산위브더제니스, 제주대학교, 휘닉스스프링스CC, 휘슬링락CC, 프리마호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삼성디지털프라자, LG하이프라자, LG패션, 금강제화, 제일모직, 나이키 전국매장, 유니클로, 아디다스, KT지사등

국회의원회관

삼성그린투모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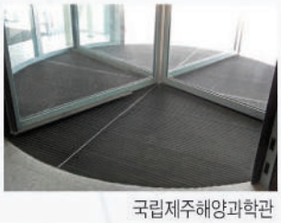
아시아나캐터링하우스

신촌세브란스재활병원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 신촌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현대기아마북연구소

송도포스코 R&D

ECOSYS (주)에코시스/윌매트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 02-786-7115 / Fax: 02-784-2011

brother
at your side

건축,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위한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A3용지 인쇄 PRINT A3용지 스캔 SCAN A3용지 복사 COPY A3용지 팩스 FAX

PC MAGAZINE EDITORS' CHOICE
MFC-J6710DW
01/Jun/2011

기자들의 선택상 수상제품
(선정 2011. 6. 1)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3C 600매	LC73M 600매	LC73Y 600매	LC73BK 600매

LC77XL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1200매	LC77XL-M 1200매	LC77XL-Y 1200매	LC77XL-BK 2400매

brother
at your side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www.sypanel.com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 PIR
- GLASSWOOL
- ROCK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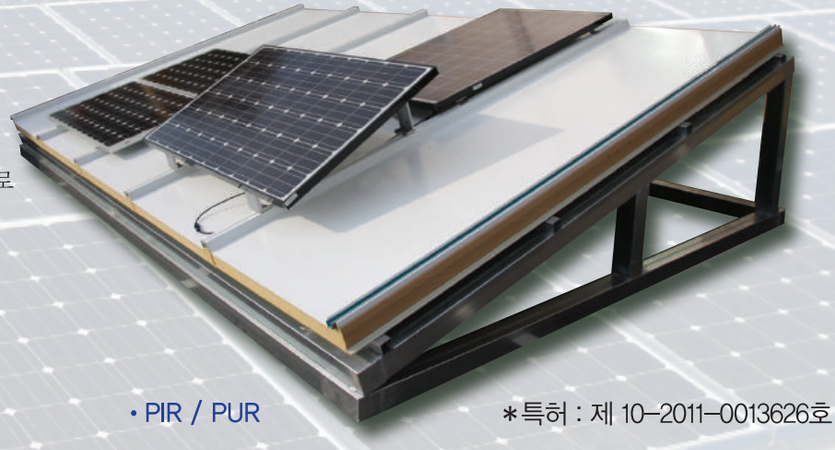
＊특허 : 제 10-2011-0139926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특허 : 제 10-2011-0013626호

에스와이패널(주)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인주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037 Tel. 041) 534-8484~5 / Fax. 041) 534-8487
논산공장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226-3 Tel. 041) 742-8486~7 / Fax. 041) 742-8483

서울국제 건축영화제
SIAFF
The 4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The 4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2012.11.08~11.14
이화여자대학교 아트하우스 모모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서울국제 건축영화제
SIAFF
The 4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FIKA
후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토해양부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건축가협회 | 대한건축학회

우수 건축자재 추천제

건축전문가들에게 우수 건축자재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설계, 시공, 감리업무의 효율증대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관련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건축자재추천제'를 시행합니다.

대 상 | KS등 국내·외 관련법령에 의해 인증된 건축자재 중 추천신청 제품

절 차 | 1차심사 :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중 전국건축사 참여 심사
2차심사 : 건축자재추천 위원회 심사
공람15일 후 건축자재추천서 교부

특 전 | 추천받은 건축자재의 DB화 및 건축사들이 직접 실무에 적용토록 홍보.권장
월간'건축사', '건축문화신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건축자재의 소개 및 홍보
협회를 통해 각종 신자재발표회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건축사 및 자재회사가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 수행

추천절차

신청인
↓
신청서 접수
↓
1차 심사(한국건축산업대전)
전국건축사 추천심사
↓
2차 심사(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자재추천위원회
↓
1차 합격 → 불합격
↓
공람(15일)
↓
최종합격결정 → 불합격
↓
합격
↓
추천서 교부 → KAFF CATALOG 제작

2012년도 건축자재 추천현황

분류	업체명	품목명	홈페이지
공공시설재	원기업	친환경 혼합석재 디자인폴	www.designpole.co.kr
구조재	경민산업	구조용 집성재	www.kmbeam.co.kr
	메타노이아	New T-BAR 경량천정 철골 구조	www.metanoia.co.kr
	성화시스템챤넬	시스템 챤넬	http://shsc.kr
	이조흙건축	숯단열벽체	www.izo.kr
	이지석재트러스	트러스 RS공법 고강도 화스너	www.egtruss.com
	피에스테크	PS-II(띠장) 및 Hi-strut(사각강관버팀보)	www.ps-tech.co.kr
급수위생설비재	도원드레인	하수악취 및 역류방지 장치	www.dowondrain.com
	세비앙	올인 바스	www.cebien.com
내외장재	삼한씨원	점토(황토)벽돌 점토(황토)바닥벽돌	www.ebrick.co.kr
	신일철구조	투톤패널	www.shinilpanel.com
	신정에스앤더블유	러스틱 플로링/ 러스틱 데크	www.isinjung.com
	씨엔에스	라임계 무기질 칼라 마감재	www.magic-coat.co.kr
	우성세라믹스공업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www.wsbrick.co.kr
	제이엠디글로벌	거푸집형 단열블럭	www.isorast-korea.com
	주신기업	EL-Zinc/ ARTE-Zinc/ KAL-Zinc	www.roof114.co.kr
	케미우스코리아	울트라화이바500/ 생도석플러스	www.chemius.co.kr
	하나인더스	아미드 인슈 메탈 패널/ 아이슬림 월 시스템 패널	www.hanaindus.com
단열재	오씨아이	ENERVAC	www.oci.co.kr
	일신산업	로이(Low-E)단열재 포그니	www.Low-E.co.kr
	세이크	슈퍼패널-경질폴리우레탄 폼단열재	www.sake.co.kr
	한국바스프	세너지 외단열 시스템	www.basf.co.kr
방수재	명진케미칼	명진수퍼 복합방수시트	www.mjc_bester.com
전시설비재	조양전기	P.V.C 케이블트레이	www.조양전기.kr
창호재	고도기연	ROTARY TYPE DOOR CLOSER	www.inoutcloser.com
	중앙시스템	레인도우	www.raindow.co.kr

2012 KAFF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건축문화와 건축산업이 결합된 종합전시회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한국건축산업대전 2012

2012. 10. 23화 - 26금 | Coex, Hall A & C

문 의 | 카프사무국 Tel 02-3415-6866-7 Fax 02-3415-6850

www.kaff.biz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2 October 10

COVER STORY

표지사진 :
용인 아르피아 포은아트홀, 아르피아 타워,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 죽전2동 주민센터

이병철 건축사(주. 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 작품 中

발 행 인	강성익
편집인 겸 편집국장	조충기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문지은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주)미래엔 031_730_3800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ang, Sung Ik
Editor	Zo, Chung-gi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Moon, Ji-eu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5 칼 럼 COLUMN
건축서비스산업은 진흥되어야 한다!
Architectural Service Business must be promoted!
_조충기

016 에세이 ESSAY
건물 준공 후 몇 년 째가 가장 멋질까요?
(건축물 사후평가제도 시행에 덧붙여)
How many years will a building need from its completion to have the best look?
_조현군

017 에세이 ESSAY
한옥 개량,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Improvement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Take Note of Outside Viewpoint
_한동수

019 만 평 CARTOON
_곽희수

020 특집 SPECIAL ISSUE
제4회 서울국제 건축영화제 미리보기
4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Preview

024 회원작품 WORKS
대장경 천년관
TRIPITAKA KOREANA MILLENIUM MUSEUM
_함인선_KIRA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Contents 522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2년 10월호

용인 아르피아 포은아트홀, 아르피아 타워,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 죽전2동 주민센터
YONGIN ARPIA POEUN ART HALL, ARPIA TOWER,
ARPIA SPORTS CENTER & JUKJEON 2-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_이병철_KIRA | ㈜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JEOLLABUKDO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VELOPMENT INSTITUTE
_노형래_KIRA |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구로생명숲 어린이집
GURO LIFE FOREST NURSERY
_정경선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도시

DESIGNER IMAGE 사옥
DESIGNER IMAGE
_최덕호, 정선화_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일감

060 설계경기 COMPETITION
서귀포 다목적 체육관
SEOGWIPO GYMNASIUM

운양동 주민센터
WOONYANG-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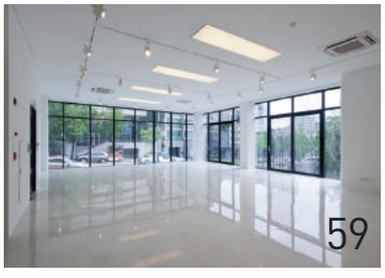
서울 시립대학교 음악관
MUSIC HALL,UNIVERCITY OF SEOUL

076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조망권,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How much a prospect right can be guaranteed?
_박시준

079 연재 SERIAL / 근대건축사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②
경복궁 중건과 서울(漢城)의 도시건축적 변화
Reconstruction of Kyongbokgung Palace and Change of
Architecture & Urbanism in Seoul
_안창모

085 기고 FEATURE
'시민과 함께한 살고싶은 청주 만들기'
회고와 남은 과제
Making Livable City of Cheongju with Citizen
- Retrospect and Prospect
_최효승

092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진교남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복합기능 고효율 단열재 전문기업

단열재는 역시 테크론!

두께는 얇고 열효율 높은 친환경 단열재!

우수한 성능 입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기술 및 기능성 연구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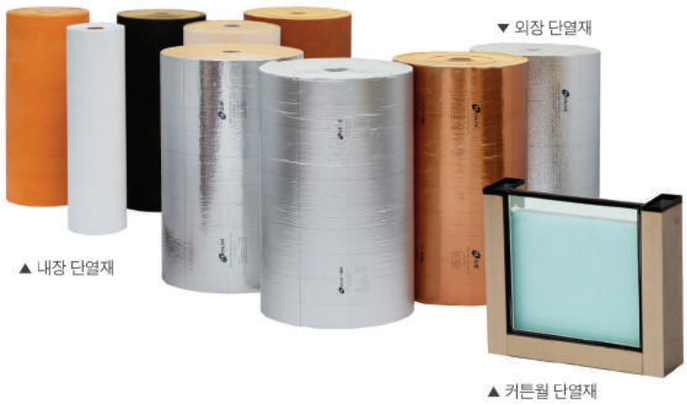
우수한 복합 기능! 표면이 Pure Aluminium foil 층으로 내구성, 내열성, 내진성, 방음성이 강하고 복사열을 차단(97%)하는 복합 기능 열반사 단열재!

에너지 절감 효과! 우수한 내습성, 방수성, 내열성, 내한성으로 보온 달열효과가 높음!

친환경 소재! 산화 및 풍화현상이 없으며 고인장강도로 지속적인 성능을 유지!

간편한 시공! 건축물 시공시 굴곡진 모서리 부분이나 틈새부분도 빈틈없이 타카 시공 및 스티커식 시공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재물이 없음!

테크론탑 2015 적용 65mm감소!



테크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379번지
대표전화 031)671-7071~3 팩스. 031)671-7074
www.itechlon.com

건축서비스산업은 진흥되어야 한다!

Architectural Service Business must be promoted!

조충기 | 건축문화신문 편집인 겸 편집국장

스페인의 빌바오(Bibao)는 전통적인 조선업으로 부흥했던 도시였다. 조선사업의 쇠락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1980년대 이후 바스크정부는 구 조선소와 중공업지역에 도시경제의 부활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구겐하임재단의 유럽박물관을 유치하여 1997년에 개관한 프랑크게리의 구겐하임 빌바오는 건립 1년도 안되어 1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연간 1억6천만 달러의 관광수입을 가져다주었다. 빌바오라는 인구 40만의 작은 도시가 파리, 뉴욕 못지않은 브랜드파워를 갖게 되었으며, 문화도시로서의 세계적인 명성도 얻게 되었다. 하나의 건축물이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으며, 건축물이 지역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도시재건계획을 수립한 빌바오시는 해마다 세계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도시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물인 건축물, 도시 등 공간 창조물은 생산과정에서부터 그 자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문화 · 관광적 가치, 더불어 고용창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특징은 무엇일까?
건축서비스 산업은 건물 또는 구축물이라는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활동이다. 건축과 건설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규격, 용량 등이 표준화 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건축설계업은 건축 · 건설업의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문 생산형 서비스 산업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노동집약적으로 서비스를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업종으로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을 창출한다. 건축서비스는 현장과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타 제품의 생산요소와 달리 토지와 공장, 설비 자본의 비중이 낮고 노동과 인적자본에 투하되어 있는 기술, 문화, 예술적 감각 등 비가시적 지적 요소의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이다. 계절적 측면에서도 건설업의 노동시장이나 타 원자재의 시장과는 달리 계절적 영향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최종재화인 건축물은 장기소비형 자본재로서 감가상각의 특징과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감가상각 속도의 저하와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규모는 건축서비스의 완성도에 크게 의존적하는 성격을 지닌다. 건축물은 완공 전의 생산 활동에 의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완공 후에는 자본재로서 임대의 가치를 지니게 되며, 역사성이나 시대 및 지역에 따른 문화적 부가가치를 지닌다. 또한 건축서비스의 최종생산물인 건축물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도시공간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고, 도시의 상 · 하수도, 전력, 정보망 등의 기반시설과 함께 생활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건설경기가 국가의 주택건설 계획, 신도시 계획 등에 민감한 성격을 지니며, 타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증폭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이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고용 및 부가창출정책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이 지시서비스산업의 하나로서 자리 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진흥으로서의 법적기반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 이글은 김지엽, 심우일의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1" 내용을 참조 · 인용하였다.

건물 준공 후 몇 년 째가 가장 멋질까요?
(건축물 사후평가제도 시행에 덧붙여)
How many years will a building need from its completion to have the best look?

조현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필자는 동네 미장원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용하며 간단하게 머리를 깎고 있다. 언젠가 단골 미용사에게 '머리 깎을 때 어느 시점에 가장 보기 좋도록 고려하느냐'고 물어보니, 보통 머리 깎고 일주일 후가 가장 보기 좋도록 머리정리를 해 준다고 한다. 일리가 있는 게, 3~4주 만에 한 번씩 깎으니 그 기간 중간 이전에 가장 보기 좋도록 배려한 셈이다.

이런 이야기를 건축물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평소 우리가 설계하는 건축물은 준공 후 어느 시점이 가장 기능적으로, 미학적으로 좋은 건축물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곤 했다. 대개 준공 직후엔 번쩍이며 그 자태를 뽐내던 건축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흉물로 변하는 걸 적잖게 보아왔던 터라… 더구나 최근엔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가 강화되고 그 법적근거가 마련된 시점이라, 이 제도의 실질적 적용이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게 사실이다.

그러면 현행 사후평가제도의 법적 내용은 어떠한가.

건기법 시행령에 의하면, 평가기준은 공사비 500억 이상, 준공 이후 3년~5년, 이내이며 사후평가 내용은 공사비 및 공사기간, 타당성조사의 내용과 실제사항의 차이, 건설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민 및 사용자의 만족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로 물리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아쉬운 것은 보다 미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기준이 포함될 수가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아마 이 기준은 객관적으로 계량화시키기가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리라 보지만,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보다 좋은 건축물을 지향하는 우리 직업의 속성상 이 기준도 어디엔가 포함되어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하여튼 이런 제도들이 정착되므로 해서 설계 시에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설계 작업에 임할 수 있다면 한결 나은 건축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준공 후 이용자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전면 유리 커튼월의 공공청사들을 예로 들어보자. 이 건물들도 현상설계를 거쳐 가장 잘 디자인된 것으로 평가받아 채택된 것이리라. 문제는 투시도상의 효과가 심사위원들을 현혹시켜 실제로 건축물에서 중요한 점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한때는 이런 유의 유리 건물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현상설계에서 당선되기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만, 반대급부로 최근엔 이런 유가 반면교사가 되어 보다 절제된 유리사용을 추구하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반대의 경우로 본인이 매주 접하는 교회건물을 보면, 독창적인 건축가의 디자인으로 지은 지 30년이 되는데도 거의 처음 디자인을 잘 유지하며 세월의 흔적과 손때를 훈장처럼 갈고 닦아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당시의 훌륭한 설계의도를 잘 이해하는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하였기 때문에 요즘도 많은 건축학도들의 순례코스가 되고 있어 이미 작고한 건축가도 저승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으리라.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제도는 그동안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최근의 법적 뒷받침을 거쳐 건축물들도 본격적인 평가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즈니스 모델로도 개발될 수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 이 지면을 빌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협회에서 건축대상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건축물 사후평가제도를 시행해보는 방법이다.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 외에 필요한 추가항목을 넣어 진짜 좋은 건축물을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사의 혼과 사용자의 애정이 스며 들어있는 건물을 선정해보자는 취지인데, 요즘처럼 매스컴에 건축사가 뜨고 있는 상황에 일반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건축심미안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인도 단골 미용사에게 우리 건축사도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그 때 가장 멋져 보일 건축물을 디자인한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동교회

필자는 서울대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주)동일건축에 재직 중이다.
구청 건축위원과 건기평 기술심사위원 및 법원, 검찰 조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옥 개량,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Improvement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Take Note of Outside Viewpoint

한동수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일제강점기 우리주택의 장단점을 다룬 각계 인사의 논의 (출처 : 동아일보 1939년 1월 6일자)

간란식 건축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그 범위는 이보다도 훨씬 넓다(필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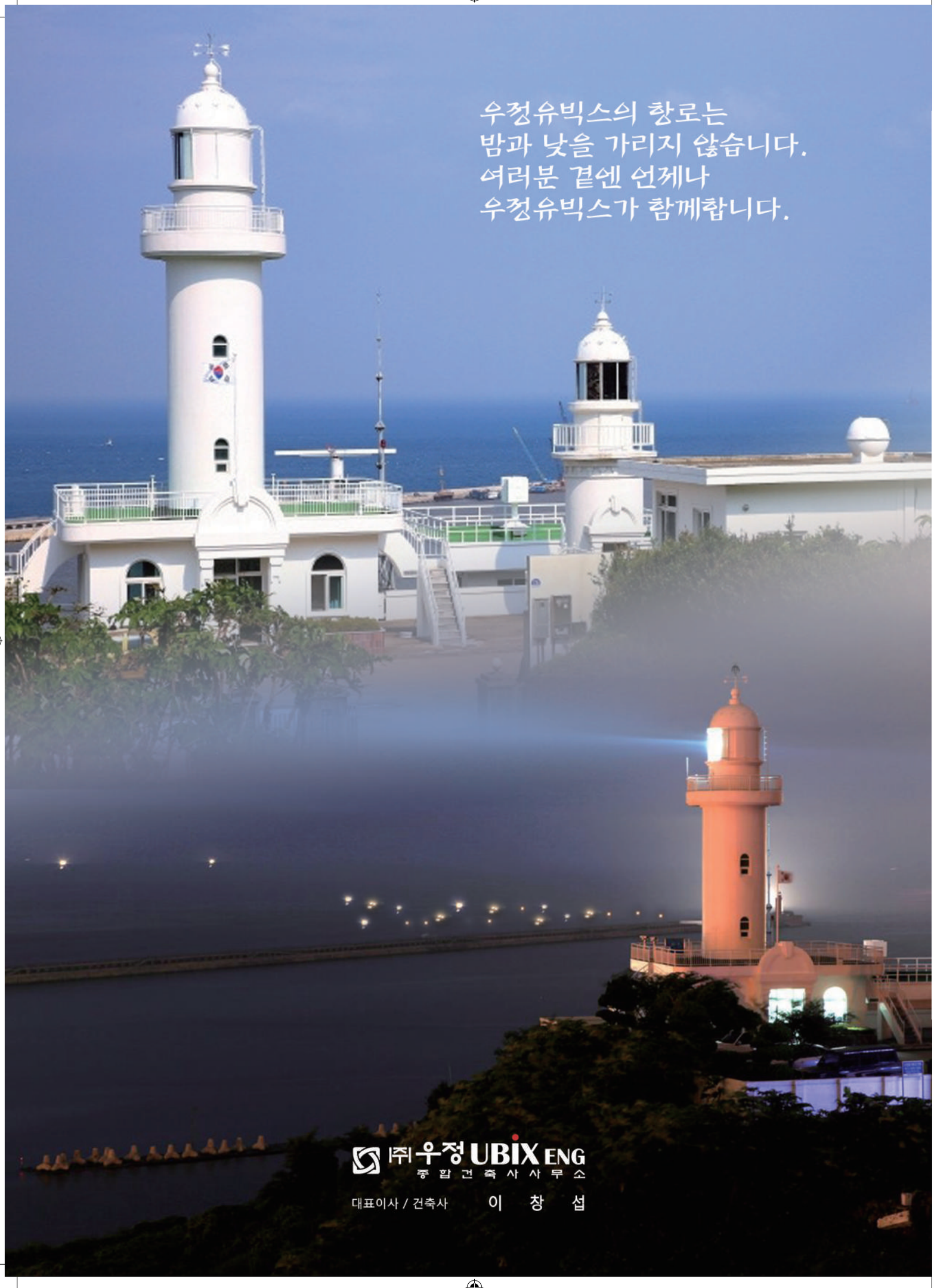
필자는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 건축학과에서 한국건축사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립대만대학에서 중국도시사 연구로 석사학위, 청화대학에서 한중고대건축의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뒤, 귀국 후 목원대 겸임교수, 인하대 전임강사를 거쳐 현재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시아의 건축, 도시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저서 및 역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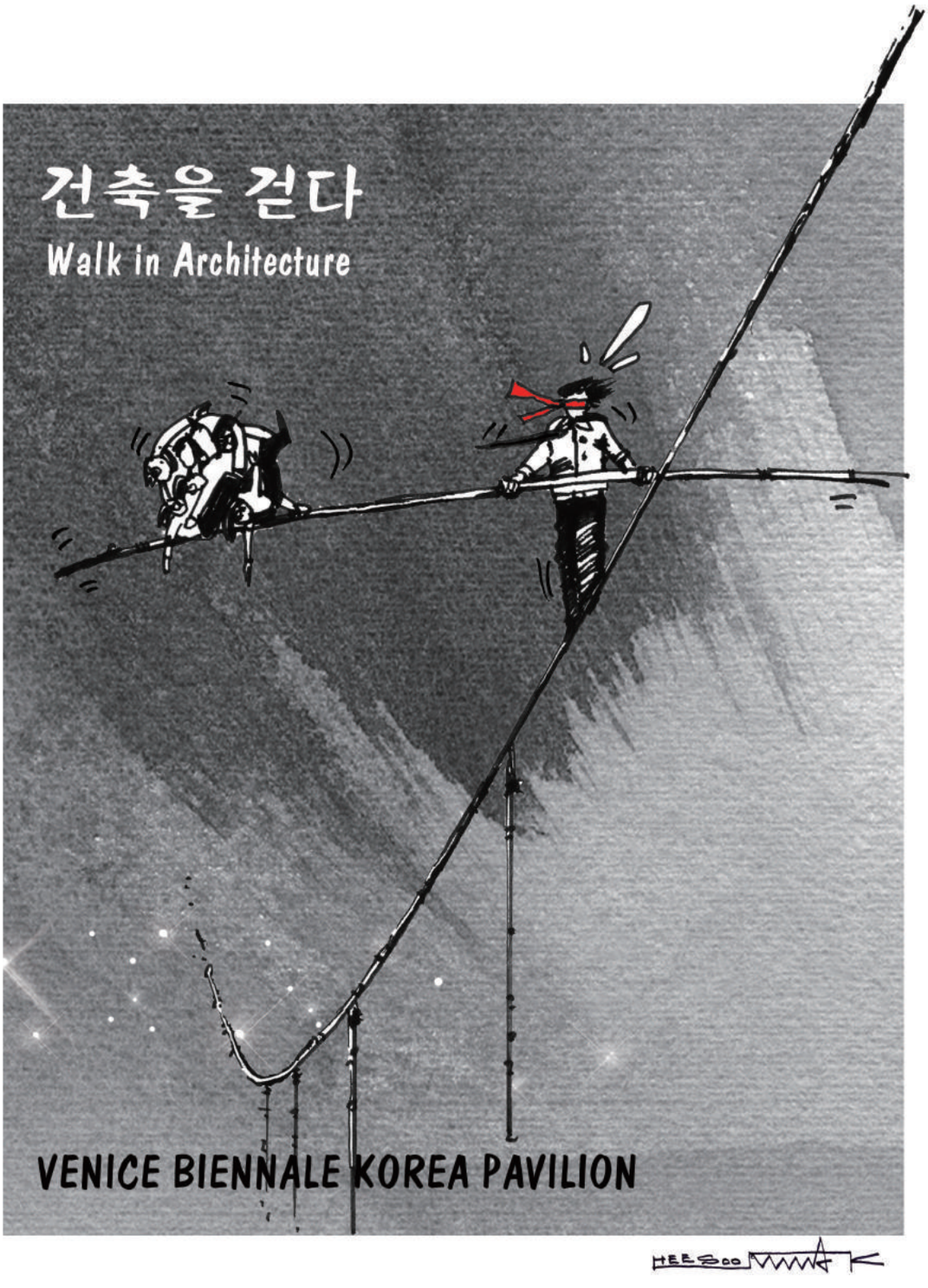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한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대중적 호기심과 일시적인 유행의 차원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관련 정부 기관의 연구비 지원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 쥐꼬리만한 액수에 비하면 가히 전폭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이다. 나아가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직접 실천으로 옮겨져 전국 각지에서는 한옥의 범주에 드는 건물을 발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한옥의 이름도 신한옥, 개량한옥, 한옥호텔, 한옥 동사무소, 한옥 도서관, 한옥단지, 민속마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도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필자는 잘 되 가는 일에 초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한옥이 정부 부처나 전문가들이 원하는 바대로 국내에서는 아파트를 대신하여 가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보급, 정착되고 국외에서는 세계적인 주거 브랜드로 건축에서의 한류가 되려고 한다면 지금의 생각에서 조금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과거 일제강점기에도 한옥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이른바 생활개선운동이라는 명분 아래 주거환경의 개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한 바 있다. 그래서 얻어진 주요한 결론은 한옥이 가진 온돌의 장점은 살리고, 부엌과 화장실의 개량을 통해 위생조건을 향상 시키며, 가족구성과 삶의 패턴에 맞추어 가족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배치의 합리화 등이었다. 이것은 일본주택을 비롯해서 양식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시간의 간격만 있을 뿐 요즘 한옥의 개량을 위한 노력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주목을 해 볼 관점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한옥의 성능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쉽게도 지나치게 내재적인 질서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옥의 문제를 한옥 자체의 역사변화내지 국내에 보급된 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해결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한옥을 구성하는 적지 않은 요소들이 다른 나라의 주택에서도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발견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온돌만 하더라고 중국 북방의 캉과 다르다고 인식만 하지 그것이 가진 장점과 우리 한옥에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벽면을 온돌처럼 난방 하는 화장(火墻)도 마찬가지이다. 한옥과의 관계를 설정해 보지 않으니 항상 남의 나라 것일 뿐이다. 마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마루의 형식을 포함해서 바닥이 지상에 떠있는 구조를 통칭해서 필로티 또는 간란식 구조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조방식은 동남아 일대는 물론 일본 열도, 한반도, 중국 동북 지역, 북유럽 등등 전 세계 각지에서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근대건축의 거장 르 코르뷰지에가 제창한 건축의 5원칙에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공방식과 재료의 변화에 사로잡혀 전통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붕 가구법의 문제도 그렇다. 서양의 트러스만 염두에 두고 있을 뿐 주변 국가의 전통 주택에서 해결방법을 찾아 볼 것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시각만 달리하면 적심과 보토도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적합한 사례들을 충분히 찾아 낼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시대의 한옥은 좌식과 입식을 모두 요구하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영건척도의 다변화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경제성 위주의 한옥 변신을 일면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의 외부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는 변화의 선택폭과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한옥은 비로소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성공적인 주거형식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정유빅스의 항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엔 언제나
우정유빅스가 함께합니다.
㈜우정 UBIX ENG
종 합 건 축 사 사 무 소
대표이사 / 건축사 이 창 섭



곽희수 | idemm@chol.com

약력
- 홍익대학교 졸업
- 이뎀도시건축 대표
- 홍익대학교 튜터
-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SPECIAL ISSUE

제4회 서울국제 건축영화제 미리보기

4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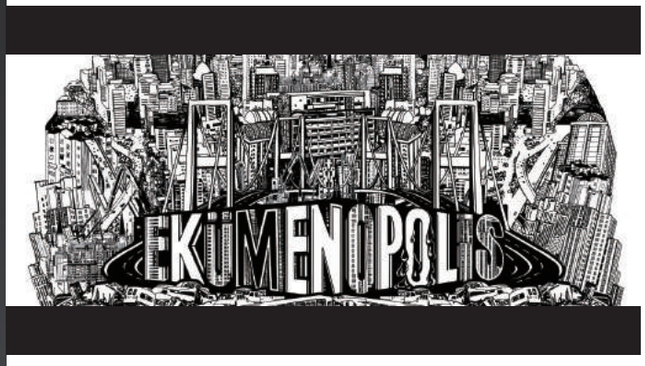
일시 : 2012년 11월 8일 ~ 11월 14일
장소 :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4th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는 건축과 영화의 만남을 통하여 국민들이 건축을 보다 친근히 느낄 수 있게 하고, 건축사의 역할, 건축의 가치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11월 8일에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며, 김형수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막을 열 이번 영화제는 '도시'를 주제로 총 5개국 10편의 영화가 7일간 상영될 예정이다.
개막작은 에쿠메노폴리스로 이스탄불의 도시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상영작 중 '브라질'은 80년대 SF영화로 당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관객층을 불러 모을 예정이다.

■ Ekumenopolis (개막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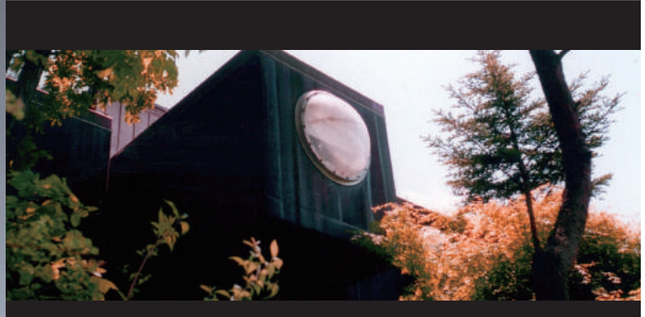
2011 / Documentary / Imre Azem / 88min (제작년도/장르/감독/상영시간)



Ecumenopolis는 1967년 그리스 도시계획 전문가 Constantinos Doxiadis가 1967년에 발명한 단어로, 현재 인구와 도시화 추세로 보았을 때 앞으로 미래의 도시는 지역별 나라별 개념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세계 도시로 연속성을 띄게 될 것임을 뜻하는 말이다. 1980년대 세계화 진행을 촉진시키는 신자유주의의 변동이 개발도상국들의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살인적이었다. 그 피해도시 중 하나인 이스탄불의 도시에 관한 다큐멘터리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살인적인 도시화문제를 다룬다. 서울의 도시화 역시 이스탄불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스탄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인들에게 맹목적인 도시화에 대한 필요성과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 Kochuu (폐막작)

2003 / TV Documentary / Jesper Wachtmeister / 52min



KOCHUU는 북유럽 건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본의 전통건축물에서부터 현대건축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미래, 전통, 자연, 콘크리트, 정원 그리고 하이테크를 콘셉트로 잡아서 어떻게 오래된 전통을 가진 일본 건축사들이 젊은 건축사들과 하나로 융합하여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어내는지 분석하고 조망한다.
일본 건축사 Tadad Ando, Kisho Kurokawa, Toyo Ito, Kazuo Shinohara , Scandinavian architects Sverre Fehn, Kristian Gullichsen , Juhani Pallasmaa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현대를 추구하는 모습과 방법을 정성스럽게 담아 구성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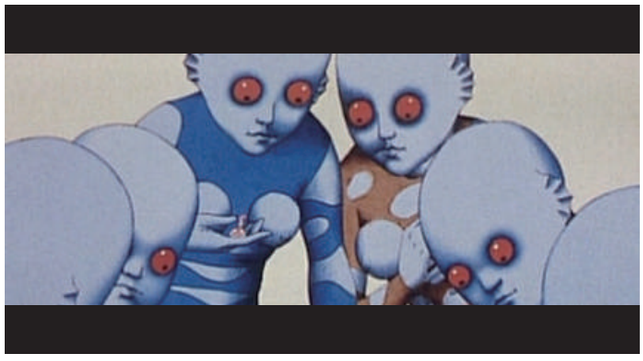
■ 말하는 건축가

2011 / Documentary / 정재은 / 95min

정기용은 대장암 판정을 받고 치료의 부작용으로 성대결절로 살아가고 있다. 마이크에 의존하며 목소리를 내는 그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의 임무를 누구보다 굳건히 수행해 나간다. 인간을 위한 건축, 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건축을 주장하며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내는 그는 어느 날 서울 광화문 일민 미술관에서 전시를 제안 받는다. 전시를 위해 지난 날 자신의 작품들과 자기 생각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정기용. 그리고 그의 주변인들이 생각하는 정기용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나가며, 관객들에게 '건축'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Fantastic pl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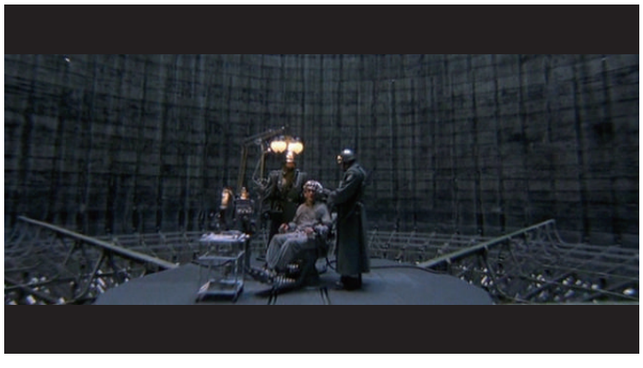
1973 / SF animation / René Laloux / 72min



1973년도 칸 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하였던 르네 랄루와 감독의 SF애니메이션. 사이언스 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되어지는 이 애니메이션은 1970년대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믿기 힘든 상상력과 충격을 안겨준다. 푸른 거인들이 지배하는 얌 행성에서 인간들은 거인들의 애완동물이자 장난감일 뿐이다. 영화에서 외계 행성은 곧 지구의 미래이다. 르네 랄루 감독은 인간 스스로 그들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종교와 국가에 억압시키며 스스로 무언가에 얽매인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를 자처하는 인간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도시가 사람을 기반으로 재창조, 발전되어지기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 브라질

1985 / SF / Terry Gilliam / 132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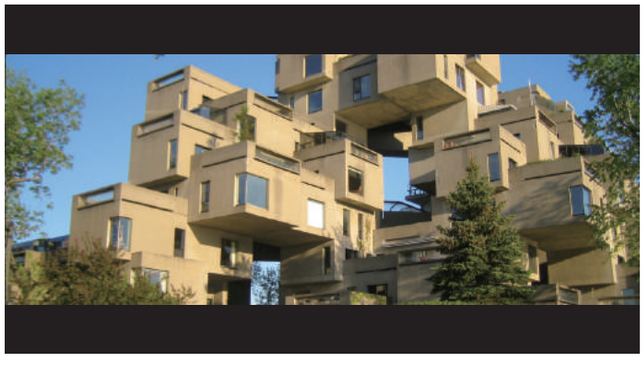


SF영화의 수작으로 꼽히는 브라질은, 정보화로 인해 모든 것이 획일화된, 시간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도시를 보여준다. 거대한 정보국의 서기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샘은 반복되는 일상과 무미건조한 도시 생활에 실증을 느낀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꿈속에서 하늘을 날며 이름 모를 여인을 만나는 일. 그러던 어느 날 꿈속의 여인을 현실에서 만나게 되고, 그녀를 따라 다니다 정보국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다.

암울한 미래 도시를 그럴싸하게 표현한 영화 속 컴퓨터체계들은 장엄하고 견고해보이지만, 영화 전개 내내 제대로 작동되거나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 앞으로 다가 올 우리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테리길리엄의 생각이 묻어나오는 미장센에 주목하고, 영화의 결말 또한 주의 깊게 볼 만 하다.

■ Great expectation

2007 / Documentary / Jesper Wachtmeister / 52min



이 다큐멘터리는 오늘날 20세기 건축물의 놀라움을 보여주며, 혁신과 초현대성 이상성, 그리고 때로는 기이하기까지 한 건축프로젝트들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19세기 이후 산업화와 급격한 기계화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문제와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집부족 문제, 도시부패와 공기오염 문제 등을 포함한 이러한 문제들에 영감을 받은 비전있는 건축사들은 삶의 방식에 도전하여 더 좋은 건축물,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업적을 이뤄냈다. Great Expectation은 발견되어졌거나 아직 발견되지 못한 어마어마한 건축비전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말해주며, 혁명가들의 빛을 발하지 못한 창조적인 사상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 바람 불어 좋은 날

1980 / Drama / 이장호 / 115min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은 현재 국민 배우로 자리 잡은 배우 안성기가 아역배우에서 처음으로 성인연기를 하여 성공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작품으로, 젊은 안성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1970년대 한국 멜로물의 정형화된 인물설정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한다. 주인공 덕배, 춘식, 길남의 인생 드라마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서울변두리 도시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영화로 80년대 한국 클래식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상계동올림픽

1988 / Documentary / 김동원 / 27min

1988년 올림픽의 설렘과 화려함 이면에는 달동네 재개발 사업이라는 도시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상계동 달동네 집을 철거해나간다.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키고자 주민들은 안간힘을 쓰지만 돌아오는 건 잔인하고 이해 못 할 처사들 뿐.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상처입었지만, 그 누구하나 나서서 잘못을 바로 잡지 않았던 억울하고 비통한 사건을 담은 김동원 감독의 화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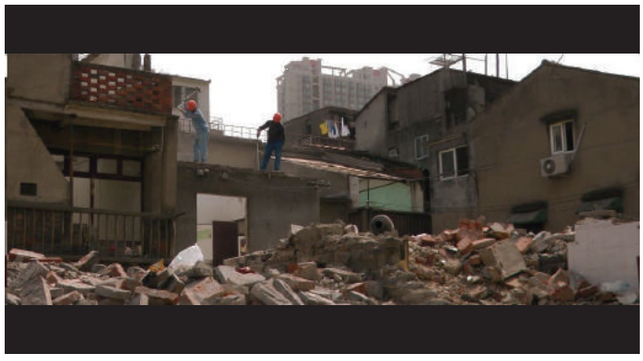
■ 위대한 침묵

2005 / Documentary / Philip Gröning / 169min

위대한 침묵은 알프스 산맥 해발 1300미터에 위치한 그랑드 사르트레즈라는 가톨릭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의 침묵 수행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어떠한 대사도, 인터뷰도, 음악도 없이 진행되는 이 영화는 침묵을 통해 들리는 자연과 배경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명상 · 힐링 영화이다.
침묵수행을 하는 수도사들처럼 카메라는 계절과 시간 공간에 어떠한 시선과 의견도 넣지 않고 묵묵히 그들을 담을 뿐이다. 속도와 경쟁을 강요받는 우리들의 도시생활을 잠시 잊고 그들만의 도시와 공간을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 Urbanisation in china

2011 / Documentary / David Lingerak / 60min



중국의 도시화의 속도는 현재 아우토반을 전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새로운 도시가 눈 깜작할 사이에 생겨나고, 작은 마을에 사는 거주자들은 그들의 거주지를 잃고 새로운 도시를 찾아 길을 떠난다. 그들이 살던 집보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웃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편안함을 느끼던 중국 본연의 도시는 사라지고 있다. 그들은 과연 진정한 집을 찾았다고 느끼는 걸까? 영화 속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은 유럽풍의 아파트 단지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더 나은 생활을 한다고 말 하지만,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이들은 이국적인 풍경에서 사진을 찍기 원하는 신혼부부들뿐인 것 같아 보인다. 'Urbanisation In China: Happiness Is Seen Everywhere' 는 중국도시화와 주거민들의 인터뷰를 담아 중국도시를 생생히 전달한다.

■ 모래

2011 / Documentary / 강유가람 / 49min

현대인들에게 집의 의미란 무엇일까?
다큐멘터리 모래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변모해버린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한 가족을 카메라에 담았다. 아파트 재개발 계획으로 집값이 오르리라는 기대로 집을 팔지 않고 힘든 생활을 꾸려나가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딸의 시선으로 집의 진정한 의미와 가족애를 풀어나간다.

■ Great expectation

2011 / Documentary / Camilla Robinson / 14min

5Cities, 5 Places, One Day는 BDP 건설회사에서 만든 50주년 기념 단편영화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관객들을 하루 동안 5개국 5개 빌딩으로 안내한다. 빌딩으로 안내한다. 날씨와 건축물의 구조, 카메라 앵글까지 세심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화면과 감각적인 영상과 함께 각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로 관객들에게 공간적인 감수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WORKS

대장경 천년관

TRIPITAKA KOREANA MILLENIUM MUSEUM

대장경 천년관

건축주 |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설계자 | **함인선**_KIRA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전영성, 곽동진, 김순수, 명 일, 임성수, 정영은, 김승욱
  정진형, 전대열, 임재면, 배형식, 최용남, 강동주, 최성환
  신지원, 김동일, 전영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TNI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일신이엔씨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태양엠이씨

감리자 | **휴먼텍코리아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삼부토건(주), 명성기업(주), 선우건설(주)**

대지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Site Area) | 124,62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924.48㎡

연면적(Gross Floor Area) | 5,316.8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61%

용적률(Floor Area Ratio) | 2.91%

규모(Building Scope) | B1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현무암, 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 11 ~ 2010. 08

공사기간 | 2010. 06 ~ 2011. 08

사진(Photographer) | Lee, Jung-hun

Architect | Ham, In-seon

Project team | Jeon, Young-sung / Kwak, Dong-jin / Kim, Soon-su / Myung, Il
Lim, Sung-su / Jung, Young-eun / Kim, Seung-wook
Chung, Jin-hyoung / Jeon, Dae-youl / Lim, Jae-myoun
Bae, Hyeong-sik / Choi, Yong-nam / Kang, Dong-ju / Choi, Sung-hwan
Shin, Ji-won / Kim, Dong-il / Jeon, Young-jae

Location | Yacheon-ri, Gaya-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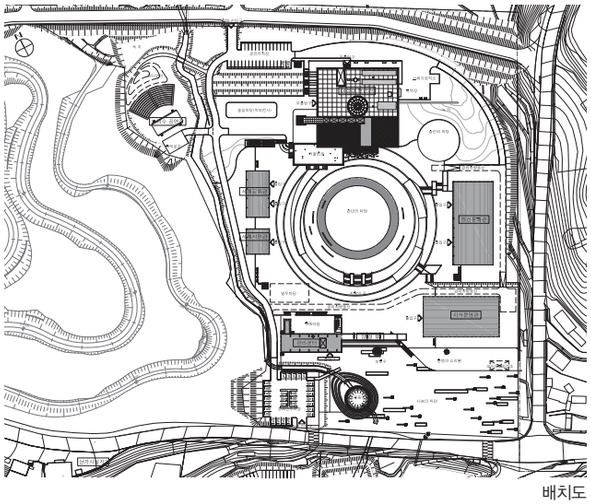
Structure | R.C, S.C

Structural Engineer | TNI Structur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Ilshin Engineering & Construction

Design period | 2009. 11 ~ 2010. 08

Construction period | 2010.06 ~ 2011. 08



배치도

대장경천년관
TRIPITAKA MILLENNIUM HALL

해인사 초입에 위치한 본 '대장경 천년관'은 1011년에 조성된 최초의 활판인쇄경인 초조대장경의 1,000주년(천년)을 기념하여 국내 최고의 목판본이자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된 팔만 대장경의 디지털화 및 동판으로 제작한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설계개념 : 천년의 마당, 지혜의 나눔터_팔만대장경은 단순히 경전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넘어, 만인에게 부처의 뜻과 호국이념을 전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장경 천년관의 설계는 그 의지의 계승으로부터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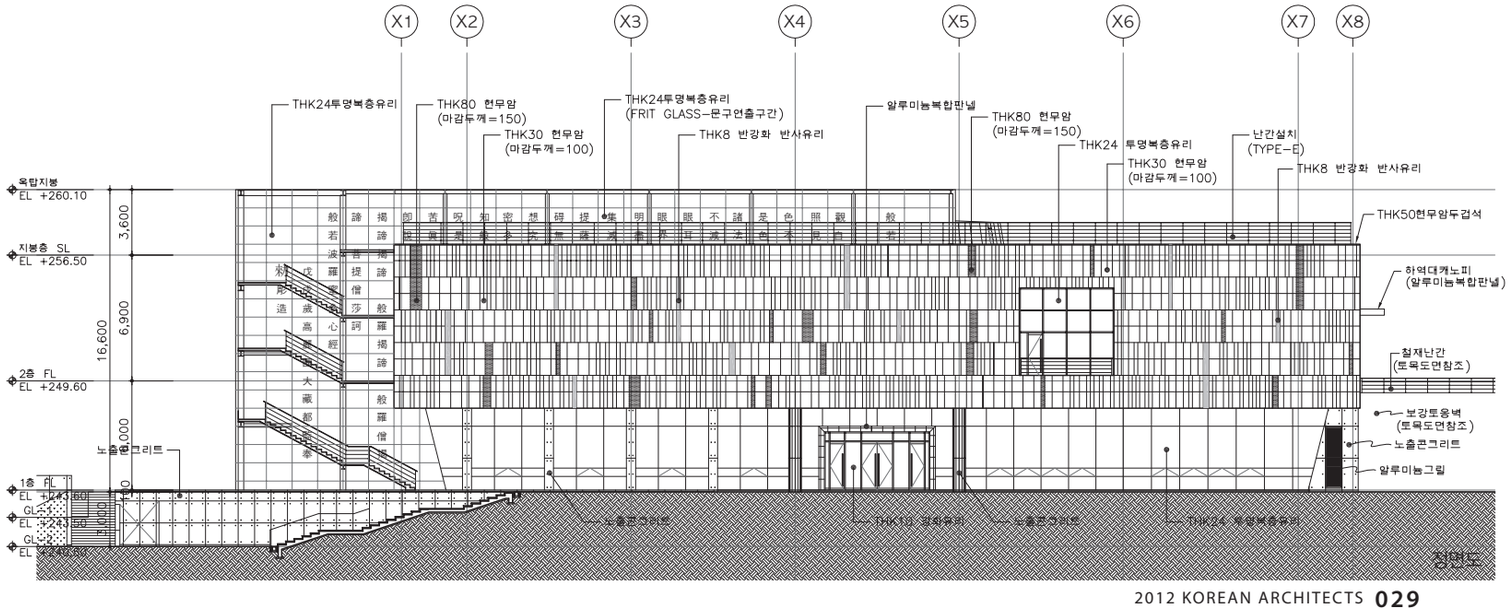
대장경 천년관 외부 : 빛을 담은 지혜의 공간_천년의 지혜를 담은 대장경판을 형상화한 절제된 사각 매스를 기본으로 중앙 아트리움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빛으로 지혜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기단부를 투명한 유리재질로 구성하여 대장경판이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불교 수련의 최고 경지인 '해탈'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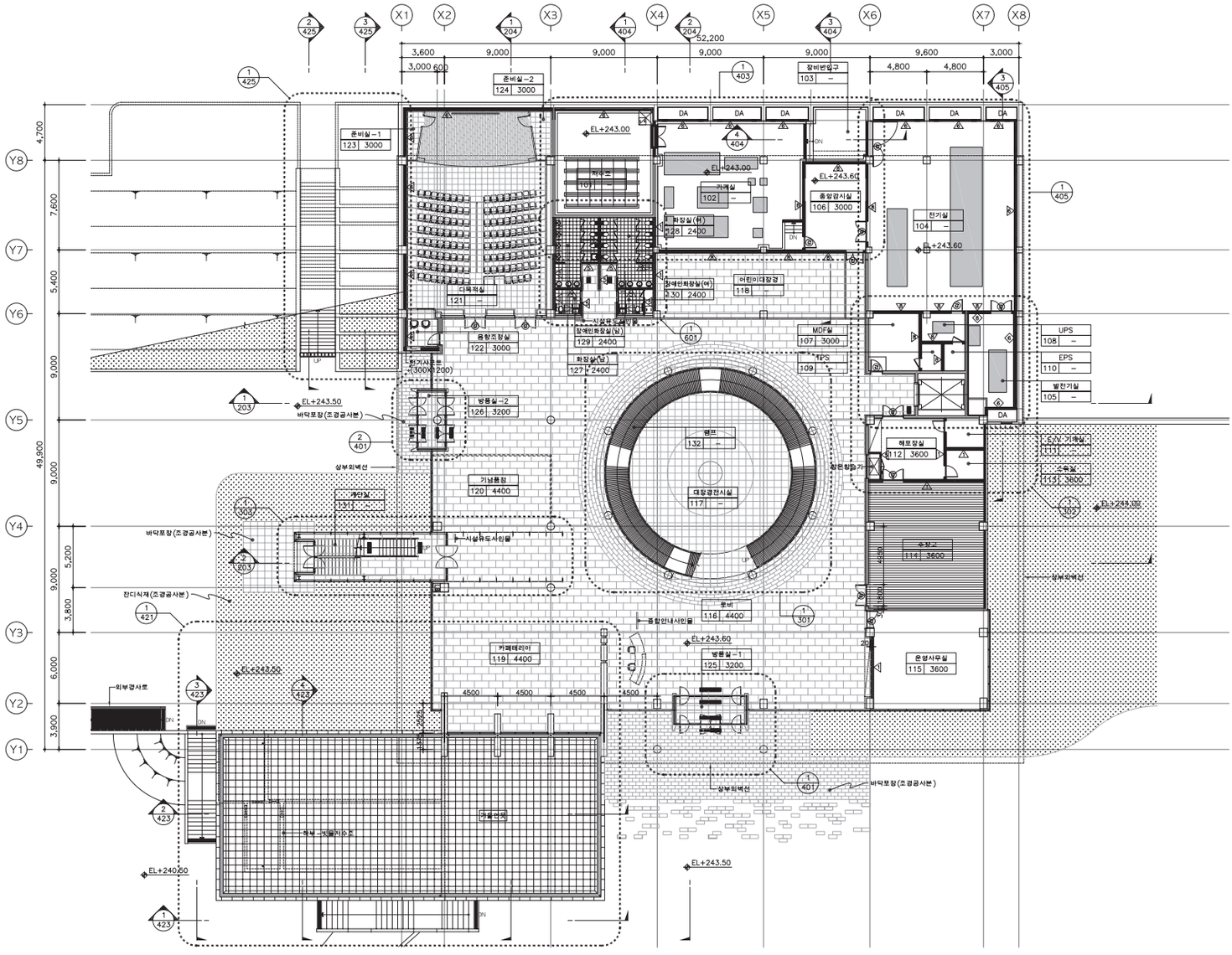
대장경 천년관 내부 :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과정_중앙의 원형공간은 전시관으로 활영하는 동시에 아트리움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관입된 유리매스 : 천년의 지혜와 소통하는 새로운 시대_사각 매스의 외부로부터 장경판을 상징하는 전시관까지 반야심경을 새긴 유리매스를 관입시킴으로써 과거의 지혜가 새로운 시대와 소통함을 표현하였다.

거울연못 : 기록되고 전파되며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는 대장경_유리매스에 새겨진 반야심경이 거울연못에 비치는 모습은 장경판을 한지에 인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지혜의 문자가 무한 복제되어 세상에 널리 전파됨을 상징한다.

천년의 마당, 부속건물 : 시간의 영속성과 불교의 윤회사상_천년의 마당은 원형으로 조성하였으며, 이는 시간의 영속성과 불교 윤회사상에서 그 디자인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다. 관리센터 및 게이트, 야외공연장과 같은 부속건물 역시 절제된 형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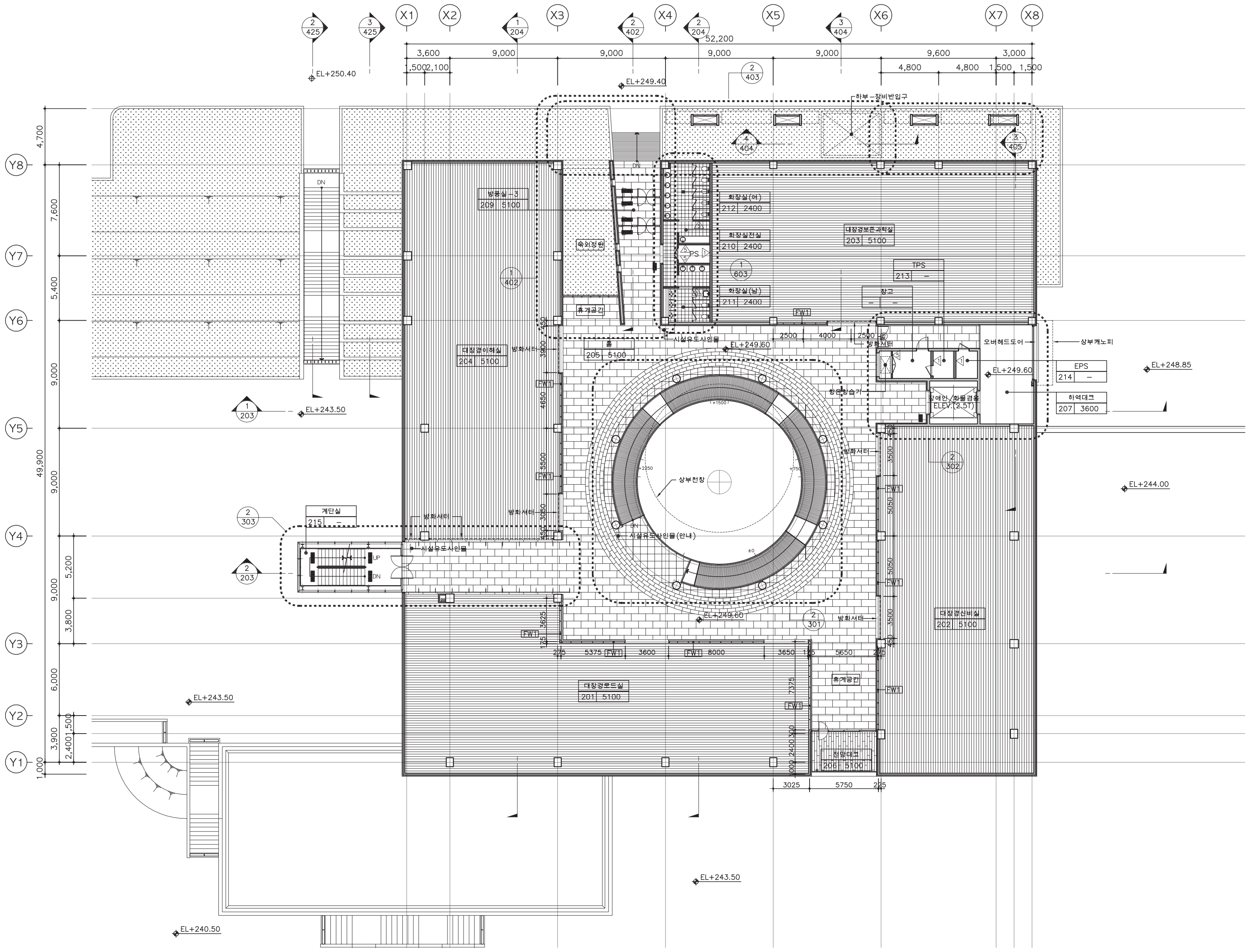

X1
X2
X3
X4
X5
X6
X7
X8
THK24투명복층유리
THK80 현무암
(마감두께=150)
THK30 현무암
(마감두께=100)
THK24투명복층유리
(FRIT GLASS-문구연출구간)
THK8 반강화 반사유리
알루미늄복합판넬
THK80 현무암
(마감두께=150)
THK24 투명복층유리
THK30 현무암
(마감두께=100)
난간설치
(TYPE-E)
THK8 반강화 반사유리
THK50현무암두겁석
옥탑지붕
EL +260.10
지붕층 SL
EL +256.50
2층 FL
EL +249.60
1층 FL
3,600
6,900
16,600
하역대캐노피
(알루미늄복합판넬)
철재난간
(토목도면참조)
보강토옹벽
(토목도면참조)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그릴
노출콘크리트
THK10 강화유리
노출콘크리트
THK24 투명복층유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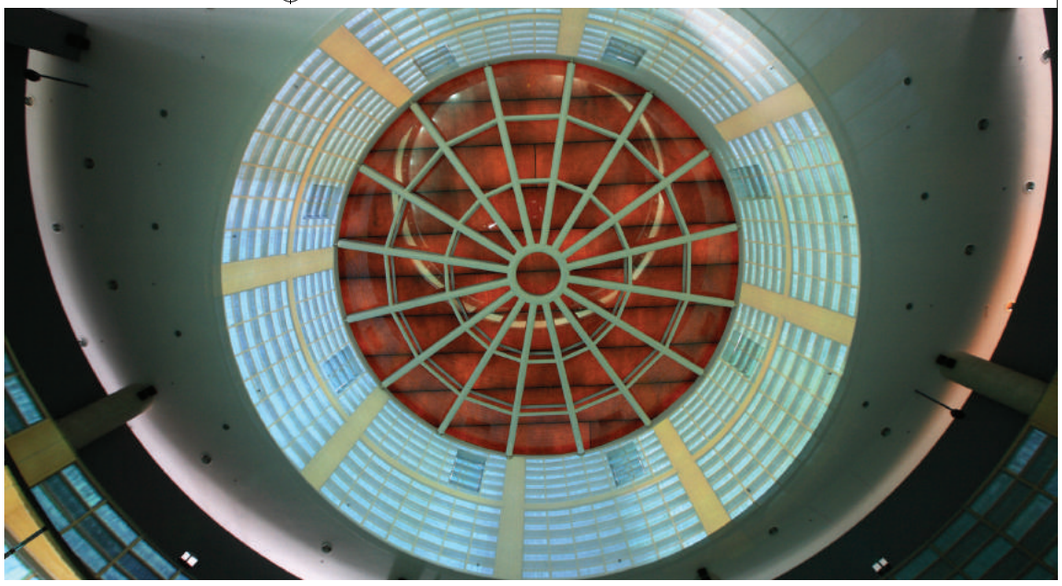
X1
X2
X3
X4
X5
X6
X7
X8
Y1
Y2
Y3
Y4
Y5
Y6
Y7
Y8
52,200
3,600
9,000
9,000
9,000
9,000
9,600
3,000
3,000
600
4,800
4,800
4,700
7,600
5,400
9,000
9,000
5,200
9,000
3,800
6,000
3,900
49,900
준비실-2
124 3000
준비실-1
123 3000
장비반입구
103 -
EL+243.00
EL+243.60
EL+243.50
EL+240.50
DA
UPS
108 -
EPS
110 -
발전기실
105 -
MDF실
107 3000
TPS
109 -
대장경전시실
117 -
로비
116 4400
방문실-1
125 3200
방문실-2
126 3200
기념품점
120 4400
카페테리아
119 4400
수장고
114 3600
운영사무실
115 3600
바닥포장(조경공사분)
상부외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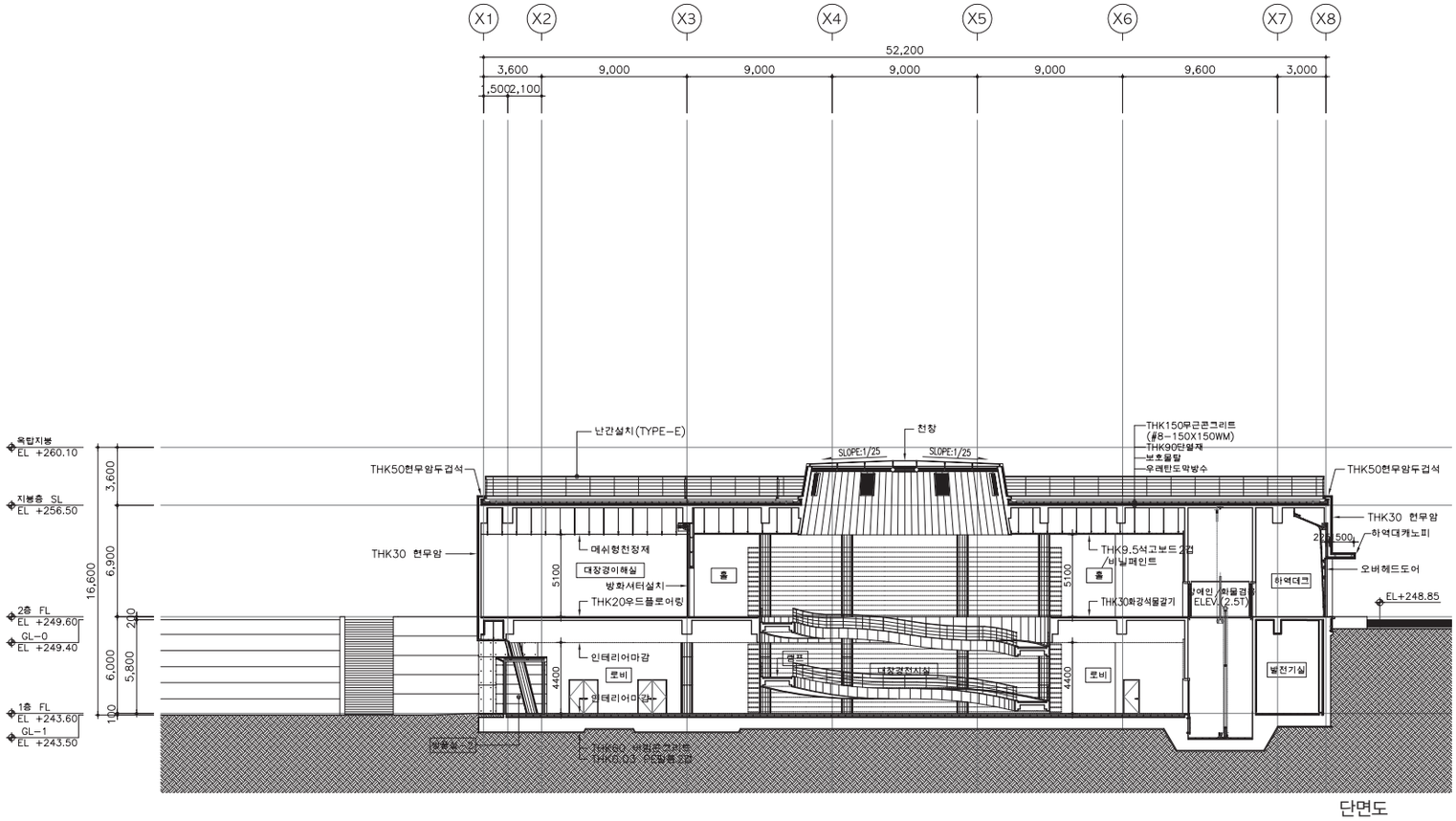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Millennial Anniversary of the Tripitaka Koreana
일반/외국인 FOREIG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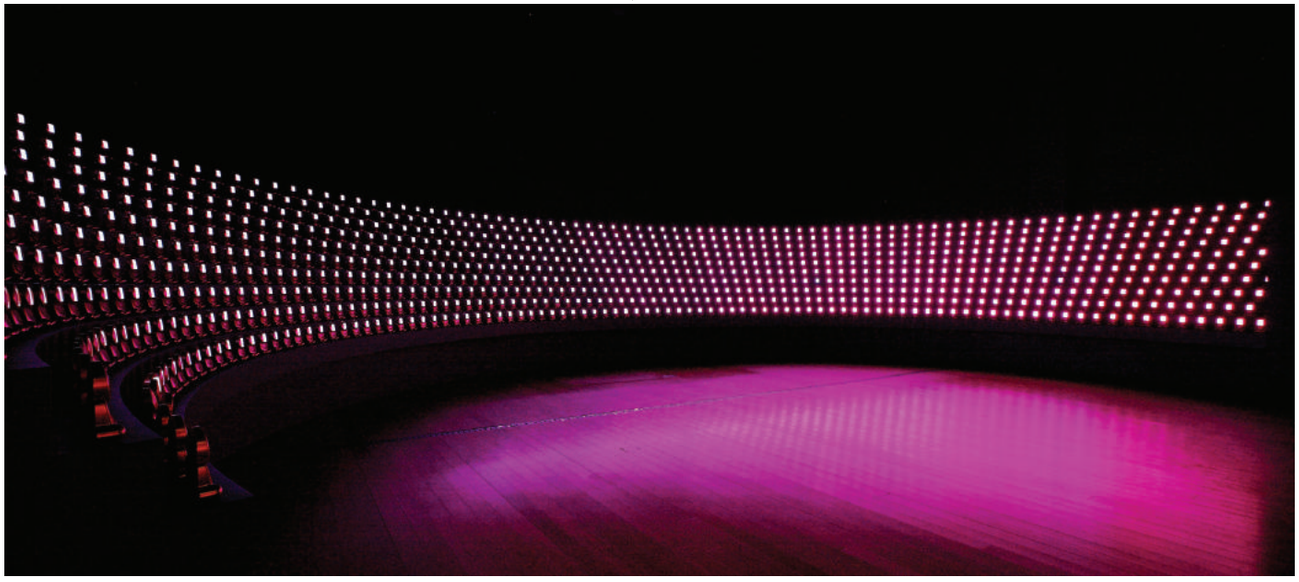

X1
X2
X3
X4
X5
X6
X7
X8
Y1
Y2
Y3
Y4
Y5
Y6
Y7
Y8
52,200
49,900
EL+250.40
EL+249.40
EL+243.50
EL+249.60
EL+248.85
EL+244.00
EL+240.50
상부천창
TPS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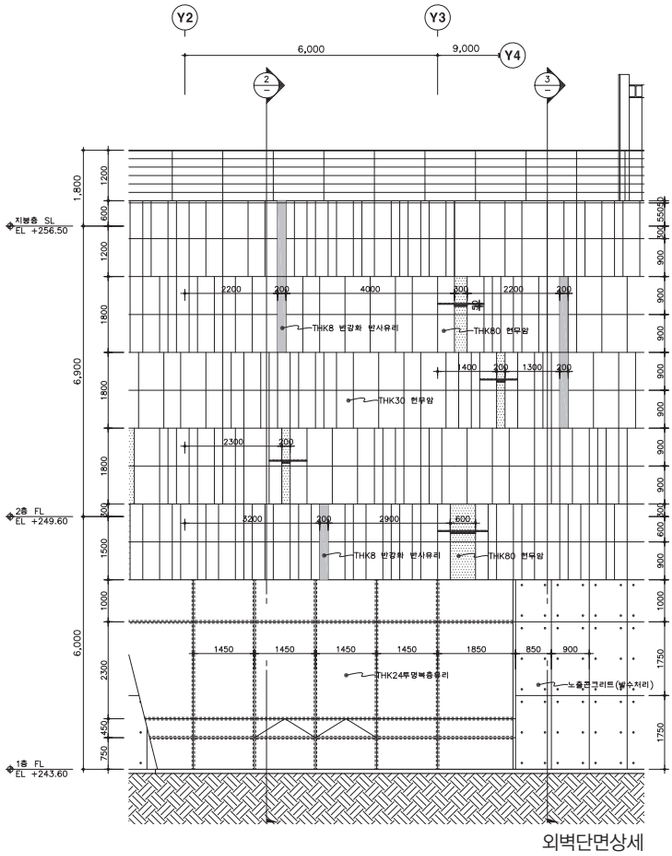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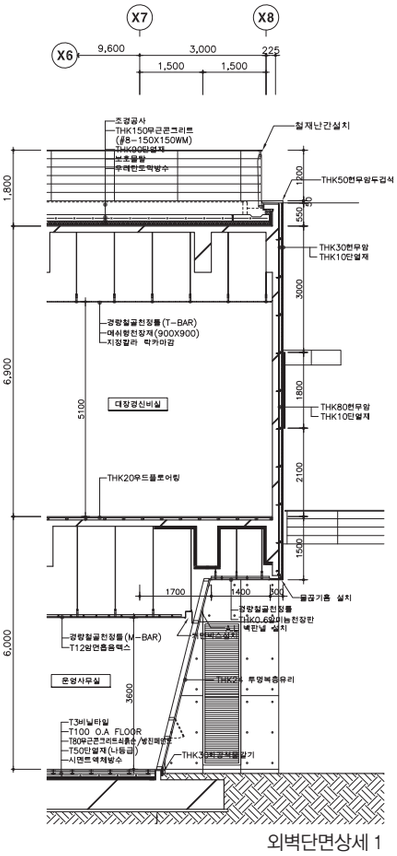

X1
X2
X3
X4
X5
X6
X7
X8
52,200
3,600
9,000
9,000
9,000
9,000
9,600
3,000
1,500
2,100
옥탑지붕
EL +260.10
지붕층 SL
EL +256.50
2층 FL
EL +249.60
GL-0
EL +249.40
1층 FL
EL +243.60
GL-1
EL +243.50
16,600
3,600
6,900
200
6,000
5,800
100
난간설치(TYPE-E)
천창
SLOPE:1/25
SLOPE:1/25
THK150무근콘크리트
(#8-150X150WM)
THK90단열재
보호몰탈
우레탄도막방수
THK50현무암두겁석
THK50현무암두겁석
THK30 현무암
THK30 현무암
하역대캐노피
오버헤드도어
EL+248.85
메쉬형천정제
대장경이해실
방화셔터설치
THK20우드플로어링
홀
홀
THK9.5석고보드2겹
/비닐페인트
THK30화강석물갈기
하역대크
인테리어마감
로비
로비
대장경전시실
발전기실
5100
5100
4400
4400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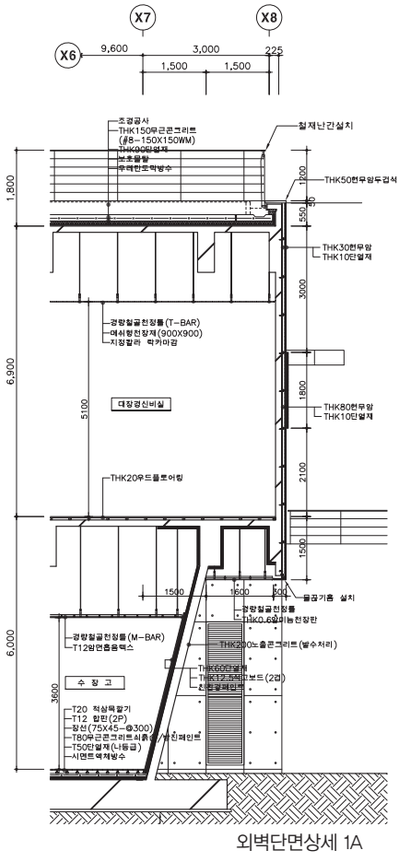




외벽단면상세



외벽단면상세 1



외벽단면상세 1A

WORKS

용인 아르피아 포은아트홀, 아르피아 타워,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 죽전2동 주민센터

YONGIN ARPIA POEUN ART HALL, ARPIA TOWER,
ARPIA SPORTS CENTER & JUKJEON 2-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ORKS

용인 아르피아 포은아트홀, 아르피아 타워, 아르피아 스포츠 센터 & 죽전2동 주민센터

건축주 | 용인시

설계자 | 이병철_KIRA | ㈜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엄경배, 이영수, 김종규, 홍승우, 오세열, 김철수, 장경민 신애리, 방기석, 성용훈, 황병구, 안승규, 이관호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은구조기술사사무소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자영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청우이엔지

감리자 | ㈜경동엔지니어링

시공사 |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003-235 외 120필지

대지면적(Site Area) | 120,016.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2,313.27㎡

연면적(Gross Floor Area) | 84,512.0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0.26%

용적률(Floor Area Ratio) | 17.71%

규모(Building Scope) | B3-4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인조라임스톤, 알루미늄시트, 점토벽돌, 티타늄 징크판넬

설계기간 | 기획 및 계획 2005. 03 ~ 2007. 05 / 실시설계 2007. 05 ~ 2009. 03

공사기간 | 2009. 01 ~ 2012. 07

사진(Photographer) | Lim, June-young(ChungAM Ditography)

Client | Yongin City

Architect | Lee, Byung-chul

Project Team | Om, Kyong-bae / Lee, Young -soo / Kim, Jong-kyu / Kim, Chul-soo
Jang, Kyung-min / Shin, Arie / Hong, Seung -woo / Oh, Se-yeol
Bang, Gi-suk / Seong, Yong-hun / Hwang, Byeong-gu
An, Seung-gyu / Lee, Kwan-ho

General Constractor | Samsung Engineering Co.,Ltd.

Location | 1003-235, Jukjeon-dong,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SRC

Structural Engineer | EUN Structure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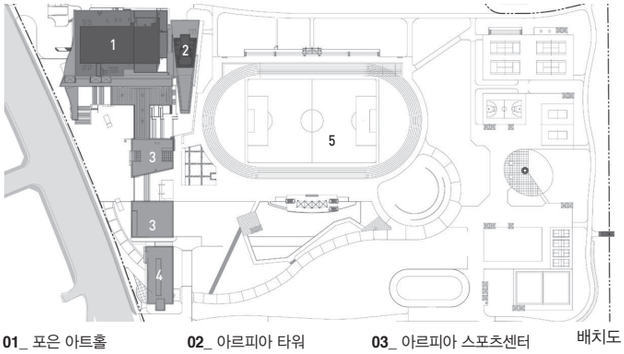
HVAC Engineer | CHUNGWOO Engineering Co.,Ltd.

Electrical Engineer | JAYOUNG Engineering Co.,Ltd.

Finishing Materials | Artificiality Lime stone, Aluminium sheet
Fireclay brick, Titanium zinc sheet

Design period | 2005. 03 ~ 2007. 05 / 2007. 05 ~ 2009. 03

Construction period | 2009. 01 ~ 2012. 07



배치도

01_ 포은 아트홀 **02**_ 아르피아 타워 **03**_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04_ 죽전2동 주민센터 **05**_ 체육공원

용인 아르피아는 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문화 및 스포츠 등의 시설을 설치한 복합 건축물이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주민기피시설로서, 일반적으로 도심지 외곽에 설치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아르피아는 도심지내에 하수처리시설 단지를 조성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원과 운동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발상의 환경시설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죽전2동 주민센터는 오페라 등 모든 공연이 가능한 1,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수영장, 헬스클럽 등 스포츠센터, 하수처리장의 배기시설을 활용한 전망타워, 그리고 업무시설인 주민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배치 계획시, 건축물은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진입도로 전면에 배치하였으며, 후면 공원으로의 시

공연장 진입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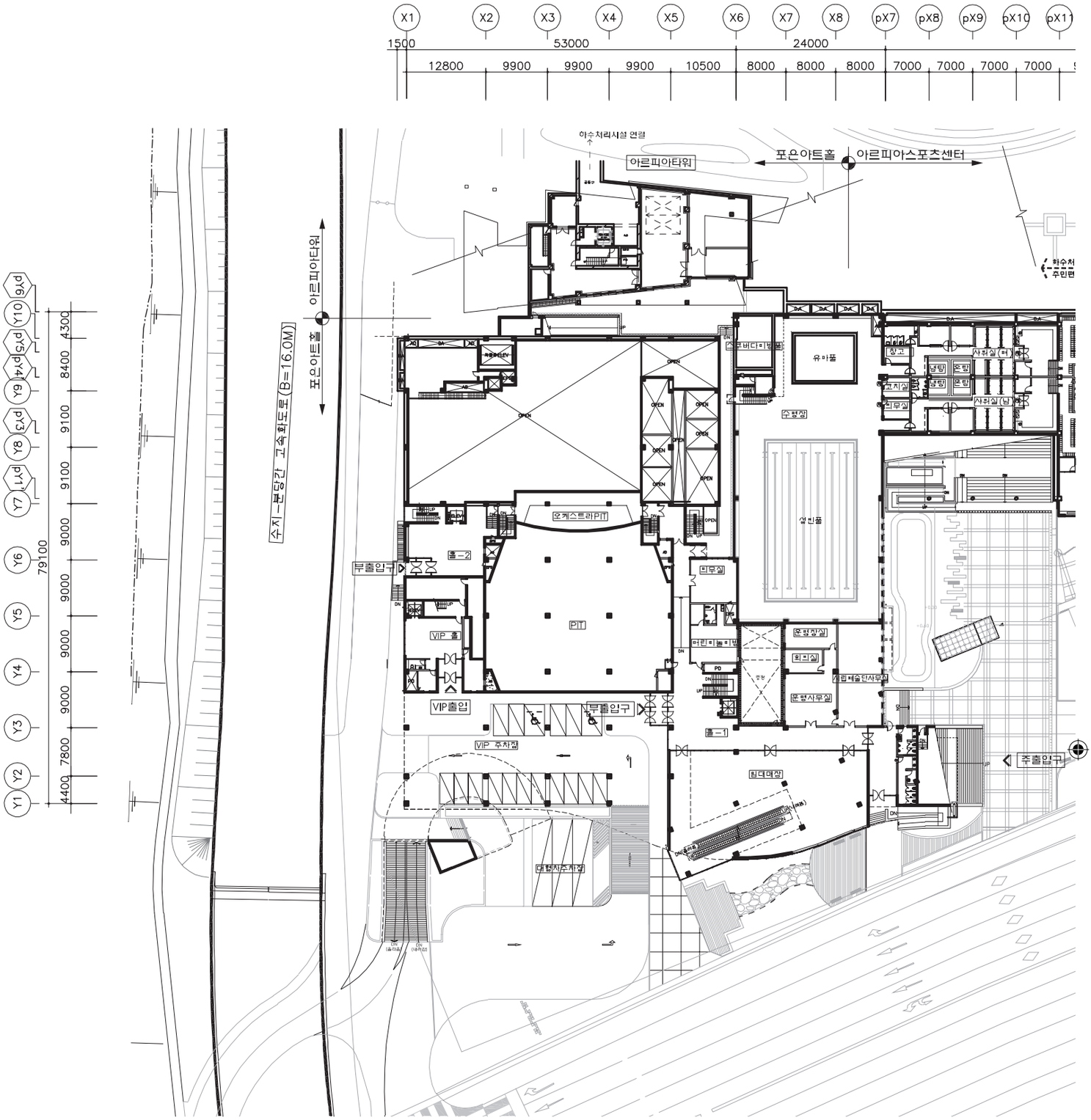
야 및 동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매스를 다섯개 동으로 분리하고 각 건물을 브릿지로 연결, 하부를 오픈 시킴으로써 전면도로에서 후면 공원과 옥외 운동시설로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고속 도로, 도시 고속도로, 간선 국도 변에 위치한 공연장은 랜드마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양호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공연장으로서는 방음에 대한 핸디캡을 갖고 시작 할 수 밖에 없었다. 해결책으로 공연장의 외벽은 콘크리트 벽체로 계획하여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였으며, 도시의 흐름을 상징하는 로비의 벽체는 주출입구의 가벽으로 연장되어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는 장치로 계획 되었다.

공연장은 무대 및 객석의 설비와 음향의 품질 확보, 그리고 관객의 안전한 피난 등을 주안점으로 계획하였으며, 협소한 부지 여건상 공연장 출입구 전면의 광장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영장 상부를 데크 공간으로 계획, 공연 전후 다수의 인파를 수용할 수 있는 전면광장 개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전망타워 및 푸드코트로의 동선연계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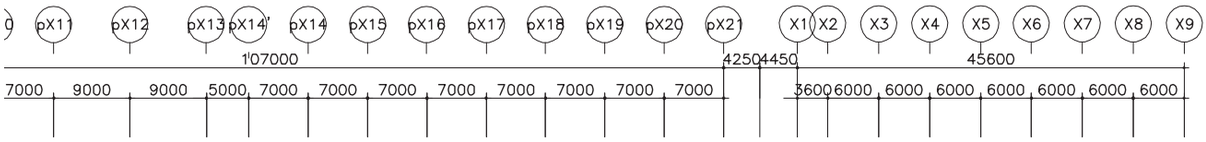
스포츠센터는 수영장과 헬스클럽 및 사우나 시설, 암벽 등반장, 건강검진시설 및 푸드코트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수영장은 최대한 층고를 확보하고, 천장의 자연채광을 이용하여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고, 푸트코트와 옥상 데크를 연계하여 이용객이 휴식 및 조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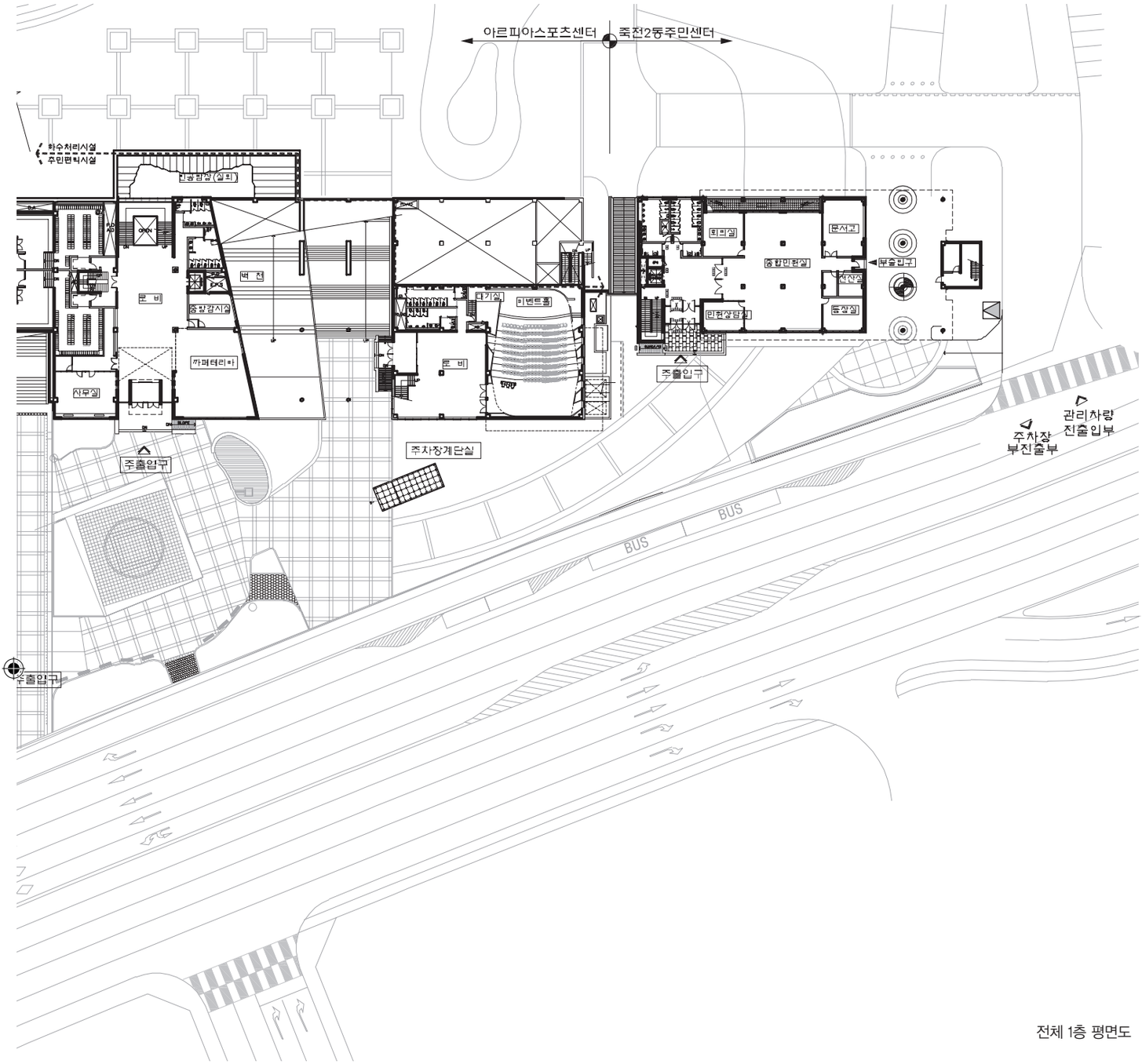
환경과 개발이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하수처리장의 지하화 사업이 도시에 새로운 공지를 창출하였다고 한다면, 용인 아르피아는 그 기반위에 문화, 복지 및 주민의 여가를 위한 건축적 대안으로서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포은 아트홀 전경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전경





전체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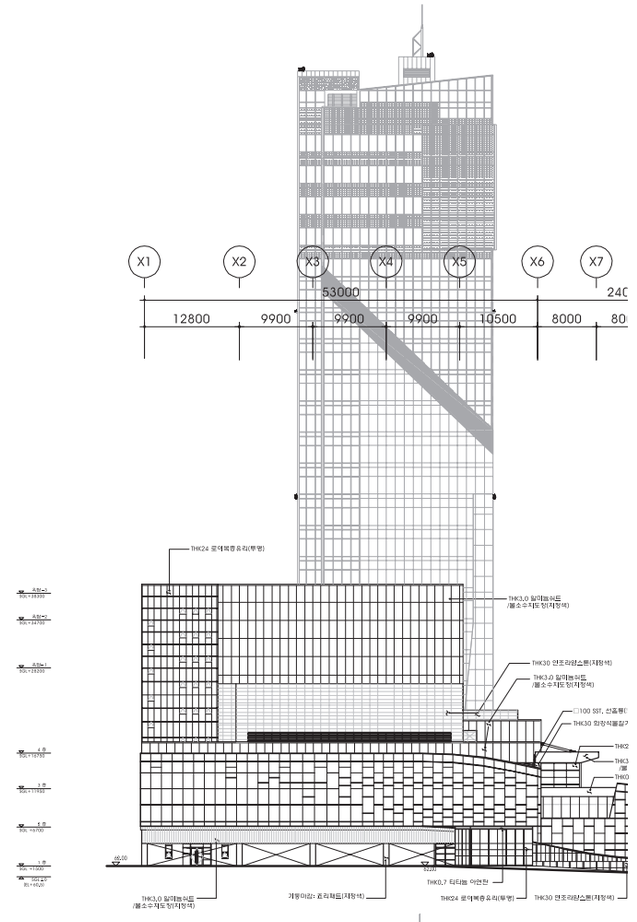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연결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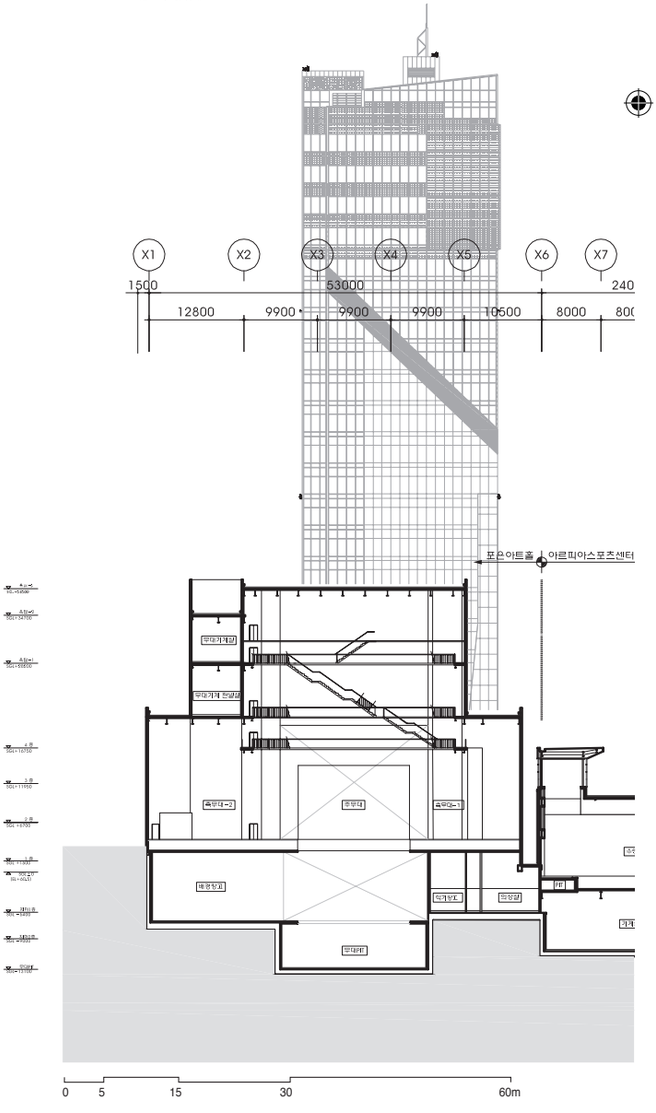
포은 아트홀 공연장 연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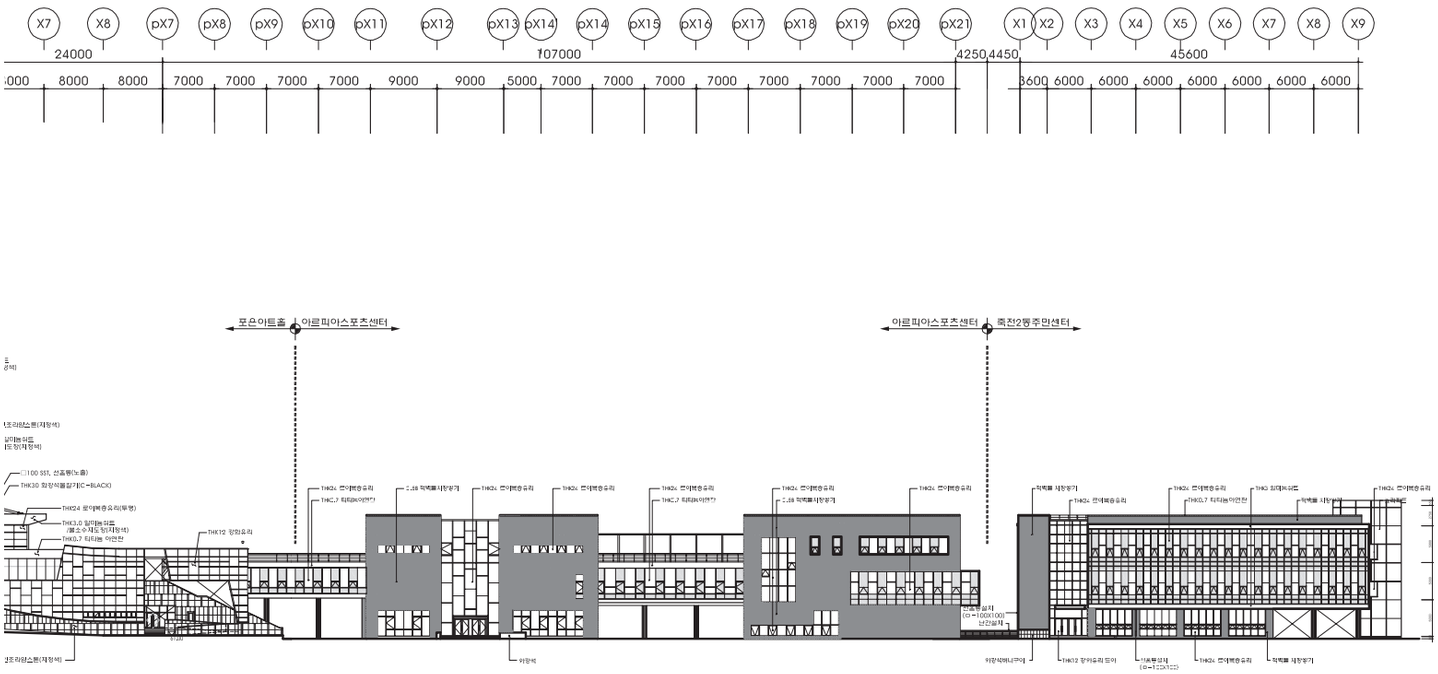
아르피아 아트홀 데크 전경

아르피아 아트홀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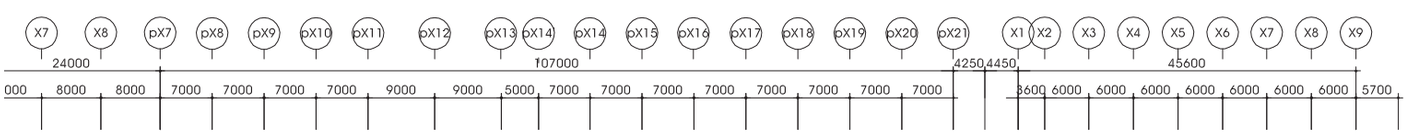
아르피아 아트홀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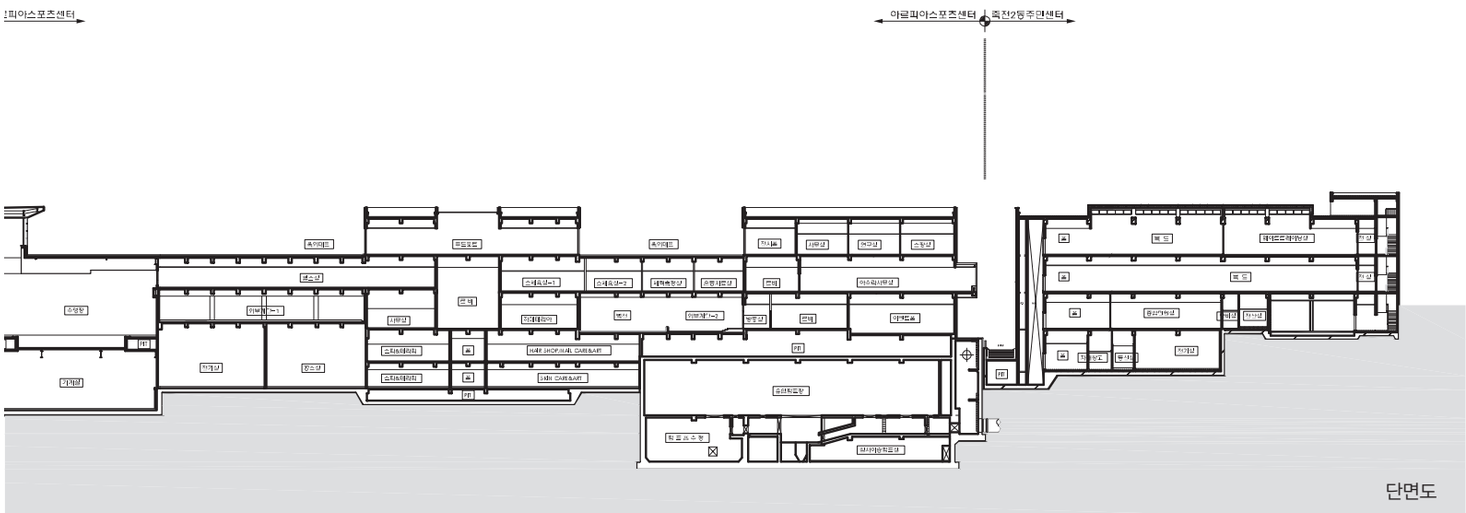





X7 X8 pX7 pX8 pX9 pX10 pX11 pX12 pX13 pX14 pX14 pX15 pX16 pX17 pX18 pX19 pX20 pX21 X1 X2 X3 X4 X5 X6 X7 X8 X9
24000
107000
4250 4450
45600
8000 8000 7000 7000 7000 7000 9000 9000 5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36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포은아트홀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죽전2동주민센터

입면도


X7 X8 pX7 pX8 pX9 pX10 pX11 pX12 pX13 pX14 pX14 pX15 pX16 pX17 pX18 pX19 pX20 pX21 X1 X2 X3 X4 X5 X6 X7 X8 X9
24000
107000
4250 4450
45600
8000 8000 7000 7000 7000 7000 9000 9000 5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36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5700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죽전2동주민센터

단면도

WORKS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JEOLLABUKDO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VELOPMENT INSTITUTE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건축주 | 전라북도 교육청

설계자 | 노형래_KIRA |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장승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한울구조 안전기술사사무소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유)전일기술단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주)동도엠이씨 인 스파이어

감리자 | 서문용진(서문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혜전건설주식회사

대지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269-1 외 2필지

대지면적(Site Area) | 19,235㎡

건축면적(Building Area) | 2,262.66㎡

연면적(Gross Floor Area) | 3,959.1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1.76%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30%

규모(Building Scope) | B1-3F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AL복합패널, 적삼목, 로이복층유리
내부마감_치장합판강화후로링, 친환경수성페인트, 친환경 흡음텍스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0. 05. 18 ~ 2012. 11. 12

공사기간 | 2011. 04. 04 ~ 2012. 02. 03

Client | Jellabukdo Office of Education

Architect | Roh, Heoung-rae

Project Team | Jang, Seung-hyeon

General Constractor | Hyejeon Construction

Location | 269-1, Osan-ri, Chunpo-myeon, Iksan-si, Jeonbuk,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Hanwool Structure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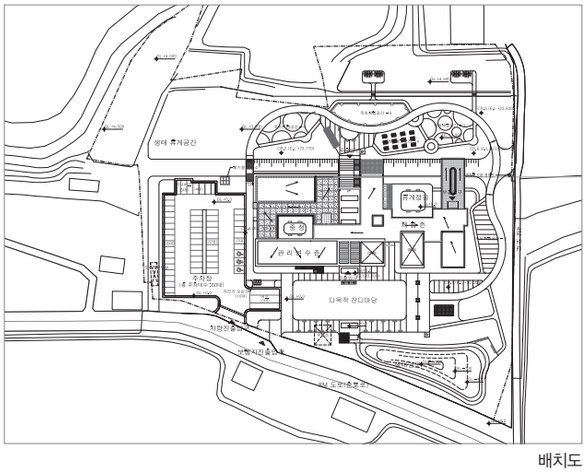
HVAC Engineer | Dongdo M&C In Spire

Electrical Engineer | Jeonil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AL.composite panel, Red cryptomeria, Low-E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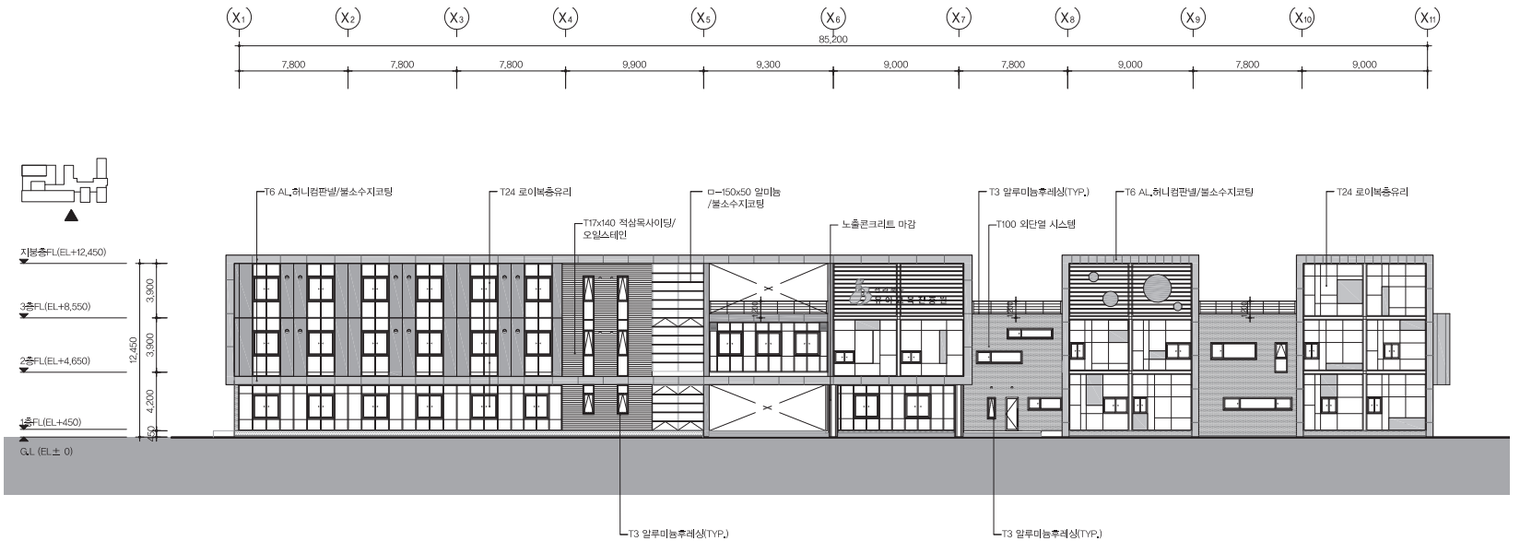
Design period | 2010. 05. 18 ~ 2012. 11. 12

Construction period | 2011. 04. 04 ~ 2012. 02. 03



배치도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주출입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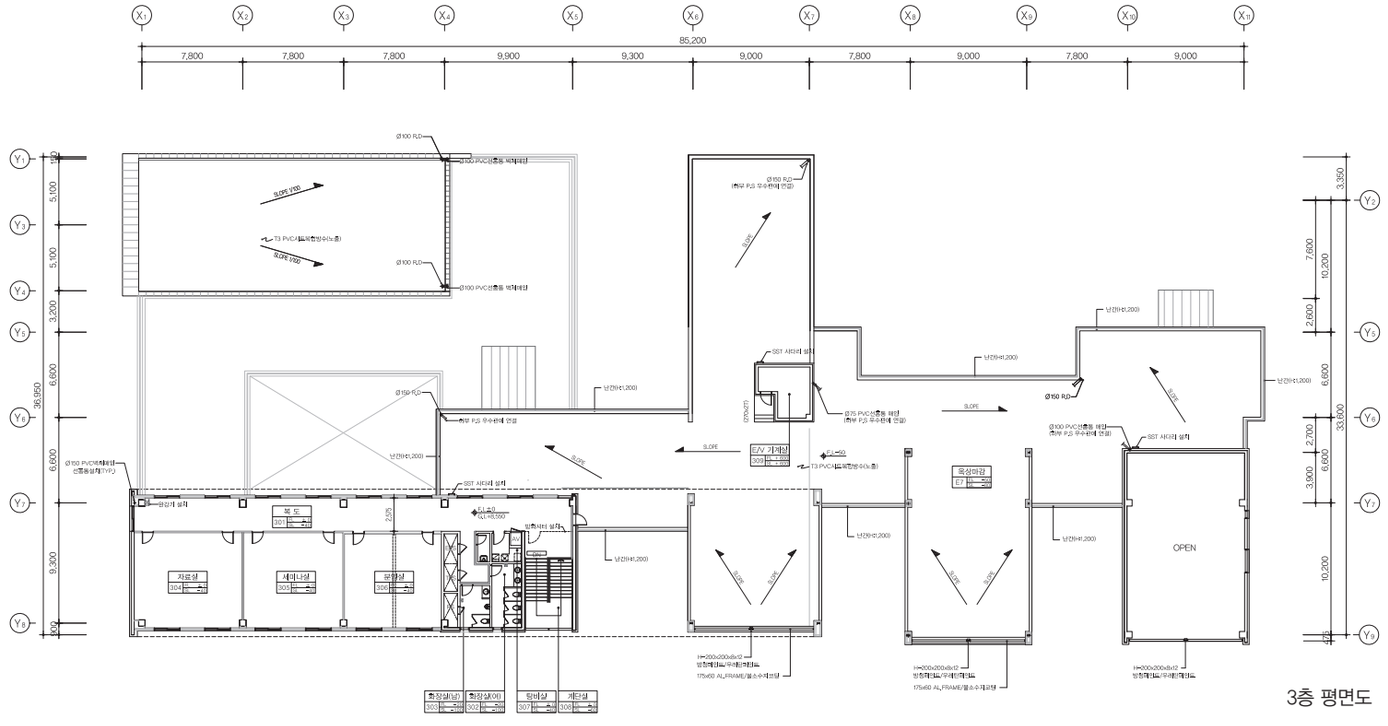
각각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사각형 매스는 유아놀이기구인 나무블럭을 형상화한 것이다. 사각형 매스는 나무블럭을 나열하고 쌓듯이 배치하고 그 사이의 틈새공간을 내,외부가 소통하면서 자연이 유입되고 확장하는 열린공간으로 만든다.

사각형 매스의 프레임은 각 영역을 나타내면서 상부층의 수평선들을 통합시켜 상징성을 고조시키고 사각형 프레임안으로는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채워 건물의 표정을 한결 친근감 있게 바꾸는 조형적 시도들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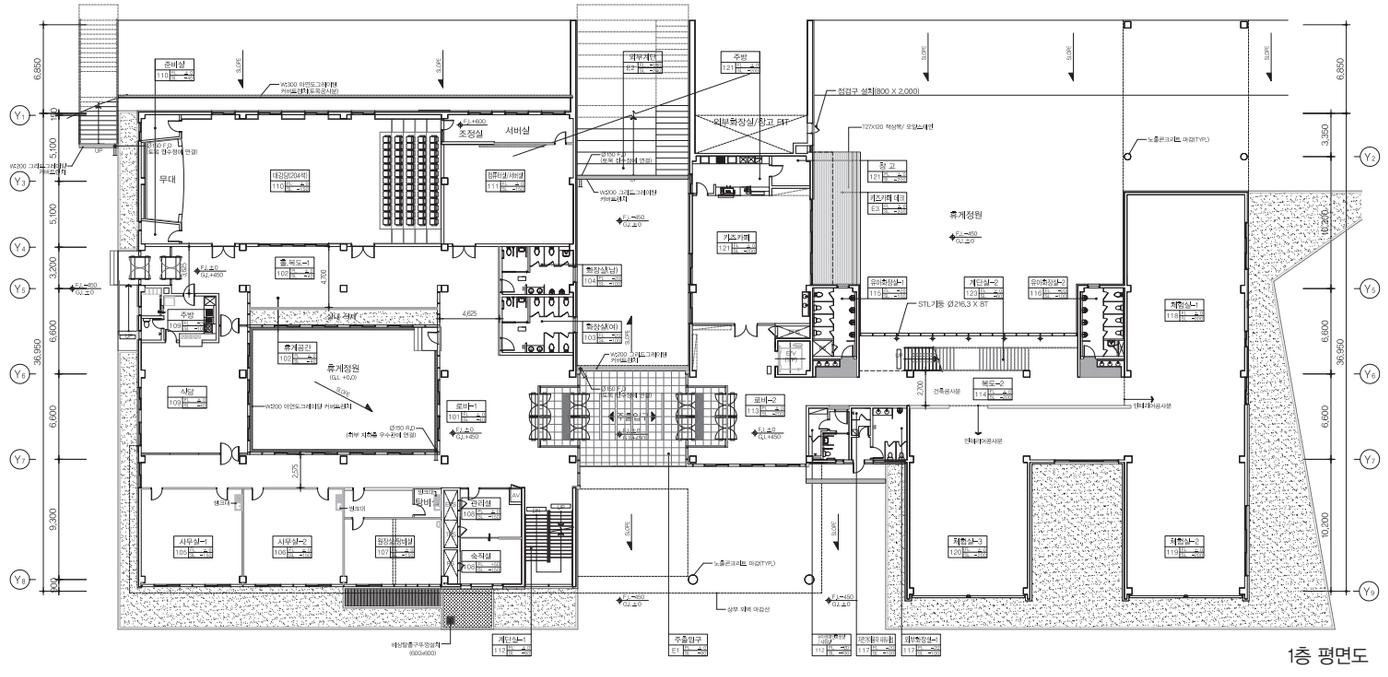
이 건물은 유아체험교육과 유아교육연구 및 육아정보지원의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기능을 갖는 건물이고 기존의 대지는 5m의 고저차와 전면에는 자연습지가 있고 후면에는 풍성한 녹지공간이 있는 땅이다.

경사지에 평행되게 매스를 수평적으로 앉힘으로써 외부공간을 넓히고 대지가 지닌 풍경을 최소한의 흔적으로 살리면서 전면은 생태연못과 놀이체험공간으로 후면은 옥외체험공간과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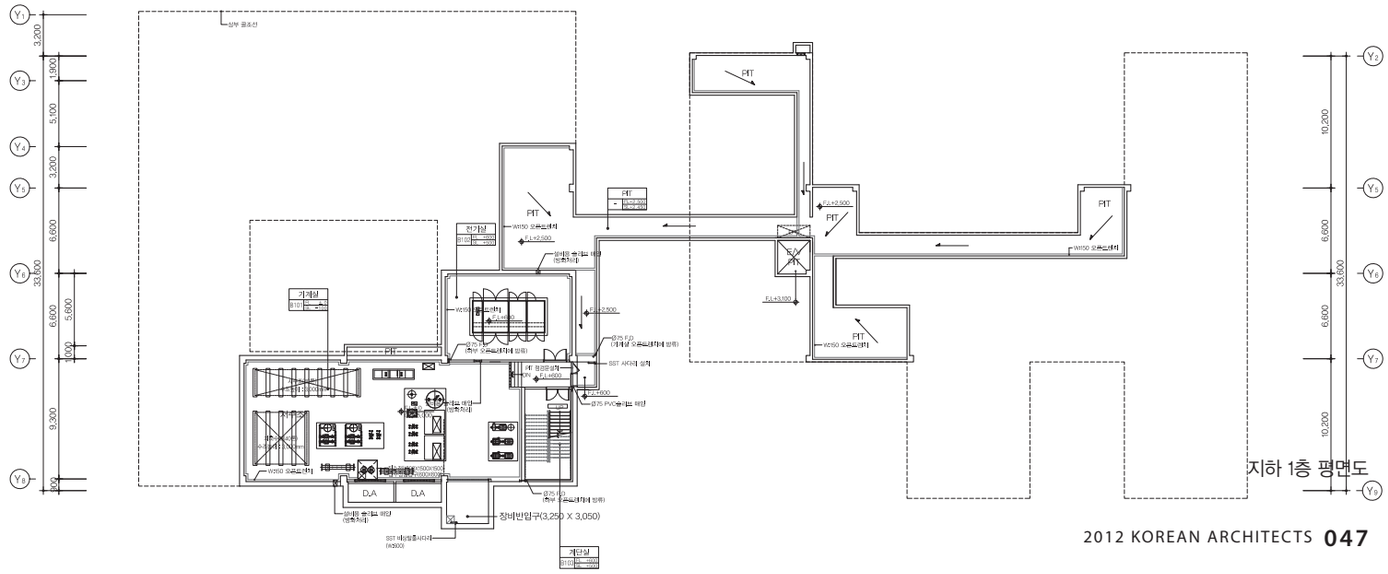
주출입구 필로티 하부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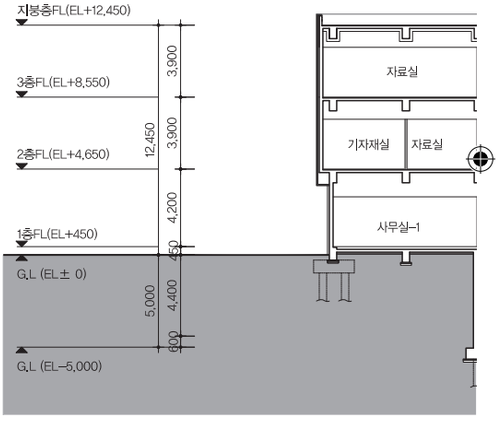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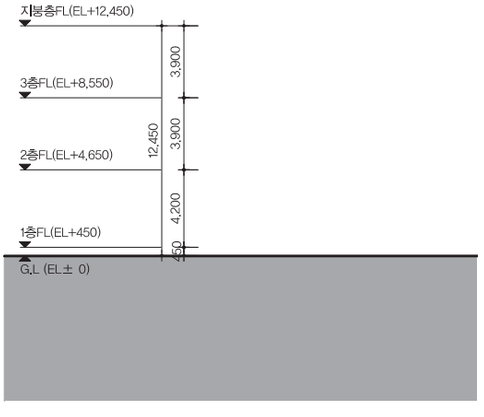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체험실

옥외체험공간연결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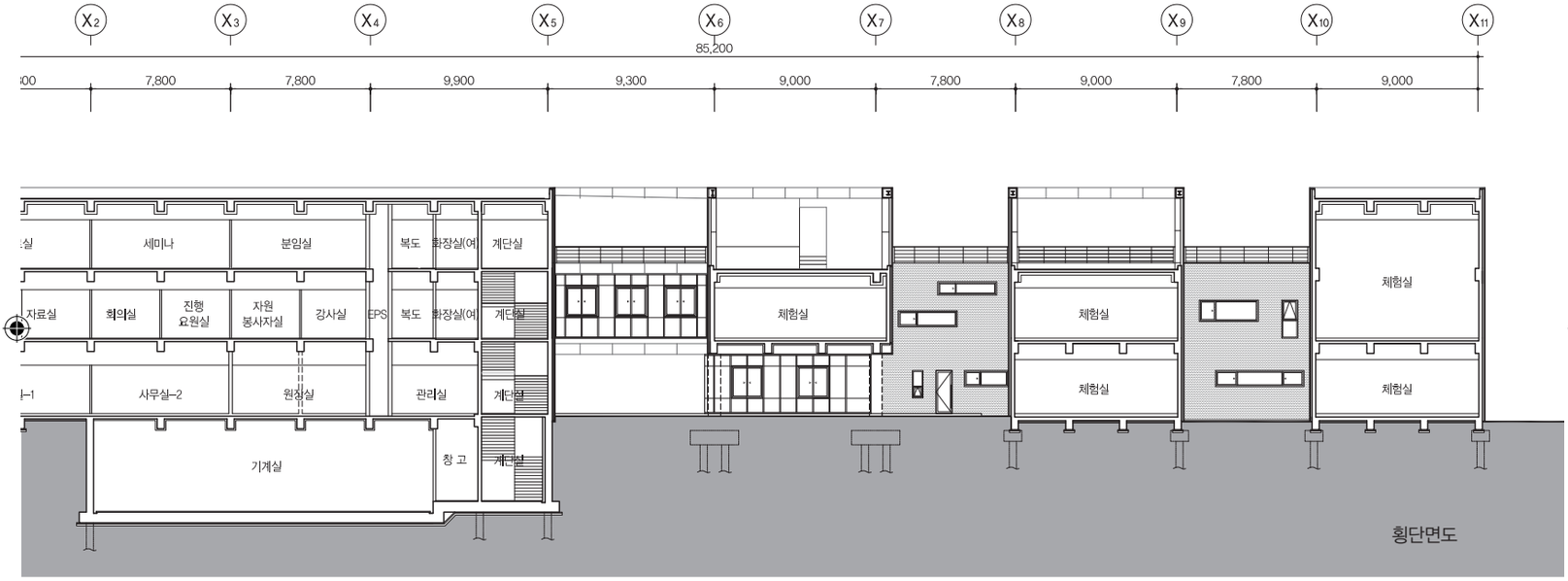
주출입구 오픈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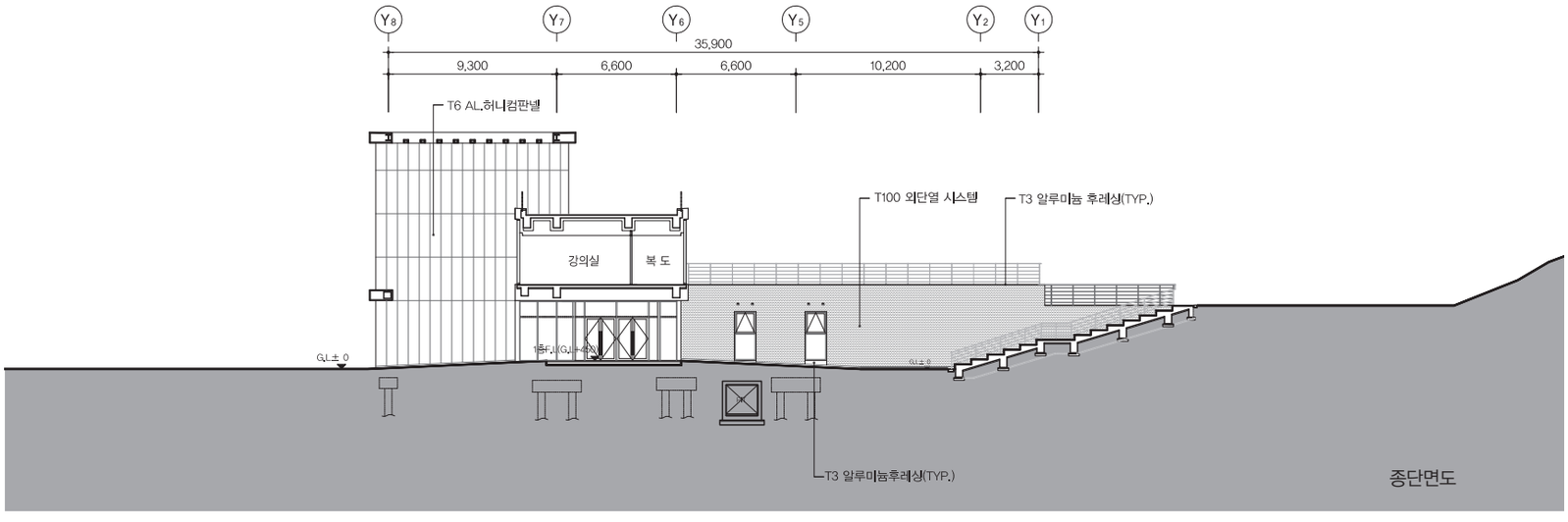




실내정원

체험존 내부계단





구로생명숲 어린이집
GURO LIFE FOREST NURSERY

건축주 |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설계자 | 정경선_KIRA |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도시

- 설계팀 : 임태형, 이명문, 임태순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원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선화기술단사무소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선화기술단사무소

감리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도시

시공사 | 천광종합건설㈜

대지위치 |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67-1

주요용도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대지면적(Site Area) | 901㎡

건축면적(Building Area) | 305.26㎡

연면적(Gross Floor Area) | 898.9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3.88%

용적률(Floor Area Ratio) | 95.63%

규모(Building Scope) | B1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 컬러스펜드럴 유리 , 적삼목 , THK24 컬러복층유리
내부마감_ 자작나무 , 친환경 낙서방지용 페인트, 친환경 벽지

설계기간(계획/실시) | 2011. 10. 13 ~ 2012. 02. 27

공사기간 | 2012. 03. 06 ~ 2012. 07. 27

Client | Life Insurance Philanthropy Foundation

Architect | Jeong, Kyeong-sun

Project team | Lim, Tae-hyung / Lee, Myeong-mun / Lim, Tae-sun

General Constractor | Chun kwang struction.co.Ltd

Location | 167-1, Cheonwang-dong, Guro-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Ju won structure.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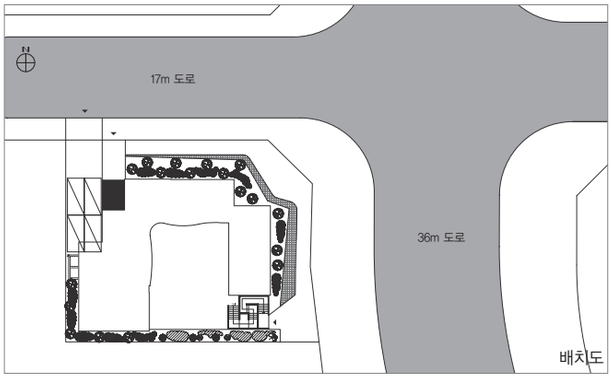
HVAC Engineer | Sun Hwa engineering.co.Ltd

Electrical Engineer | Sun Hwa engineering.co.Ltd

Finishing Materials | color glass, red cedar, pair glass

Design period | 2011. 10. 13 ~ 2012. 02. 27

Construction period | 2012. 03. 06 ~ 2012. 07. 27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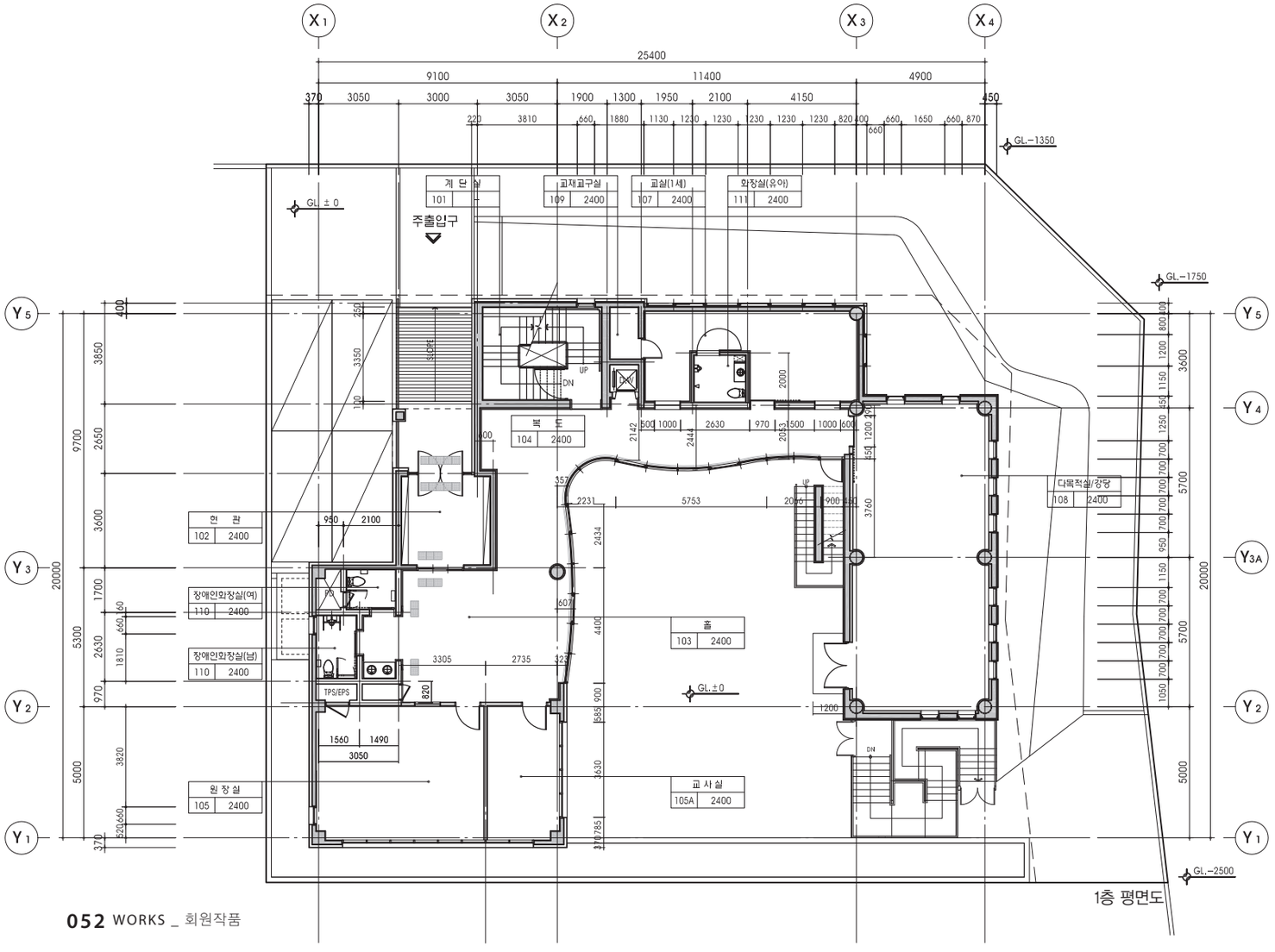
도시중심지역 근접성과 접근성에 따라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구성은 가로변에 주된 매스를 구축하고 내부로 오픈스페이스를 품은 방식으로 배치하였다. 이런 'ㄷ'자 공간배치를 통해 어린이집이라는 프로그램에 합당한 열린공간을 중앙내부에 확보하고 내부공간과의 연계성을 부여하게 된다.

외부와의 접근동선을 사거리방면 입구와 건물동측가로부의 후문으로 구성하여 공간접근성을 강화하고 후문의 진입부에 놀이계단을 배치, 대지의 고저차를 해결함과 동시에 동선을 어린이들의 활동성을 증진하기 위한 놀이와 커뮤니티공간으로 구성하였고 이는 중앙내부의 열린공간과 연계되는 공간특성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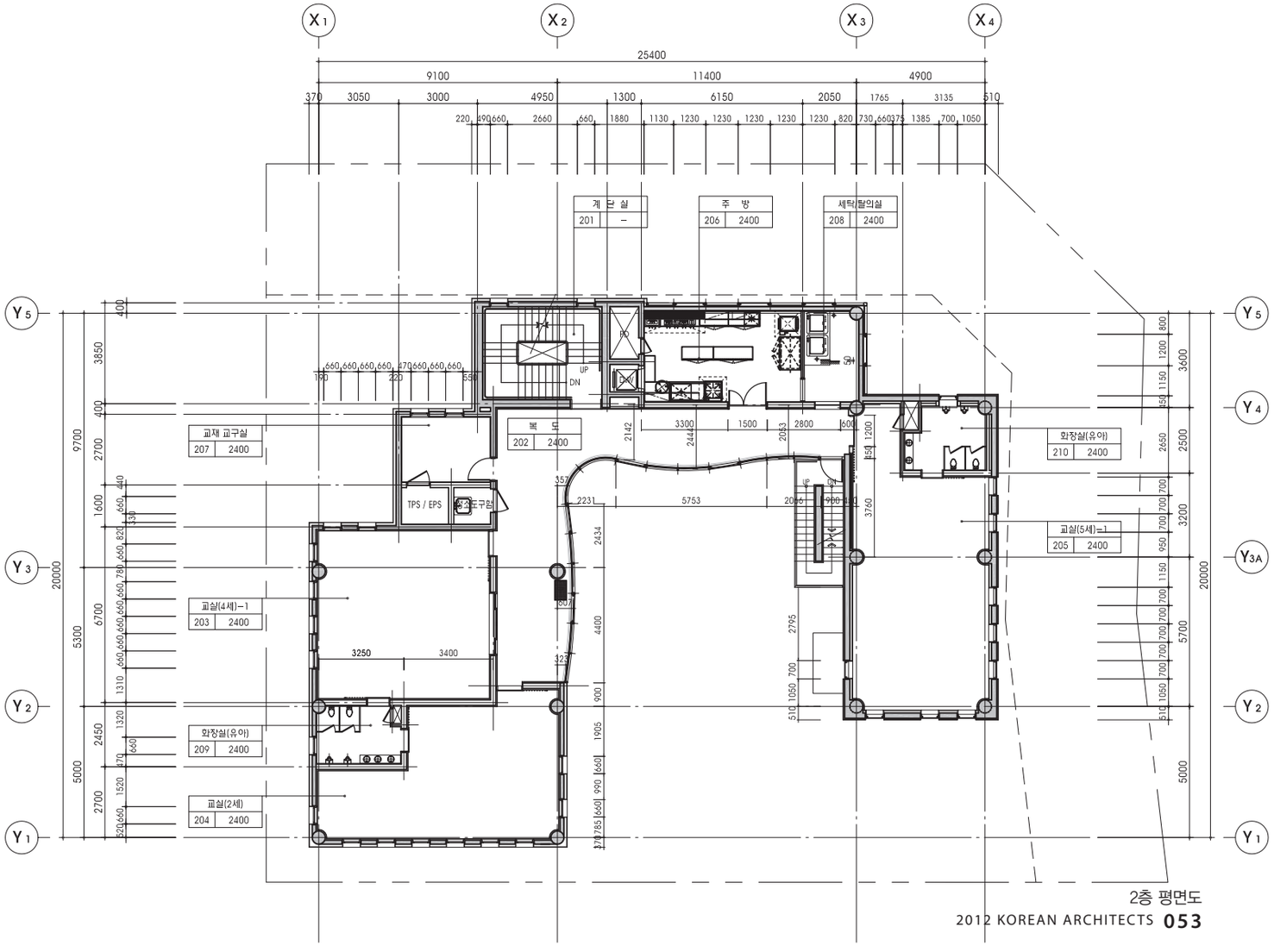
전경

공간과 프로그램의 관계는 프로그램별 행태적 특성에 의해 공간적 특성을 부여하고 공간의 위계에 따라 실들을 배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활동성과 교사간의 관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평면으로 구성되었다. 이 구성의 원리에 따라 각 실들은 수평적 개념의 층별배치와 수직적 개념의 층간배치로 구성되었고 연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공간적 연계와 연령별 특성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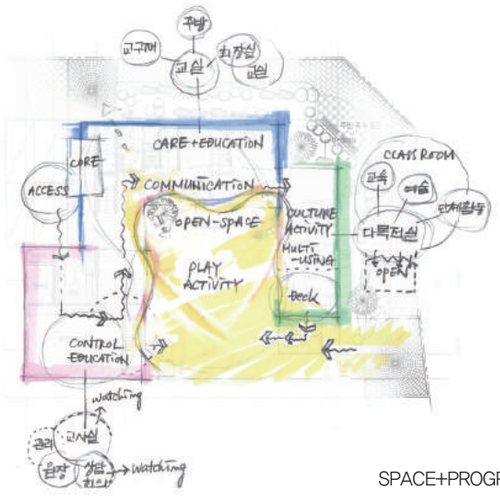
남향의 열린공간과 유리마감재로 인해 공간내부가 건물내부로 빛을 받아 늘 밝은 공간이 되도록 배치하여, 교사실–로비–홀–복도–교실과의 관계는 빛의 투과와 시계의 열림 그리고 공간의 연계를 강화하게 하였으며 이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활동성, 안전성을 위한 설계의 주된 모티브가 되었다.


X1
X2
X3
X4
25400
9100
11400
4900
GL.±0
GL.-1350
GL.-1750
GL.-2500
주출입구
계단실 101
교재교구실 109 2400
교실(1세) 107 2400
화장실(유아) 111 2400
복도 104 2400
현관 102 2400
장애인화장실(여) 110 2400
장애인화장실(남) 110 2400
원장실 105 2400
교사실 105A 2400
다목적실/장애 108 2400
TPS/EPS
UP
DN
Y5
Y4
Y3
Y3A
Y2
Y1
20000
9700
5300
5000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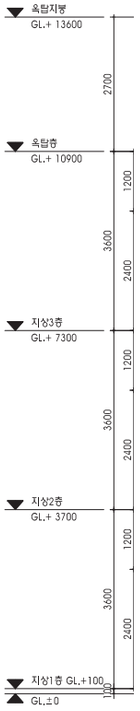
구로생명숲어린이집


X1
X2
X3
X4
25400
9100
11400
4900
Y5
Y4
Y3
Y3A
Y2
Y1
계 단 실
201 –
주 방
206 2400
세탁/탈의실
208 2400
복 도
202 2400
교재 교구실
207 2400
교실(4세)-1
203 2400
화장실(유아)
209 2400
교실(2세)
204 2400
화장실(유아)
210 2400
교실(5세)-1
205 2400
TPS / EPS
UP
DN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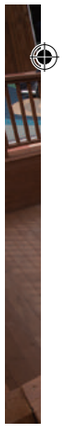


SPACE+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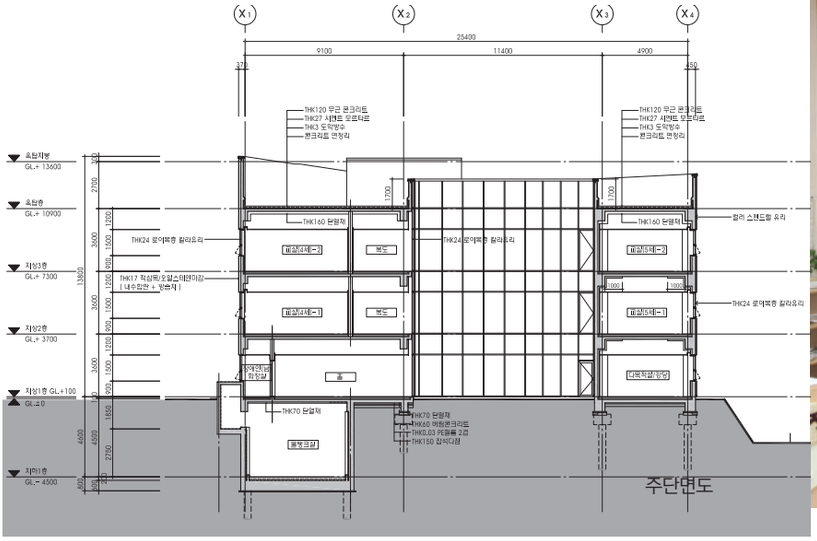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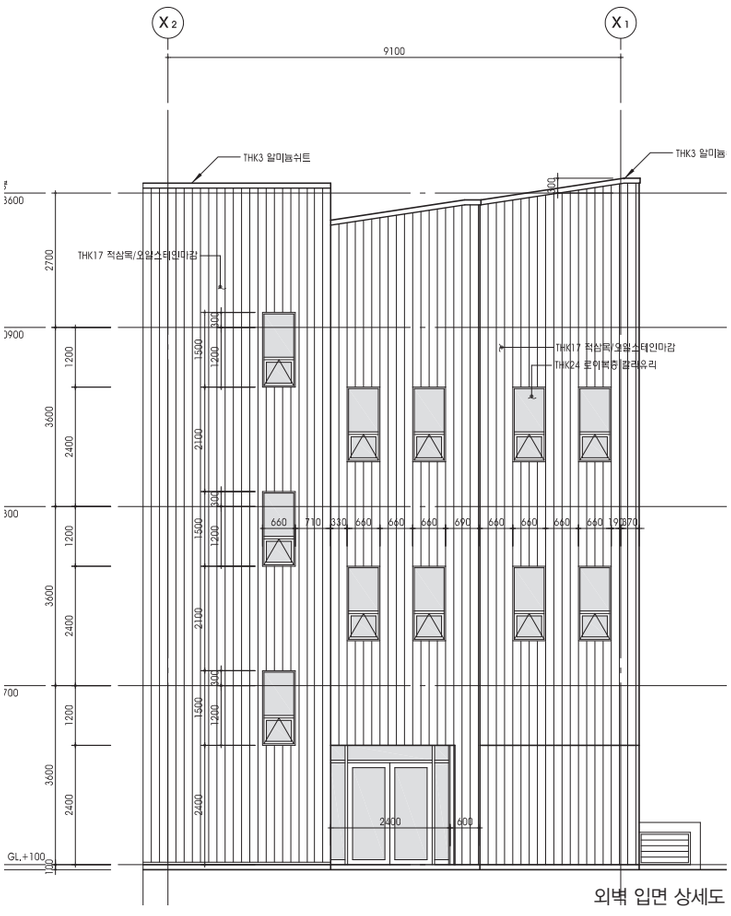
다목적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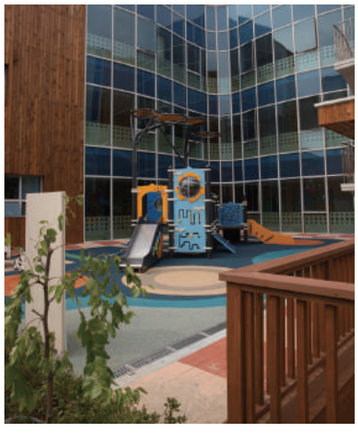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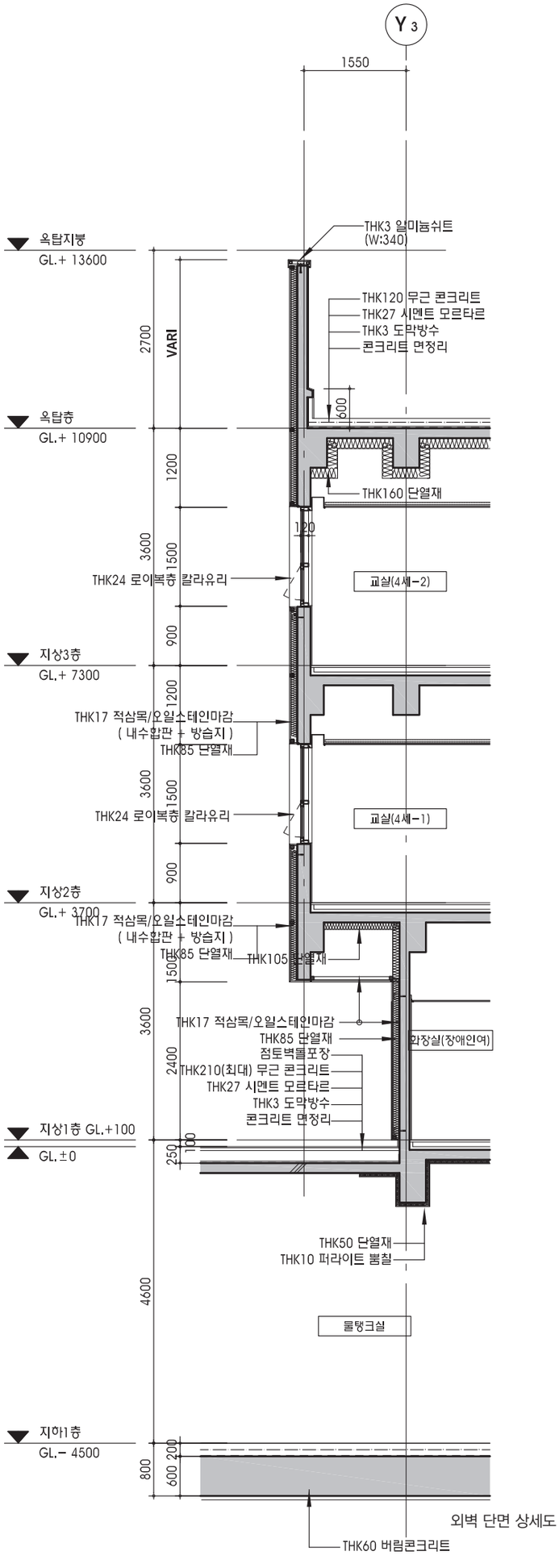
주단면도



외벽 입면 상세도



교실



외벽 단면 상세도

WORKS

DESIGNER IMAGE 사옥
DESIGNER IMAGE

건축주 | DESIGNER IMAGE

설계자 | 최덕호, 정선화_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일감

- 설계팀 : 김민수, 정현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BASE구조기술사사무소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성도엔지니어링
  - 토목분야 : (주)미림 엔지니어링

대지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7

대지면적(Site Area) | 314㎡

건축면적(Building Area) | 185.17㎡

연면적(Gross Floor Area) | 999.6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8.97%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8.52%

규모(Building Scope) | B2-4F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고압축목재(nt 패널), 노출콘크리트, 삼중유리
내부마감_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화강석 버너, 자기질 타일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1. 03 ~ 2011. 08

Client | DESIGNER IMAGE

Architect | Choi, Deok-ho / Jeong, Seon-hwa

Project Team | Kim, Min-su / Jeong, Heon-jae

Location | 4-7, Hannam-dong, Yongsan-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BASE Structural Consult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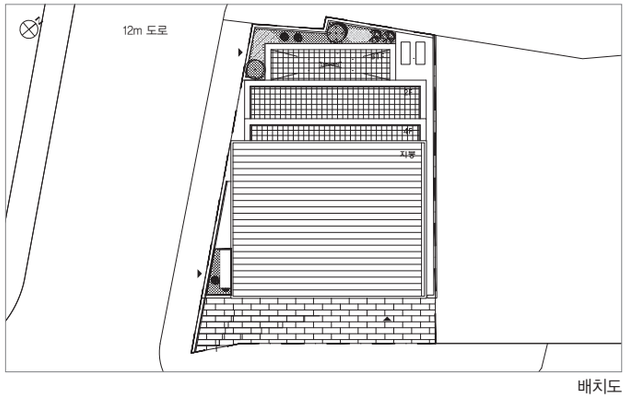
Civil Engineering | MILIM Civi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SUNGDO Engineerin & Consul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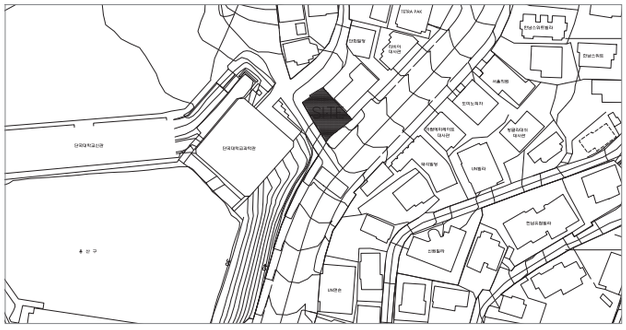
Finishing Materials | Outside_High compression wood(NT panel),
Exposed concrete, triple glass

Inside_Gypsum board above water_based paint,
Granite burner, Porcelain t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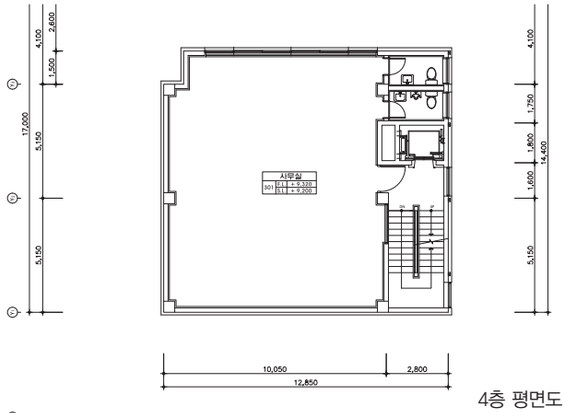
Design period | 2011. 03 ~ 201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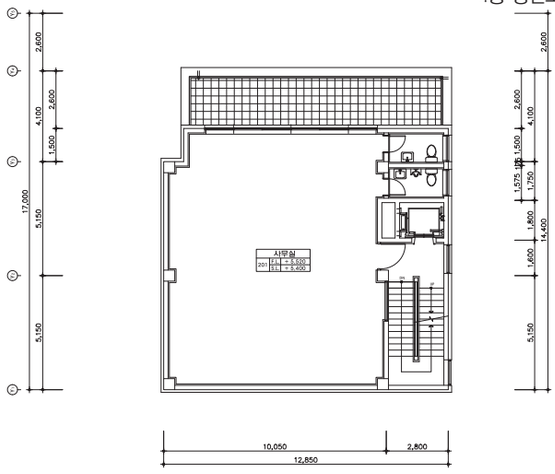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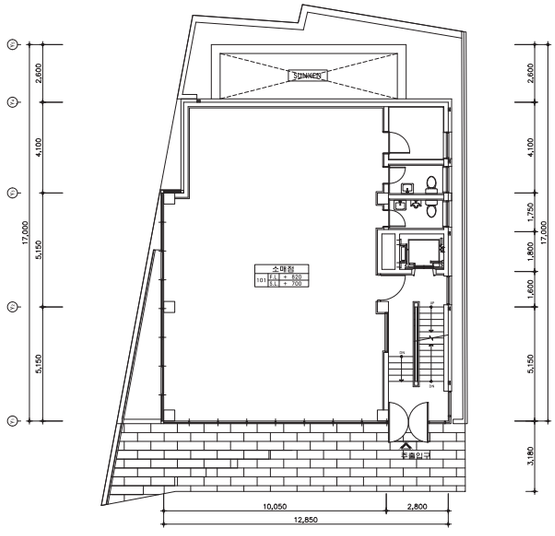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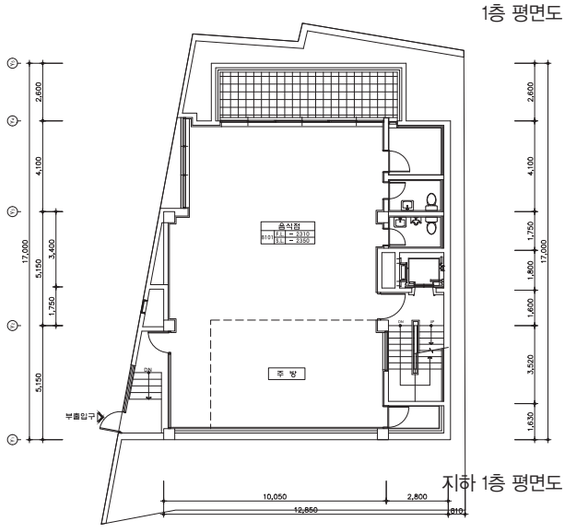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기단부

대지 현황 – 블록의 모서리 공간

대사관이 밀집한 독서당길에 접해있는 계획 부지는 단국대 부지를 개발한 '한남 더힐'과 인접해 있다. 독서당길과는 단차 없이 연속해 있으나 이면 도로와는 5미터 정도의 대지의 높이 차가 있어서 대지는 지하를 형성하는 기단부를 자연스럽게 갖는 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지 조건 – 조망가로 미관지구, 지상4층 이하, 18m이하의 높이 제한

모든 건물은 그 대지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대한의 용적을 확보하려는 관성이 있다. 이 건물 역시 이 지역의 높은 지가(地價)를 볼 때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건축주는 또 한 가지를 보탰다. '가능한 한 높은 층고를 확보할 것' 이것은 이 건물의 용도가 디자인 상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장소이자 그 본사로서 넉넉한 공간의 볼륨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내부공간은 계단실과 사무실 및 소매점의 최대면적, 그리고 일조제한에 따른 높이 등을 감안한 최대 용적 확보가 설계의 기본 조건이자 설계 내용이 되었다.

설계 내용 – White Cube/ Focus block

건물의 용적과 높이 등을 최대한 확보한 기능적인 덩어리는 이 모서리 부지위에 얹어질 때,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가로공간의 초점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블록은 건물이라기 보다는 이 가로공간의 랜드마크가 될 수 밖에 없는 위치로서, 대지 형상 그대로 솟아오른 노출콘크리트의 단단한 기반과 부유하는 듯한 미니멀한 White Cube라는, 그 단단함과 가벼움의 두 매스가 하나가 되는 가로의 랜드마크적 조형물로써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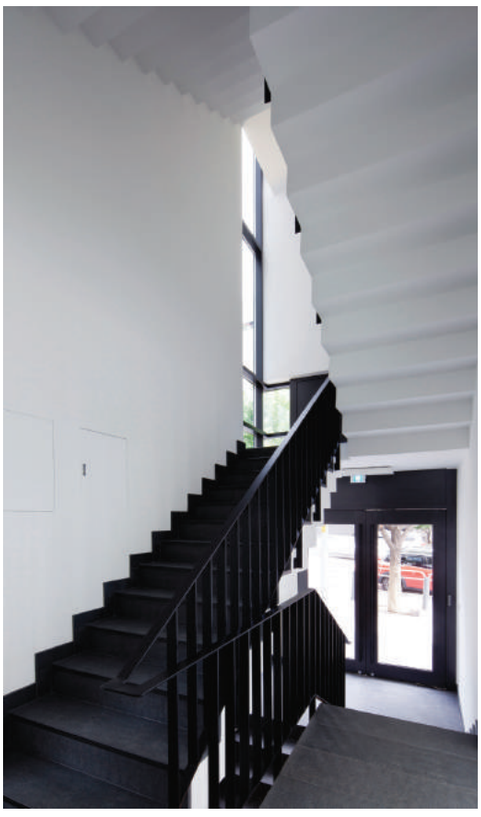
후기 – 1층에 너무 창문이 많다!

지반과 떠있는 White Cube를 개념으로 접근하니, 당연히 1층은 비어있는 듯한 유리 매스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1층 공간은 디자인 소품 매장으로서 창이 너무 많았다. 전체적인 건축의 컨셉을 위해 공간적 쓰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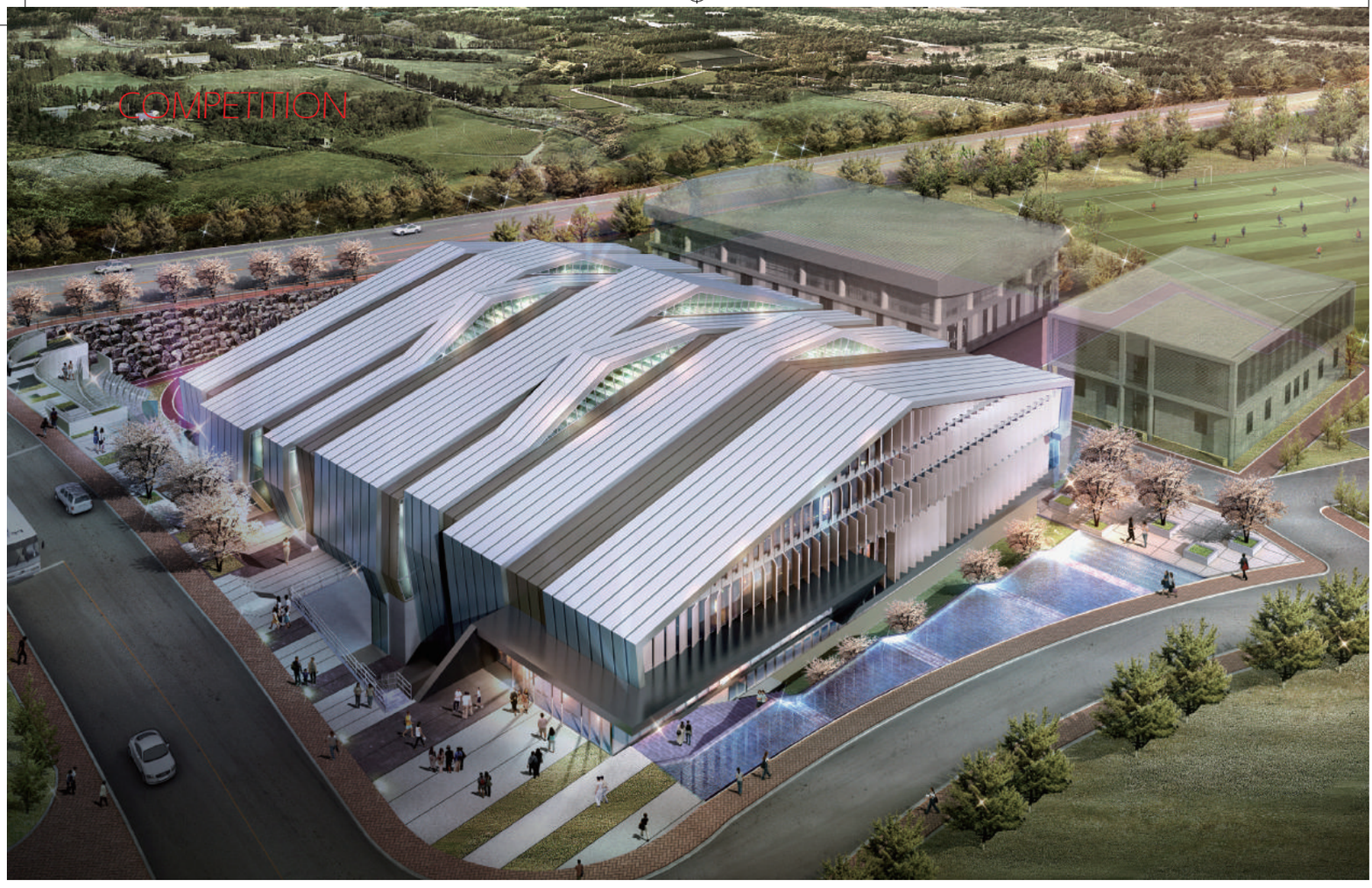
또한, 준공 내내 전면에 창문이 없는 지상층은 계속 의심하며 진행됐다. 그래도 2층 정도에는 창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너무 답답한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대지의 위치적 관점과 그 요구되는 건물의 성격을 볼 때, 없애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 자체가 디자인적인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래도 안에서는 외부가 궁금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1층 전경

지하 1층 전경



1층과 2층 사이



서귀포 다목적 체육관 _당선작

SEOGWIPO GYMNASIUM

발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계자 : 양건, KIRA | 가우 건축사사무소
유선구, 현군출, KIRA | (주)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정일, 김종민, 이형주, 이경일
어융만다하, 강덕현, 고현우(가우)
박병구, 김유리, 한지희(토펙)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34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체육관)
대지면적	139,125㎡
건축면적	5,291.26㎡
연 면 적	3,410.85㎡
건 폐 율	3.80%
용 적 률	4.57%
구 조	철골조
규 모	2층
주요마감	아트그린패널, 제주석, 칼라복층유리 메탈수직루버, 알루미늄 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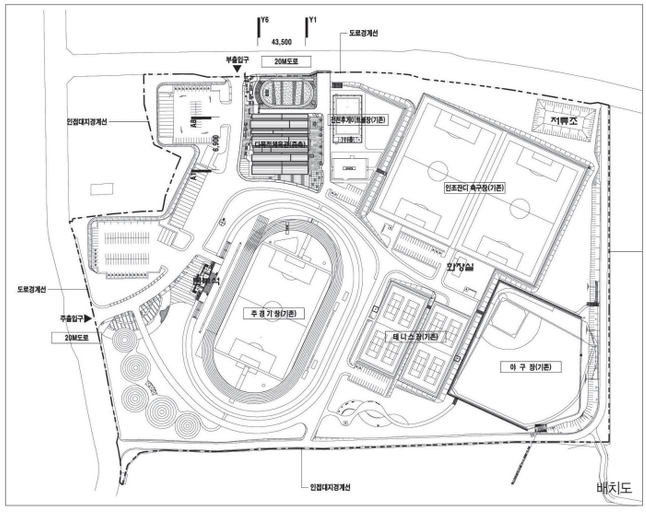
최근, 체육관 현상설계 당선작들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7,900,000원가량 소요되며, 실 공사비는 이를 훨씬 더 넘는 상황이다.
이번 현상설계 공모에서는 위 금액보다 더 적은 예산안에서 대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며, 그에 알맞은 총 공사비를 염두한 설계안이 계획되어야 했다. 이에 따른 설계 대안으로 경제적인 구조 시스템을 고려한 계획과 재료의 합리성, 기능을 따르는 디자인 등을 고안하여 이 모두를 충족하는 계획을 하였고, 이 계획으로 인해 타 체육관의 49.4% ≒ 50%의 금액으로 기능과 디자인, 예산 절약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디자인이 계획되었다.

외부공간계획의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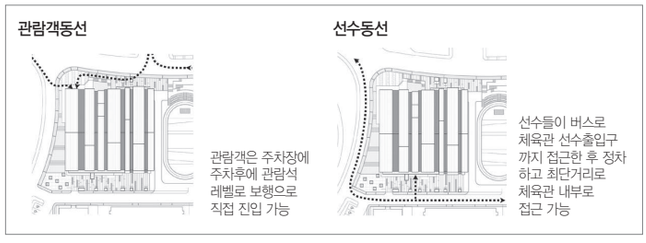
모루는 제주도 방언으로 '마루'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공간구성을 차용하여, 내 · 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공간을 계획하였다. 기존 시설인 관리사무실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공간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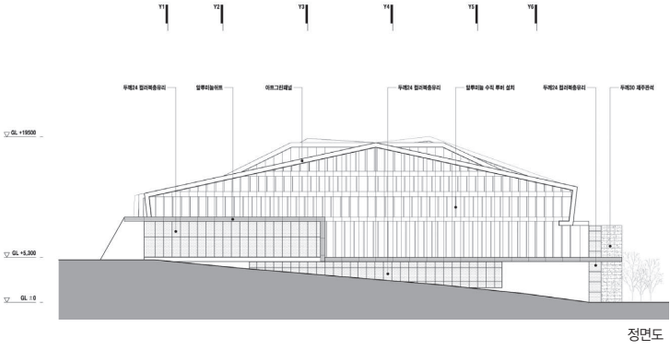
평면계획의 주안점

- 적절한 규모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경기장 규모 산출하였다.
- 실들 간의 연계와 분리로 이용자들의 같은 면적을 가지고도 더 넓은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 지상 1층은 선수 지원시설, 경기 지원시설, 운영 지원시설, 기타 후생지원시설 등 성격에 따른 평면적 배치 및 구획으로 기능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을 통하여, 동선를 명료하게 하였으며, 추후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시에 구간별로 쓰임과 활용에 있어 그 성격에 다변화하면서도 영역의 명확한 성격을 가지게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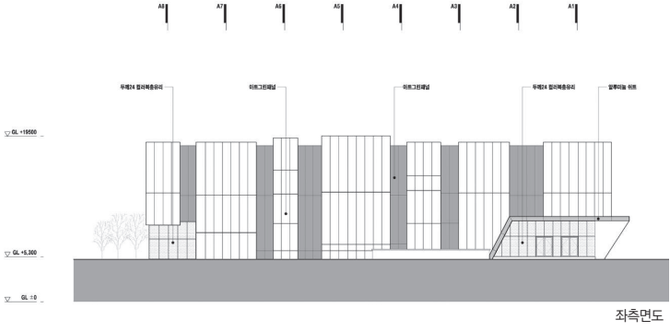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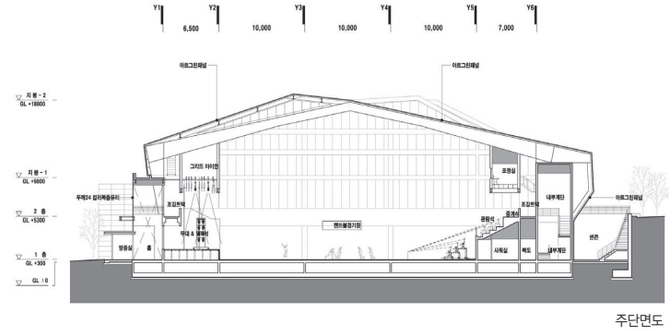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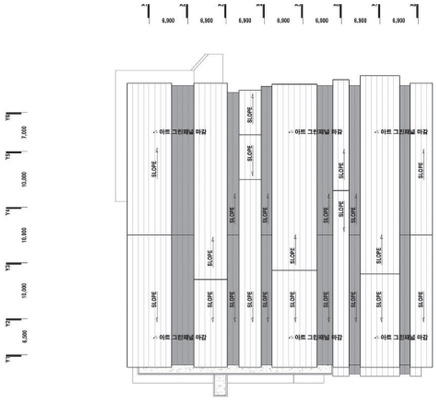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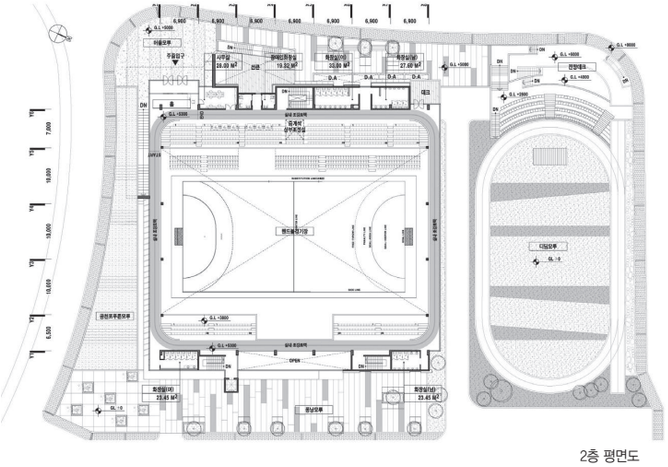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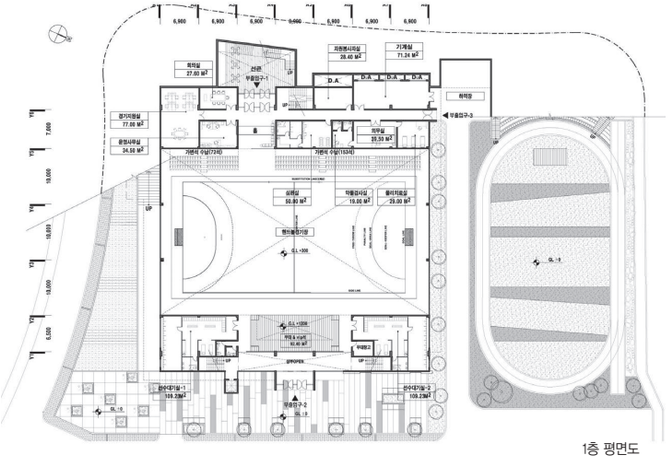
주단면도



지붕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귀포 다목적 체육관 _우수작

SEOGWIPO GYMNASIUM

발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계자 : 선은수, 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설계팀 : 강승종, 안재정, 김민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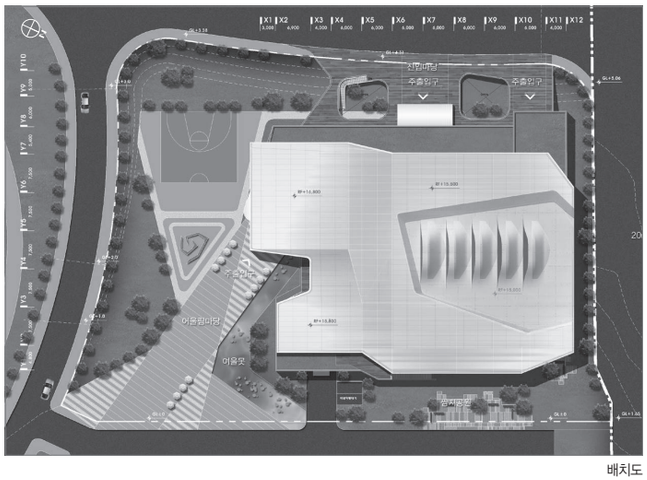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케이 엔지니어링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명설비
– 기계설비분야 : (주)아성기술단
– 소방설비분야 : (주)아성기술단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34번지 외75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체육관)
대지면적	139,125.00㎡
건축면적	5,087.03㎡
연 면 적	6,364.91㎡
건 폐 율	3.66%
용 적 률	4.2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트러스조
규 모	지하 1층, 2층
주요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제주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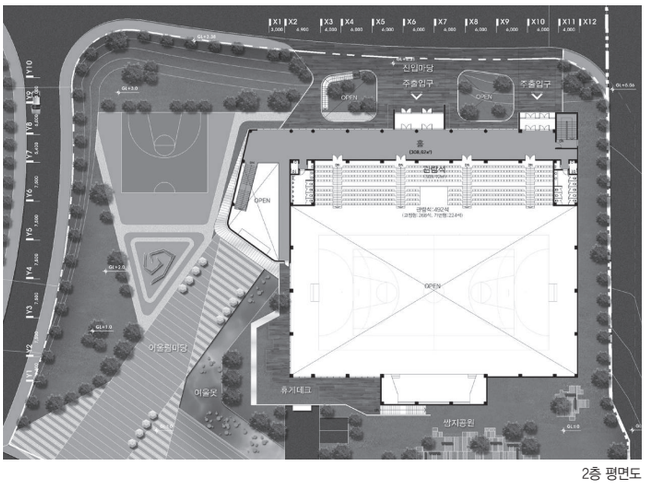
제주의 지형에 경기장이 가지는 본연의 모습을 담다.
고대의 경기장은 지형을 닮아 있다. 자연스러운 경사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람석이 되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평지는 자연스레 경기장이 되어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의 지형은 화산활동에 의해 곳곳이 솟아나고 평탄하게 되어 많은 오름과 움팡 공간들이 형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간들은 고대 경기장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과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지형을 닮은 자연스러운 경기장을 구상해 보다.
움팡팥 – 언덕에 기대어 바라본다. 뛰어노는 아이들. 속삭이는 연인들. 눈을 간질이는 벚꽃잎의 일렁임. 슬며시 나도 평경에 스며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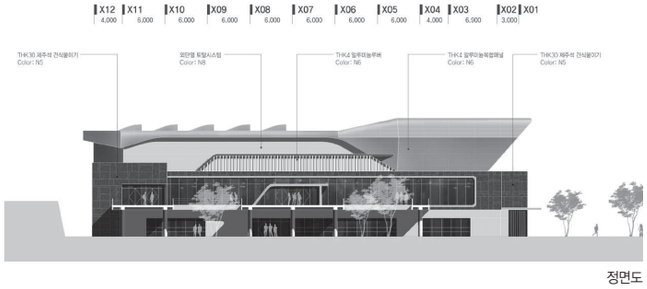
기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땅의 흐름 즉, 경사지와 평지를 이루는 현 대지를 그대로 활용하여 진출입의 동선을 재구성하였으며 이러한 동선의 흐름은 이용자들의 접근과 관람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선수단, 관중, 관리자의 공간영역을 구분시켜주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기존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육관 내부에서 외부로 이루어지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었으며 곳곳에 쌈지공원의 역할을 하는 공간들을 부여해 줌으로써 경기장 내부로의 관람만이 아닌 외부 자연으로 향하는 자연 관람장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또한 계획단계에서부터 Ecotect 검토를 통하여 통풍, 일조 등 최대의 효과를 주는 매스와 지붕의 형태를 구상하였으며 이러한 자연을 닮은 체육관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자연을 닮은 경기장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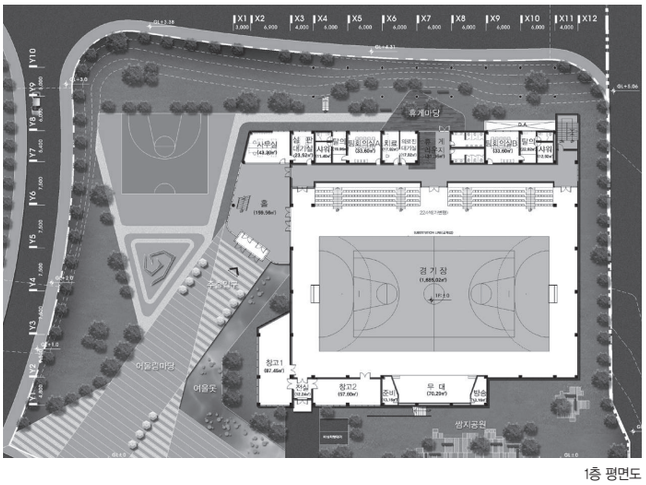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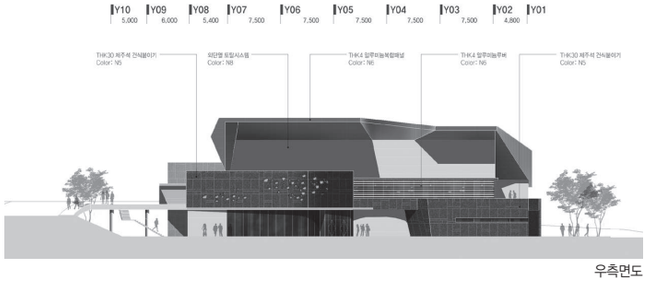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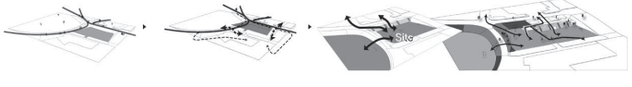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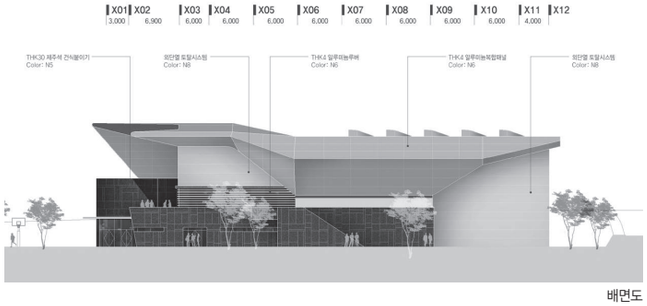


우측면도

• 기존시설의 흐름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담기

1. 단절된 공간 2. 공간의 연결 3. 흐름의 유입 4. 프로그램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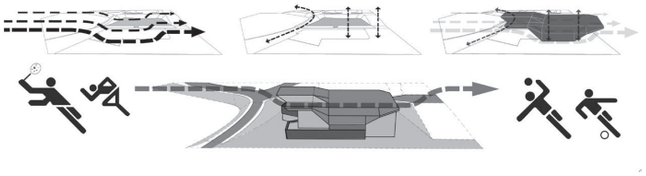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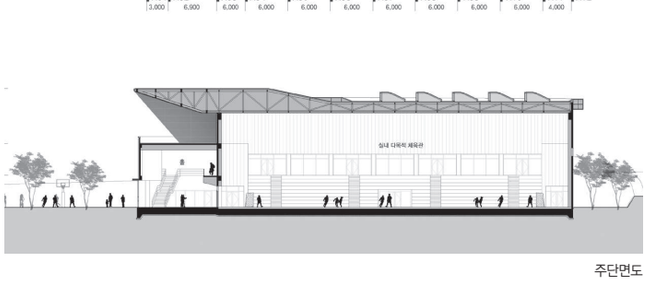


배면도

• 조형 컨셉

1. 대지의 흐름 2. 대지 주변의 흐름 3. 흐름을 바영한 조형 디자인





주단면도

서귀포 다목적 체육관 _가작

SEOGWIPO GYMNASIUM

발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계자 : 백형철, KIRA | 삼진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종인, 최준수(아키쉐마)
원경섭(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연욱(KJP), 양동우, 고성화(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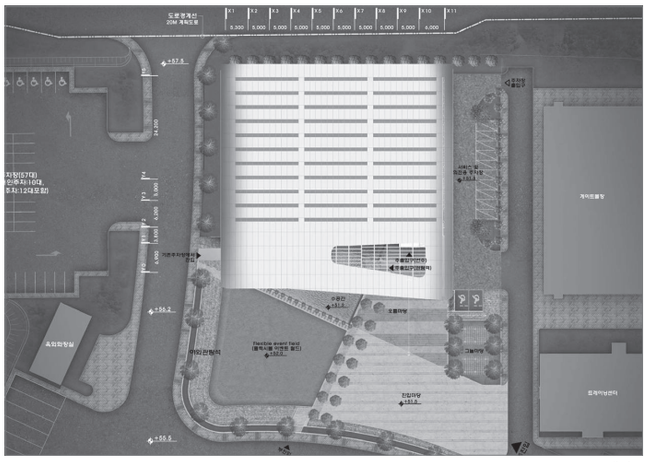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다우구조 연구소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동도 MEC
– 기계 · 소방 설비분야 : (주)세진 이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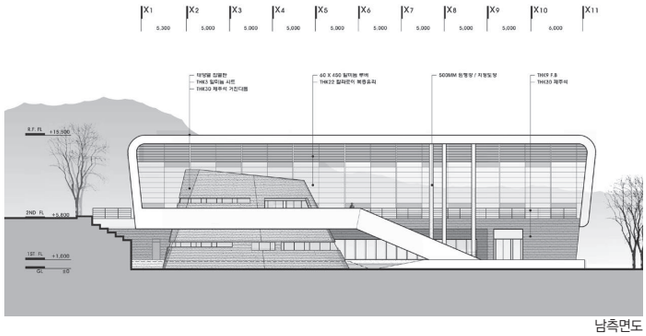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34번지 외75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체육관)
대지면적 139,125.00㎡
건축면적 2,743.08㎡
연 면 적 3,316.48㎡
건 폐 율 3.32%
용 적 률 3.75%
구 조 철골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1층, 2층
주요마감 THK3 알루미늄시트, THK24 로이복층유리, THK30 제주석

제주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내 체육관 시설로서 국내 외 전지훈련팀 유치와 체전 등의 행사에 부족함이 없는 시스템과 품격을 갖춘 문화체육시설 계획에 주안점을 두었다.
설계 계획에 있어 경기시설로서의 기능성, 선수와 관람객의 편의성, 다목적활용이 가능한 융통성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중요한 설계과제로 인식되었다.
공천포 전지훈련센터의 배치형상은 가운데 대운동장을 중심으로 여러 부속 운동장과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기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배치는, 즉 진입동선방향, 대운동장과의 공간적인 관계, 기존 대지의 효율적 이용, 다양한 activity를 담을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하여 신축 되어질 체육관을 대지의 북쪽으로 위치시켰으며, 기존 트레이닝센터, 게이트볼장이 가지고 있던 진입도로에서의 시각적인 인지를 보호하고 이 두 건물과 새로 지어질 체육관의 공간적인 연결과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남측 건물의 전면부에 광장과 같은 오픈스페이스를 두어 주변과의 관계 맺기를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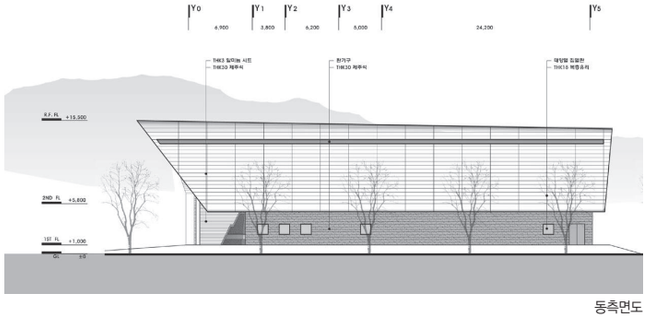
평면의 기능성으로서 경기장은 45m X 27m의 크기로서 핸드볼 1, 배드민턴 12, 농구 3, 배구 3, 실내축구와 하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채택하였으며, 채광은 동서방향의 빛은 막고 남향과 북향으로부터의 적절한 채광과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경기장을 동서 방향으로 배치하였다.
선수관련 시설(탈의실, 샤워실, 회의실, 물리치료실 등)들은 경기장 남측면에 바로 위치하여 선수들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람객동선과 섞이지 않도록 구성하여 운동경기 운영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였다.
관람객들의 동선계획에 있어 건물로의 접근과 동시에 관람석의 위치와 접근방법이 명쾌하게 인지되도록 계획하였다. 관람객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시거리가 확보되었으며 동시에 경기관람 외의 시간에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감상할 수 있도록 데크와 휴게공간 및 수공간 등이 계획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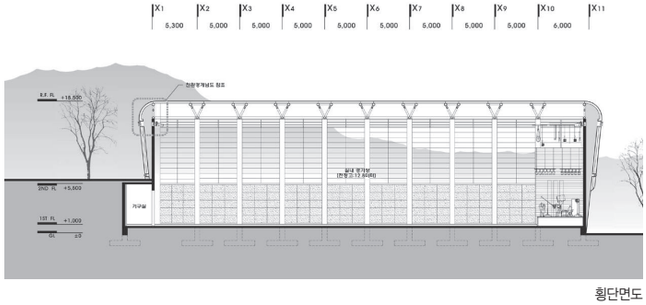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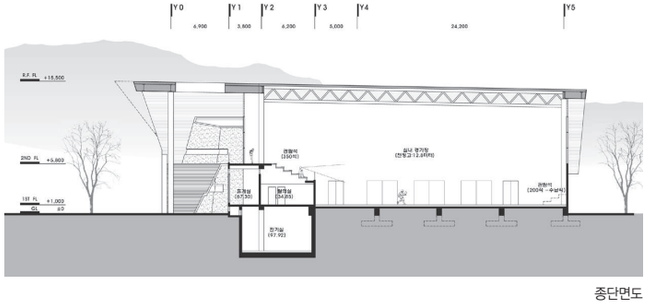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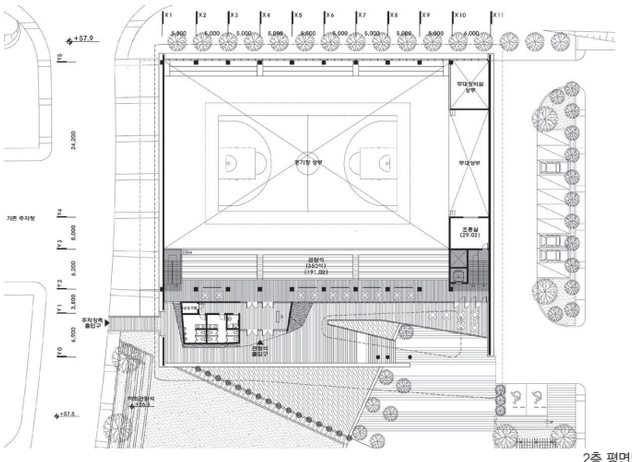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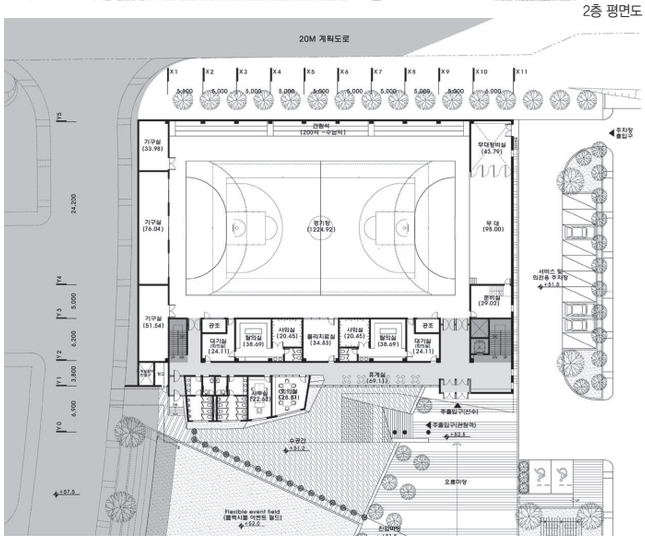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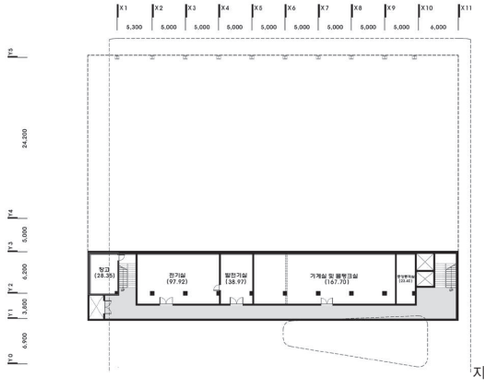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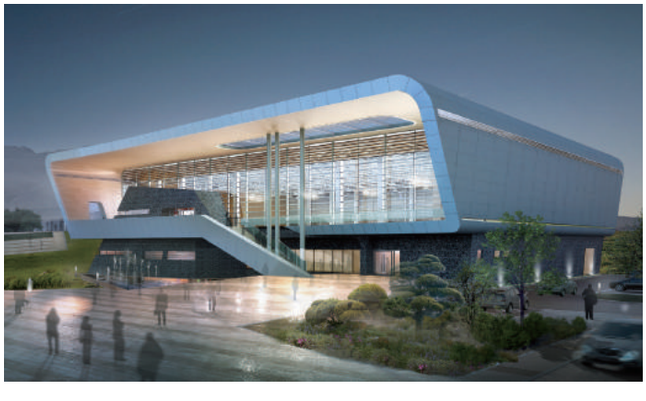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운양동 주민센터 _당선작

WOONYANG-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발주자 : 김포시청

설계자 : 안정환, KIRA | (주)삼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안기영, 정국한, 정우석, 김성우
조영석, 차경일, 박병기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906-3번지 일원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주요용도	주민센터
대지면적	1,930㎡
건축면적	960.26㎡
연 면 적	1,869.35㎡
건 폐 율	49.75%
용 적 률	59.48%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옥부분: 전통한식목조)
규 모	지하 1층, 2층
주요마감	외부_전벽돌,한식기와쌓기, 투명로이복층유리 내부_화강석, 목재후로링, 수성페인트(한옥부분:한식마감)

운양정(雲陽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써 한옥의 '뜰'을 중심으로 한 주민센터를 계획한다. 전통한옥과 현대건축물을 연계시키는 매개공간으로써의 뜰은 전통마당의 비워진 공간이다. 마당을 통해서 주민과 주민이 만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주민의 열린 커뮤니티의 장소를 제안한다.

통(通)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이어주는 소통의 주민센터. 길과 마당을 이어 공공에 열린장소 만들기. 주민과 주민이 만나는 커뮤니티 공간.

경(景)

모담산을 끌어들이는 차경의 공간. 전통건축과 전통조경이 어우러진 한옥의 정서적 공간 조성. 전통과 풍경, 감성을 담는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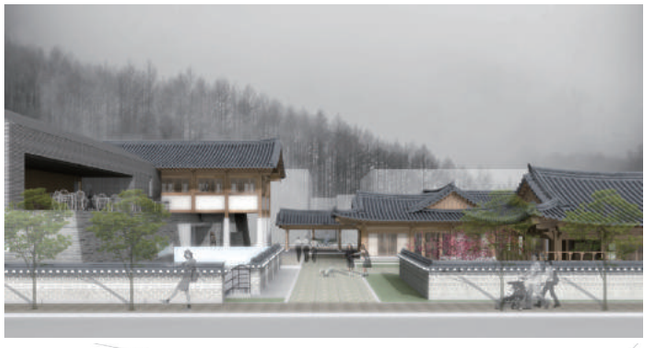
해(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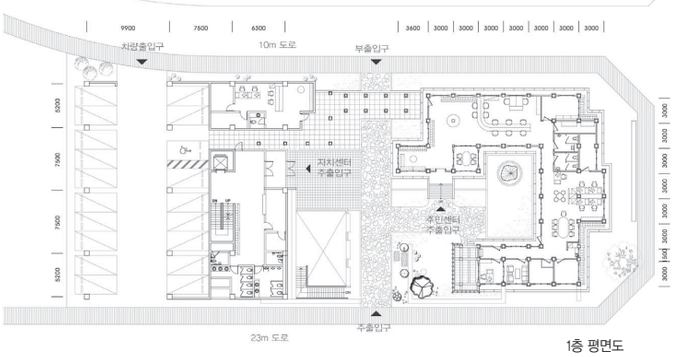
현대건축과 전통한옥의 공간적 화합 / 형태적 조화. 전통건축의 주요 개념인 흐름의'관계적 공간'구성. 닫힘과 트임의 전통건축의 켜의 공간 구성.

Design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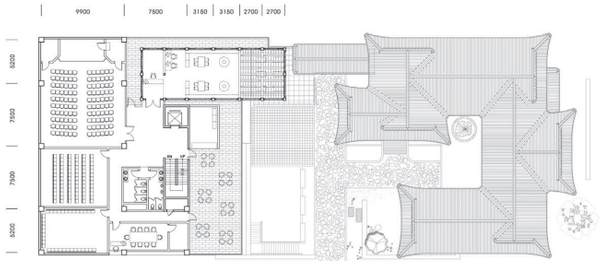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단순히 형태적 요소의 차용이 아닌 공간개념에서부터 출발된다. 운양동 주민센터에 있어서는 두 요소를 매개하는 마당이 중심에 계획된다. 이러한 중앙마당을 통해서 전통건축과 현대건축부분은 별도로 계획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이루게 된다. 조형에 있어서는 가급적 한옥의 스케일에 맞게 현대건축부분을 최소한의 볼륨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박공의 형태를 통해서 한옥의 지붕선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나아가 재료에 있어서는 전벽돌과 기와 등의 재료를 현대건축물의 외장에 도입하여 물성의 소통을 이루게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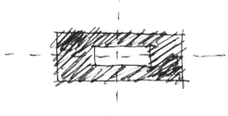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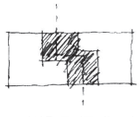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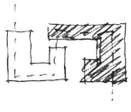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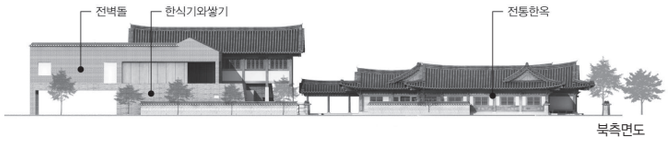
通 통할통
원마을과 아랫마을을 이어주는 소통의 주민센터
길과 마당을 이어 공공에 열린장소 만들기.
주민과 주민이 만나는 커뮤니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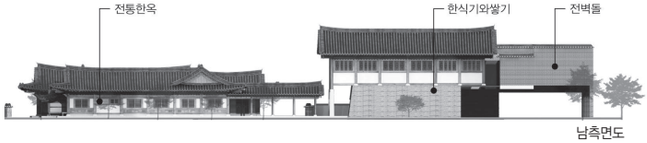
景 볕경
모담산을 끌어들이는 차경의 공간.
전통건축과 전통조경이 어우러진 공간 조성.
전통과 풍경, 감성을 담는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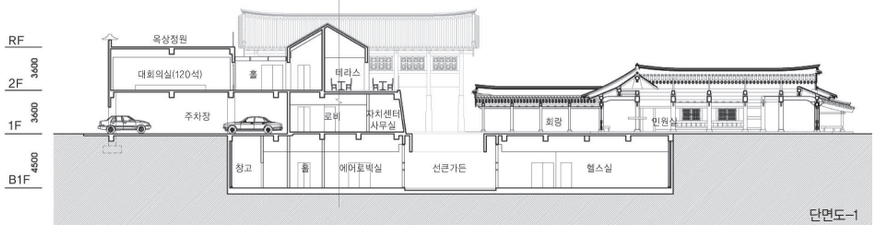
諧 화할해
현대건축과 전통한옥의 공간적 화합/ 형태적 조화.
전통건축의 주요 개념인 흐름의 '관계적 공간'구성.
닫힘과 트임의 전통건축의 켜의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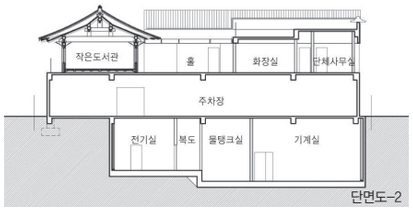
북측면도



남측면도



단면도-1



단면도-2

운양동 주민센터 _우수작

WOONYANG-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발주자 : 김포시청

설계자 : 손동준, KIRA | ㈜상명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상중, 신광순, 양두일, 조인수, 박영탁, 김인섭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906-4번지 일원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주요용도	주민센터
대지면적	1,930.0㎡
건축면적	948.15㎡
연 면 적	1,930.35㎡
건 폐 율	49.13%
용 적 률	76.1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규 모	지하 1층, 3층
주요마감	알루미늄패널, 치장벽돌(전벽돌), thk24 컬러복층유리

기본계획

계획안의 중요 배치 및 디자인 키워드는 조화이다. 조화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디자인컨셉으로 태극문양을 선택하였다. 태극문양은 파랑색 음, 빨강색 양으로 하늘과 땅의 의미,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이 의미를 발전시켜 지역간의 조화, 세대간의 조화, 현대와 전통 건축물과의 조화로 해석하였다.

배치계획

현대건축물과 전통건축양식의 한옥의 중정을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고 전통건축의 중요한 특징인 공간과 시선의 연속성 및 위계성, 닫힘과 열림의 조화를 생각하며 배치하였다.

평면계획

지하 1층은 선큰을 이용하여 동대본부와 새마을지도자실의 접근을 유도하였고,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집단에너지시설에 따른 열교환기실, 기계, 전기실을 배치하였다.
지상 1층은 민원행정동은 한옥구조로 2.7m 혹은 3.0m X 6.6m의 구조계획을 하였다. 보행자들의 출입과 차량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동선과 시선의 연속성과 공가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주차장과 중정마당의 단차이, 부분적 시선 차폐시설로 낮은 꽃담 등을 설치하였다.
지상 2층은 주민지원시설인 문화교실, 컴퓨터실, 작은도서관 등을 배치하였고 지상 3층은 에어로빅실, 헬스실, 대회의실이 배치되었다. 2층과 3층에서 소음발생 예상실들은 북쪽도로변에 배치하여 주변민원발생에 대비하였으며 각 실에서의 환기, 채광, 조망 등을 쾌적한 상태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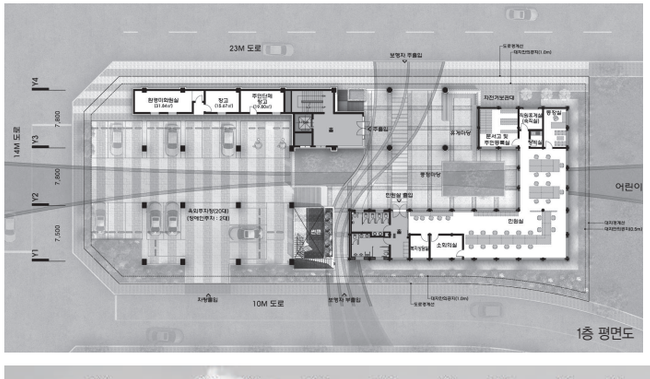
한옥과 현대건축물과의 조화, 시선의 흐름과 인지성에 중점을 두었다. 한옥의 양식은 5량 구조의 민도리 겹처마 집으로 계획하였다.

단면계획

개방감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로티 구조를 선택하였으며 층별, 실별 기능에 적합한 층고계획과 내부와 외부의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계획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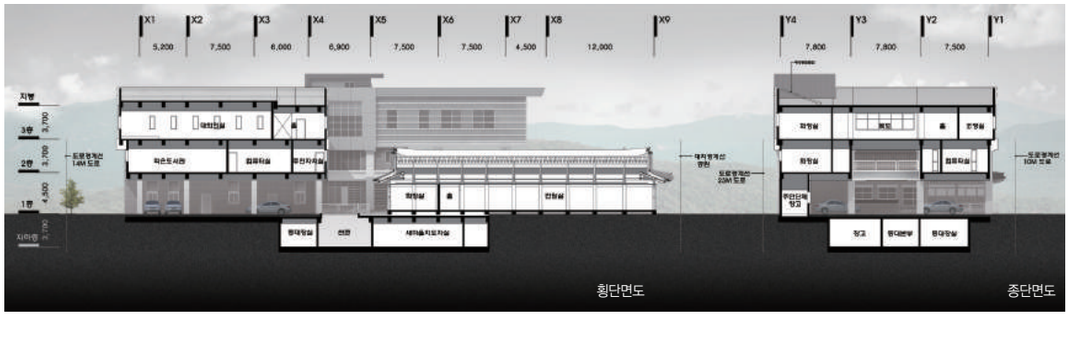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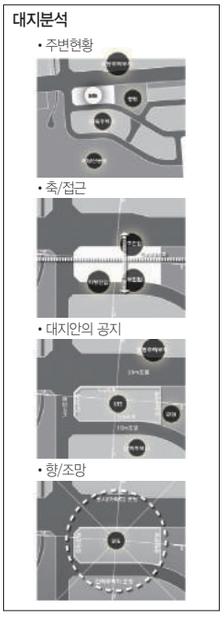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북측면도 서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운양동 주민센터 _가작

WOONYANG-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발주자 : 김포시청

설계자 : 강성원 |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설계팀 : 남기정, 최성열, 장윤정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906-4번지 일원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주요용도	주민센터
대지면적	1,930㎡
건축면적	834.33㎡
연 면 적	1,883.45㎡
건 폐 율	43.23%
용 적 률	97.59%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규 모	지하 1층, 3층
주요마감	트라이비트지정색,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 목재루버, 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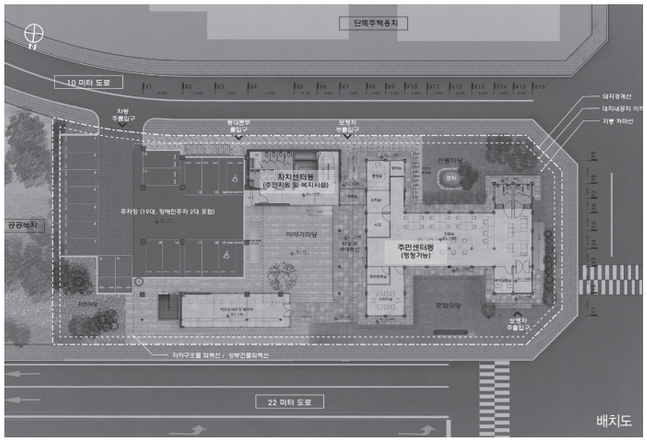
운양재(雲陽齋)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자치센터와 전통미를 살린 안락한 주민센터를 결합하여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공간 운양재(雲陽齋)를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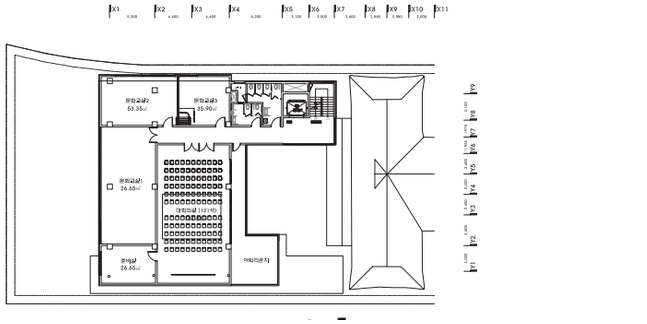
대지는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부지였다. 남쪽에는 모담산이 배산으로 있으며, 북쪽으로는 멀리 한강으로의 조망축이 이어진다. 전체적인 매스는 북향을 하면서도 향과 일조권을 실내공간배치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한옥은 고자형으로 계획하여 몸채에서 장스팬으로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였고, 날개채를 연결하여 남쪽(전통마당)과 북쪽(문화마당)에 자연스러운 마당을 조성하였다.
자치센터동과 한옥동과의 사이에는 회랑 및 무대장치를 두어 전이공간을 두었으며, 자치센터동이 한옥동을 감싸는 형태로 제안하였다.

설계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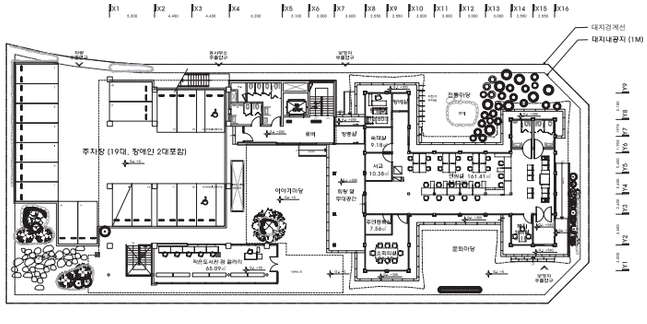
- 계승 : 전통한옥의 'ㅁ자형 안채와 ㄱ자형 사랑채'의 현대적 변용
- 소통 : 이야기마당, 문화마당, 전통마당, 자연마당 등 다양한 마당들이 한데 어우러져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
- 융합 :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늘을 내어주는 한옥의 처마 같은 필로티 저층부와 신한옥 개념의 중앙회랑 설계
- 조화 : 한옥의 창살패턴(분할과 비례)을 모티브로 한 입면 구성으로 한옥 건물의 배경이 되어 두 건물 사이의 조화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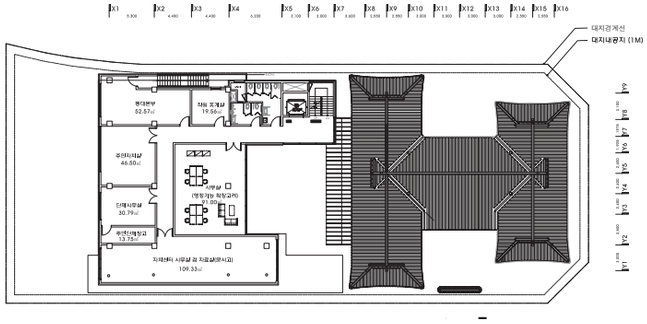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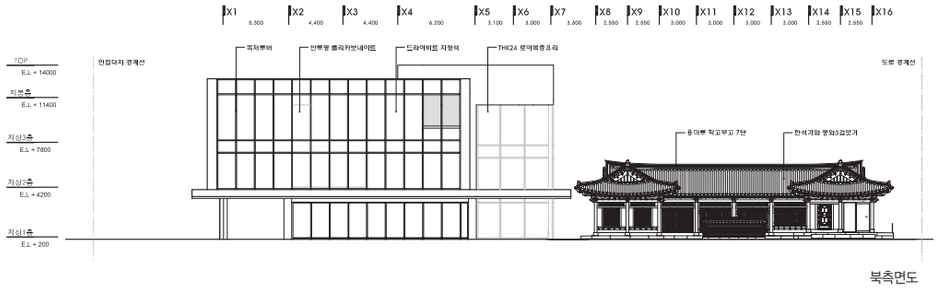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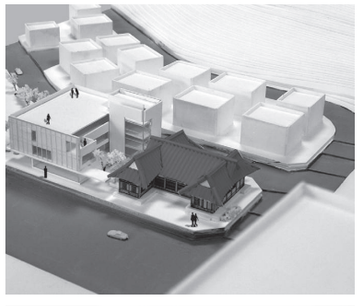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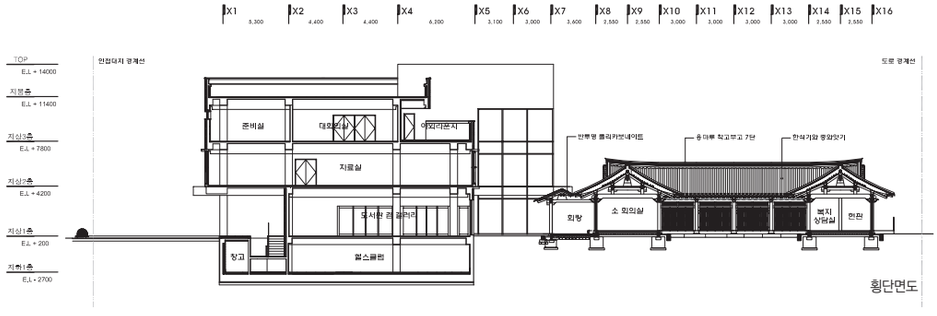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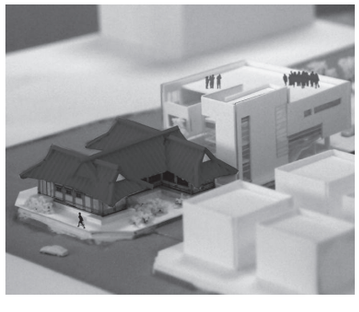


북측면도





횡단면도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_당선작

MUSIC HALL, UNIVERSITY OF SEOUL

발주자 : 서울시립대학교

설계자 : 노윤경, KIRA, **한상범** | (주)우리동인 건축사사무소
최종천, KIRA | (주)제이앤제이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이응섭, 서호직, 최정호, 안도경, 윤솔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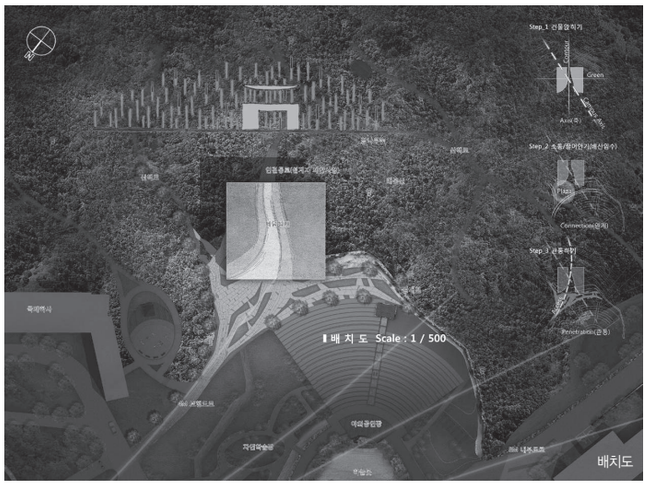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석산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명인 SI
– 기계설비분야 : C&I(씨엔아이)
– 토 목 : 지호엔지니어링

대지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시립대길 13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주요용도 교육 및 연구시설
대지면적 270,600㎡
건축면적 1,010.88㎡
연 면 적 3,916.43㎡
건 폐 율 0.37%
용 적 률 1.18%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조
규 모 지하 1층, 4층
주요마감 노출콘크리트, 티타늄아연판, 고밀도목재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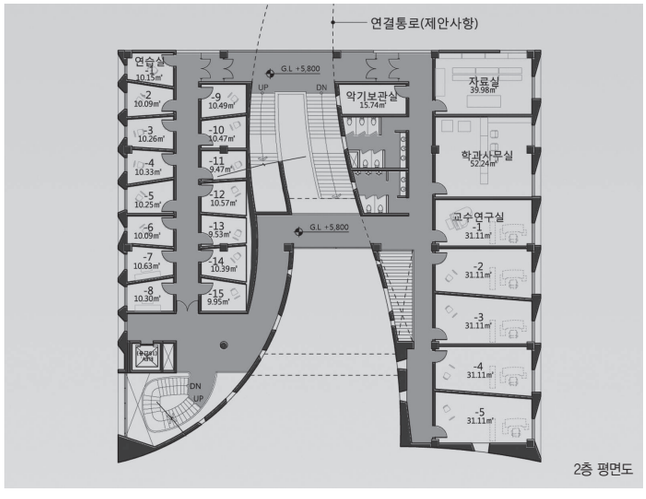
대상지는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이 있는 곳으로서 숲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도록 설계 지침이 주어졌으며, 향후 이 시설이 철거되고 음악관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곳은 시립대학교 캠퍼스의 끝자락으로 배봉산의 경사가 시작되는 경계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캠퍼스 전경이 한눈에 내려 다 보이는 곳으로서 캠퍼스 내에서 가장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전면으로는 하늘못과 야외공연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후면으로는 새들의 지저귐과 풀벌레들의 울음소리, 참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 개울을 흐르는 물소리 등으로 둘러 싸여 있다.

풍광과 전망이 좋은 최상층(4층)에 음악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콘서트홀을 위치시키고, 하부층(1~3층)에는 강의실과 연습실을 배치시켰다. 하부층의 매스 중앙부를 관통하여 캠퍼스와 배봉산의 경관을 시각적으로 소통시켜 배봉산의 경관을 자연스럽게 끌어 들이고자 하였다.
관통된 중앙부분의 계단식 아뜨리움은 콘서트 홀로 진입하는 과정적 공간으로서 커브진 벽면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층으로 접근되도록 하였다. 지상 1층에서 2층까지는 배봉산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진입하다가, 2층에서 방향을 바꾸어 콘서트홀 하부를 통하여 캠퍼스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4층 콘서트홀 로비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는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 시각적 경험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이는 하부층의 매스를 자연스럽게 분리시켜 악기 연습 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 시켜주는 완충공간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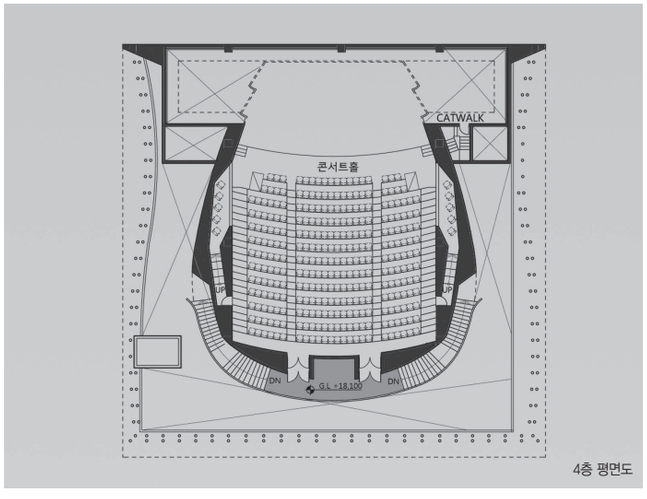
외관에 있어서 콘서트홀 전면과 좌우측면의 회랑식 열주는 배봉산의 참나무 숲의 이미지를 단순화 시켜 홀 내부로 끌어 들이고자 하였으며, 하부층 매스의 거친 송판 문양 노출콘크리트는 주변의 자연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였다.
음악관이 설계 의도대로 완공되어 이곳이 음악을 좋아하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어 시립대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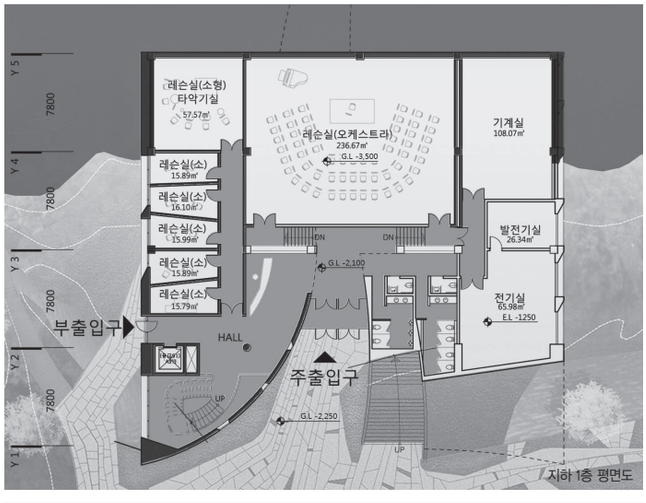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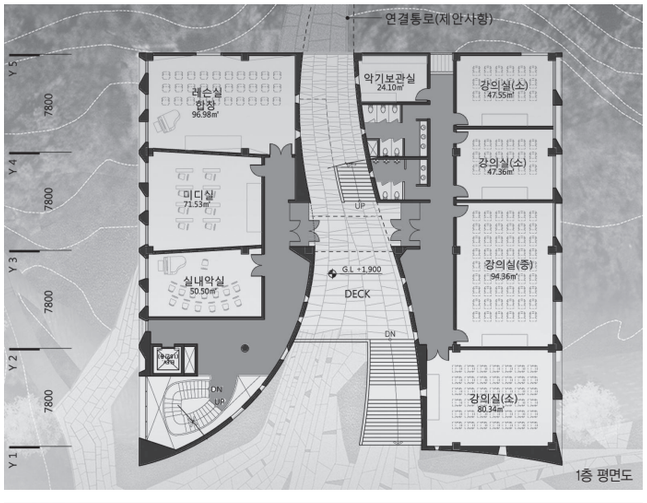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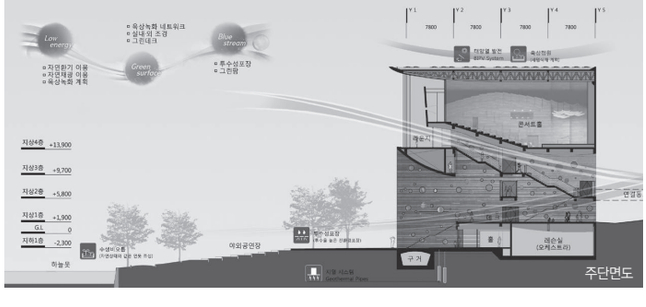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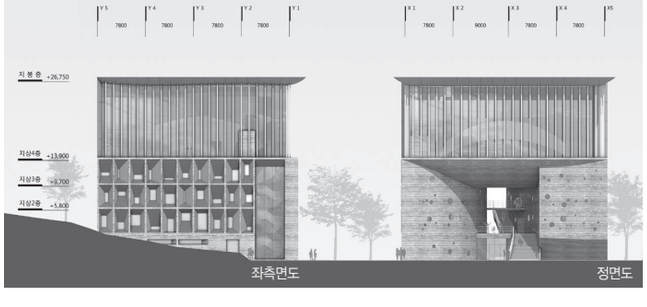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주단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_우수작

MUSIC HALL, UNIVERSITY OF SEOUL

발주자 : 서울시립대학교

설계자 : 박제유, 정협 | (주)제이유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이서구(건축사), 이영철, 박종현, 이승룡
이채민, 김영수, 김유승, 박보람, 홍주희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환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서원엠이씨
– 기계설비분야 : 차림
– 토 목 : 정토이엔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 시립대로 163(전농동 90)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주요용도	교육 및 연구시설
대지면적	270,600㎡
건축면적	1,307.29㎡
연 면 적	3,834.16㎡
건 폐 율	0.48%
용 적 률	1.31%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4층
주요마감	전벽돌, 로이복층유리

"빛과 숲의 음악관"

대지는 배봉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문화,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곳이다.
시립대학교 내의 각각 건물의 재료를 고려하여 입면 요소들로 반영한 시립대 음악관은 캠퍼스 내의 동일한 흐름을 유지하며, 남동쪽으로는 자연 조망을 확보하고 북서쪽으로는 캠퍼스의 열린 조망을 수용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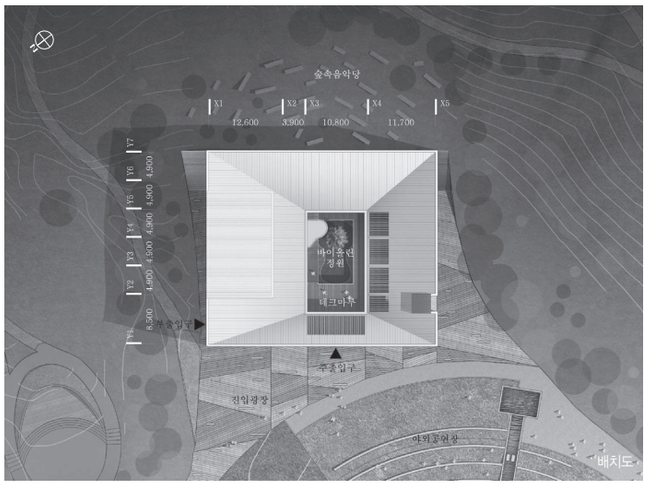
- 야외 공연장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숲의 흐름이 건물로 유입될 수 있는 데크 계획
- 쾌적한 환경과 향을 고려하여 음악대학, 교수연구실, 강의실을 남동향으로 배치
- 채의 분리로 음악대학영역과 공연장영역의 명확한 조닝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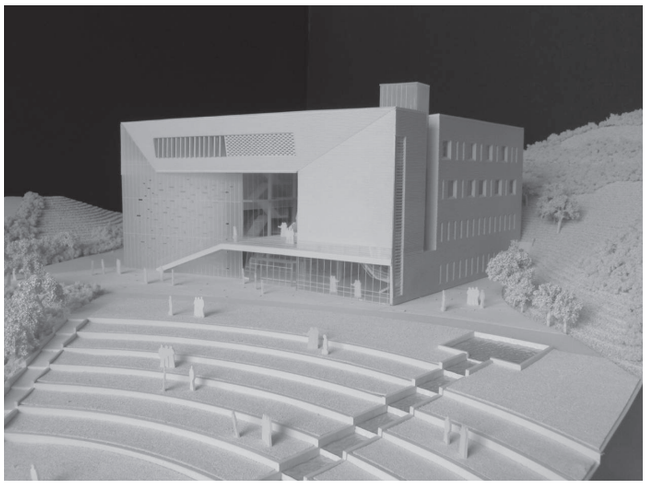
- 중정을 통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 데크계획으로 배봉산 근린공원의 숲속음악당과 야외 공연장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내 외부공간의 연계성을 위한 입체적 공간계획
- 콘서트홀과 교육시설과의 기능적 분리 및 각각의 독립적 영역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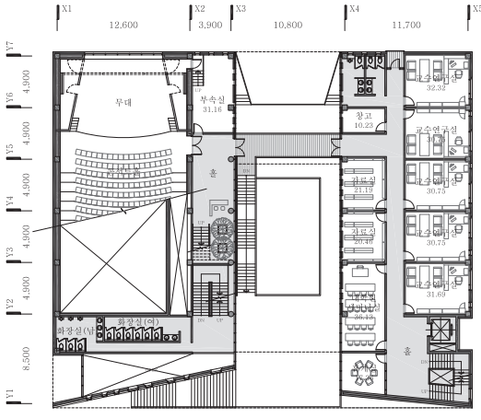
입면계획

-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의 형태가 연계되어 공간특성이 투영되는 입면 이미지 구성
- 대지의 향과 주변맥락에 상응하는 재료와 매스의 구현
- 음악의 울림을 건축적으로 형상화하여 입면에 투영
- 전면 광장에 상응하는 열린 입면 계획
- 개구부의 형상과 위치에 리드미컬한 음악의 요소 도입과 모듈화된 실구성을 반영한 규칙적인 입면 패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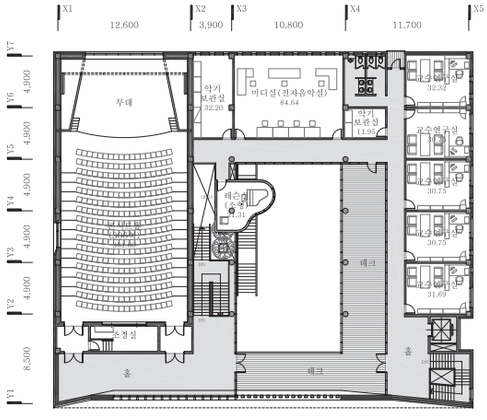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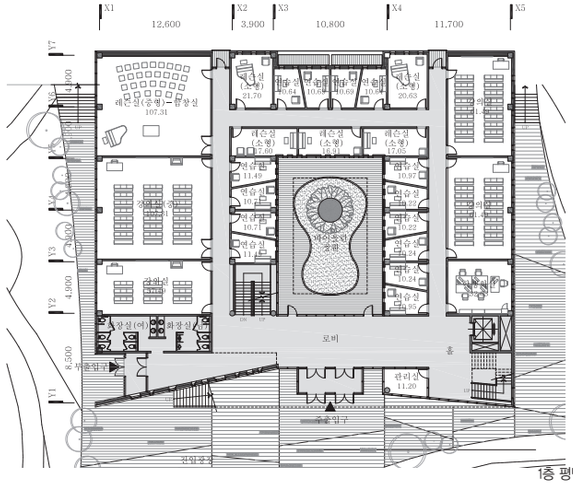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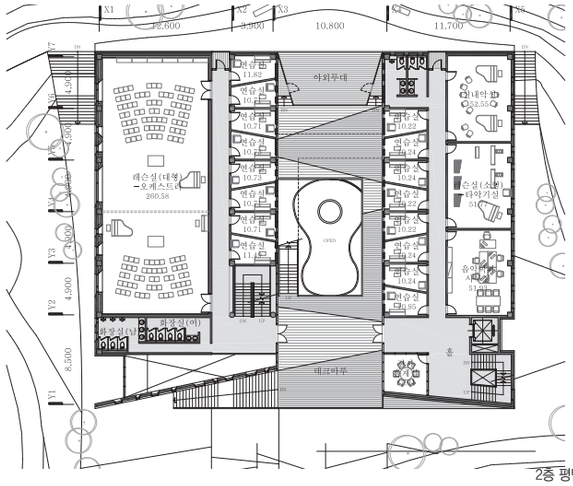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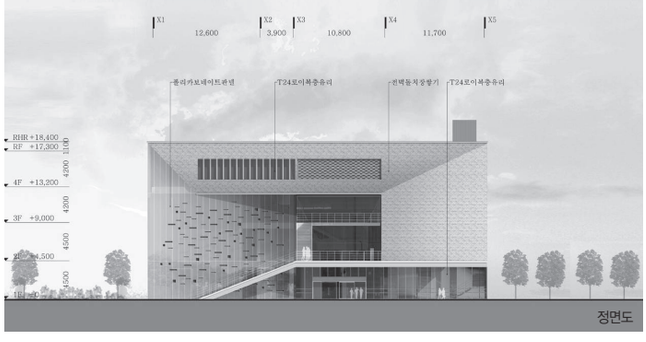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조망권,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How much a prospect right can be guaranteed?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최근에 본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중, 한가인의 집에서 시원하게 펼쳐지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조망권까지 갖추어진 멋진 건축물을 짓는 것은 이를 설계하는 건축사에게도 축복일 것이다. '건축학개론'의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남은 시점에도 이번에는 조망권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보고자 한다. 한강변의 아파트의 경우 한강조망권이 있느냐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도 한강이 보이는 강변북로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 사이의 분쟁에서 정리가 된 대법원 판결(2007. 6. 28.선고 2004다54282 판결) 사안이다.

원고들은 한강변의 리바뷰아파트 소유자들로, 리바뷰아파트와 한강 사이에는 리바뷰아파트보다 먼저 건축된 5층의 외인아파트가 있었고, 10층인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은 한강사이의 외인아파트에도 불구하고 멋진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외인아파트가 철거되고 19층 내지 25층짜리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가 들어서자, 원고들이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대법원은 조망권이란 용어 대신에 '조망이익'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 · 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 · 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2007~2008년 정부법무공단 설립준비단, 2010년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기술 평가위원,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및 기획홍보팀장이다.

대법원은 조망권이란 용어 대신에
'조망이익'이란 표현을 사용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도 설명

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 · 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리바뷰아파트와 한강 사이에는 강북강변도로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의 부지인 토지가 있고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 그 토지 위에는 리바뷰아파트보다 먼저 건축된 외인아파트 18개 동이 있었음에도 위 원고들이 그동안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철거된 위 외인아파트가 5층인 반면 리바뷰아파트는 그보다 높은 10층이었기 때문인데, 리바뷰아파트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가 있는 이촌동 일대는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부지에 있던 외인아파트는 이미 건축된 지 30년 정도 경과하여 그 자리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들이 한강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리바뷰아파트가 언제나 한강 조망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5층짜리 외인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리바뷰아파트의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것처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이익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건물과 조망의 대상 사이에 있는 토지에는 그 누구도 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campaign

건축사저작권 스스로 지켜야 … *.dwg 납품?

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을 주로 *.dwg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간 인허가, 심의 등 대관업무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dwg파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source)파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 또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도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는 *.dwg파일 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민원신청 내용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699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경복궁 중건과 서울(漢城)의 도시건축적 변화

Reconstruction of Kyongbokgung Palace and Change of Architecture & Urbanism in Seoul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교수

고종의 즉위와 흥선대원군

1863년 12월 고종이 조선의 제26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신정왕후(대왕대비 조씨)의 후원으로 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당시 고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도정치가 있었으며, 이는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혁정치의 배경이기도 했다.

순조에서 헌종과 철종에 이르는 60여년에 걸친 안동 김씨에서 풍양 조씨 다시 안동 김씨에 이르는 외척의 세도정치로 인해 왕권은 추락할대로 추락해 있었다. 여기에 철종의 후사없는 죽음은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풍양조씨 집안 출신의 신정왕후에게는 당시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의 세를 누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하응은 이와 같은 철종의 죽음이 가져온 정치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종친부[1]에서 유사당상(有司堂上)[2]으로 재직하며 종친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던 이하응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왕위로 세울 경우 신정왕후의 수렴청정이 가능함을 내세웠고, 이하응의 제안이 자신의 세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했던 신정왕후의 마음을 움직였다. 고종의 즉위는 당시의 정치구도를 정확히 읽은 대원군의 판단이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고종의 즉위로 대원군이 된 이하응은 신정왕후의 의도와는 달리 직접 정치를 관장하면서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모습은 우리에게 알려진 '상갓집 개와 파락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흥선대원군의 모습이 일반에 널리 유포된 것은 대원군의 인간적 삶을 재조명했다고 하는 김동인의 역사소설 '운현궁의 봄' 때문이었다. 1933년에 발표된 소설에서 김동인은 이하응을 '상갓집 개와 같이 구박받는 존재'로 묘사하고 당시 '세도가의 모멸 속'에 살았다고 그려졌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1820년생인 흥선대원군은 1841년에 흥선정에 봉작된 이후 비변사 당상을 거쳐 1847년에 종친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직책인 유사당상으로 재직하면서, 종친부의 권한 확대를 추진하며 왕실의 족보편찬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당시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 세력과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동인에 의해 잘못 알려진 흥선대원군의 모습은 경복궁중건과

1) 조선시대 왕실의 족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친인척을 관리하던 관청
2) 조선시대에 종친부(宗親府), 충훈부(忠勳府), 비변사(備邊司), 기로소(耆老所) 등에서 사무의 책임을 맡은 관리.

쇄국정책 그리고 천주교 탄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부정적인 평가와 맞물리면서 마치 역사적 사실인 듯 세간에 잘못 알려졌다.

역사학계에는 흥선대원군을 조선의 마지막 개혁가라는 평가가 있다. 흥선대원군이 60여년에 걸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에 눌려 있는 왕권의 회복을 위해 풍양 조씨 출신의 신정왕후의 정치적 야망을 매개로 고종을 왕위에 올린후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이후 왕권강화를 위한 개혁정치를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그의 개혁정치가 남겨놓은 유산은 역사도시 서울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왕권회복과 도시의 변화

흥선대원군이 종친부의 유사당상을 지내면서 절치부심했던 외척의 척결을 통한 왕권회복은 서원철폐와 임진왜란이후 방치되었던 경복궁의 중건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고종이 즉위한 지 2년째인 1865년에 시작된 경복궁 중건은 1968년에 완료되었다. 김동욱은 '한국건축의 연구'에서 경복궁의 중건은 백성을 다스리는 국민적 군주임을 상징하는 일로 보았다. 이는 세도정치를 종식시켜 실추한 왕권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조선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고종의 즉위와 함께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왕권회복과 각종 개혁정치를 펼쳤고, 그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은 도시의 구조와 건축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단순히 경복궁의 복원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만 매몰되어 있었을 뿐이다. 흥선대원군의 집권이 어떠한 모습의 조선을 지향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향점이 건축과 도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복궁의 중건 뿐 아니라 삼군부와 의정부를 포함하는 큰 틀의 변화와 함께 세부적인 변화가 어떻게 정치적 상황과 연동하고 있는 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복궁 중건의 정치적 의미와 건축적 변화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궁으로 사용된 기간은 창덕궁보다 짧다. 이는 경복궁이 임진왜란이후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복구하지 않은 이유를 경복궁이 풍수지리상 지세가 쇠락하여 더 이상 궁궐로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세간에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선조 때 궁궐영건도감을 설치하여 중건을 시도한 바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재정고갈로 인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고, 이후 광해군 역시 중건의

그림1. 정선의 경복궁도

의지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으며, 이후 현종, 숙종, 영조 등도 경복궁 중건의 염원을 밝히기도 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3] 풍수나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270여 년간 폐허의 상태로 방치되었던 경복궁의 모습은 정선의 경복궁도에도 묘사되어 있다. 경복궁도에서 대부분의 터가 비어있고, 상부 누각이 소멸된 광화문의 육축과 경회루의 석주 그리고 연못이 남아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몇 채의 건물이 보이지만 궁궐의 전각이라기 보다는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건물일 것으로 추정되며 궁궐의 뒤편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후원의 수목이 자란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의 오랜 염원이었던 경복궁의 중건이 고종의 즉위로 집권한 흥선대원군에 의해 실천에 옮겨졌다. 복구된 경복궁은 조선 초의 모습을 따랐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최근에 이루어진 광화문 복원사업을 위해 실시한 발굴작업에서 우리는 조선초 경복궁 조성 당시의 흔적과 고종연간의 경복궁 중건 당시의 초석을 일부 찾아낼 수 있었다. 광화문 복원사업을 통해 고종 당시의 경복궁 중건이 원래의 모습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어느정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원 위치에 복원되었고, 궁궐의 중심축에는 정전인 근정전과 편전인 사정전 그리고 침전인 강녕전과 교태전이 창건 당시의 모습으로 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3) 경복궁 변천사 상권, 문화재청

대해 김동욱은 흥선대원군이 조선왕조 창건시의 건국정신을 회복하고자 한 강력한 의지의 발로였다고 설명한다. 이는 한성 천도 후 처음 지어졌던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과 임진왜란 후에 조성된 경희궁이 엄격한 질서체계보다는 지세를 수용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유연한 공간구성체계를 갖춘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원된 경복궁에는 조선 초의 건축정신 회복을 위한 강력한 왕권의 상징적인 체계 구축 못지않게 500여 년 동안의 궁궐운영의 경험에 기초한 변화도 반영되었다.

조선초기의 궁궐 공간구성은 정치를 담당하는 외전과 생활공간인 내전이 전후관계를 가지며 궁궐공간구성의 기본 틀을 갖추었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건된 경복궁에는 왕의 공간으로 복원된 궁궐의 중심축이 더욱 강화되면서 초기와는 다른 공간 구성이 이루어졌다.

광화문에서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을 잇는 정치의 남북공간축이 북측으로 연장되어 흥복전을 거쳐 궁궐의 후원까지 연장되었으며, 이 축을 중심으로 동편에는 왕세자공간과 왕대비 및 상궁들을 위한 시설이 배치되고, 서편으로는 수정전을 중심으로 내반원이나 홍문관 등 대신들을 위한 궐내 각사와 경회루가 놓이고, 그 뒤에 왕실 제사를 지내는 태원전과 문경전이 배치되었다.[4)]

교태전 뒤의 흥복전과 태원전 등의 제사공간은 조선초기에는 없었던 시설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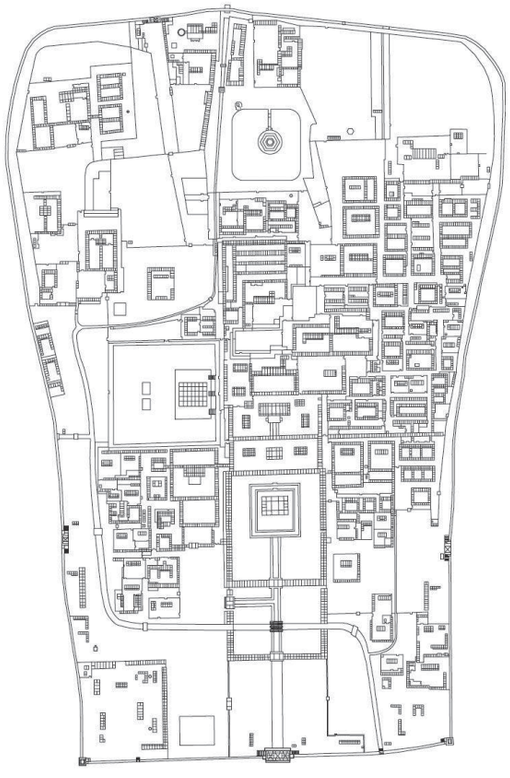


그림2. 고종년간 경복궁 배치도. 출처:경복궁 변천사

이렇게 중건된 경복궁은 광화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왕권이 회복되었음을 드러냈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창덕궁이 정궁으로 선택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 창덕궁과 돈화문로가 갖는 입지와 돈화문의 모습은 경복궁에 비해 많이 약했다. 경복궁의 복원은 왕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이자 왕권 회복의 상징이었으며, 조선초기의 도성의 공간구조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경복궁 복구의 장애였던 복구재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 흥선대원군의 선택은 원납전(願納錢)이었다. 흥선대원군은 공사비 마련을 위해 재상이하 모든 관원과 백성들에게 기부금을 납부하되, 그 액수에 따라 벼슬과 상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백성들의 많은 원성을 산 원납전을 실시했음에도 공사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자 성문통행세를 신설하고 당백전을 발행하여 국가재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흥선대원군은 빈번하던 민란의 원인이었던 환곡과 군역을 개혁하였다. 환곡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풍년 추수기에 돌려받는 제도였으나 세도정치기에 탐관오리들에 의한 수탈의 방법으로 악용되자, 환곡대신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곡물 대여기관인 사창(社倉)을 설치하였다. 또한 마을 단위로 군역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군포제는 조선후기에 신분제의 해이로 인해 늘어난 양반의 몫까지 백성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은 양반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군역을 부담케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환곡과 군역의 개혁은 백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경복궁의 중건은 단순히 국내 정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당시 동아시아가 처했던 국제정세는 매우 긴박했다. 경복궁의 중건과 개혁이 이루어진 시점은 중국과 일본이 서양에 문호를

그림3. 광화문을 중심으로 좌측의 삼군부와 우측의 의정부 모습

그림4. 1990년부터 본격화된 경복궁 복원사업에 따라 복원된 흥례문과 행각 / 사진: 강임산

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8

개항하며 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였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하며 홍콩이 영국에 할양(1843)되었고, 1853년에는 일본이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었으며, 1860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었다. 이와같은 국제정세에서 조선 앞 바다에 빈번하게 출몰하는 서양의 이양선은 조선정부에는 큰 압박이 아닐 수 없었다. 대원군의 집권은 단순히 내치의 문제뿐 아니라 외치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경복궁 중건으로 상징되는 왕권 회복은 세도정치의 종식과 서원철폐 그리고 연이은 환곡과 군역제도의 개혁을 통해 민심을 안정시켜 안정적인 국정을 바로잡는 정치개혁이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내부 결속을 위한 개혁이기도 했다.

특히 경복궁의 복원과 함께 이루어진 삼군부와 의정부의 복원은 흥선대원군이 가졌던 경복궁 복원의 정치적 목적을 명확하게 해줄 뿐 아니라 경복궁의 복원이 가져온 도시건축적 변화가 매우 컸다.

삼군부와 의정부의 복원

경복궁의 중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삼군부와 의정부의 복원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졌다. 삼군부는 조선건국당시의 군권을 통괄하던 관청이었으며, 의정부는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었다. 그러나 세도정치가 지속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의정부는 유명무실해있었다. 비변사는 1510년 삼포왜란 등 취약한 변방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관청이었으나, 임란과 호란을 겪으며 일반행정은 물론 정치 경제 외교 문화는 물론 군권까지 행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비변사는 창덕궁 앞에 설치(그림 5)되었는데, 임진왜란이후 창덕궁이 정궁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변사가 갖는 입지는 더욱 중요해졌고, 세도정치 시절 비변사는 세도가에 의해 좌우되면서 세도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임란으로 정궁이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바뀌었지만, 육조의 행정관청은 육조거리에 그대로 위치했었다. 이로 인해 창덕궁 바로 앞에 위치했던 비변사 입지의 중요성은 비변사의 기능강화와 함께 더욱 부각되었다. 따라서 비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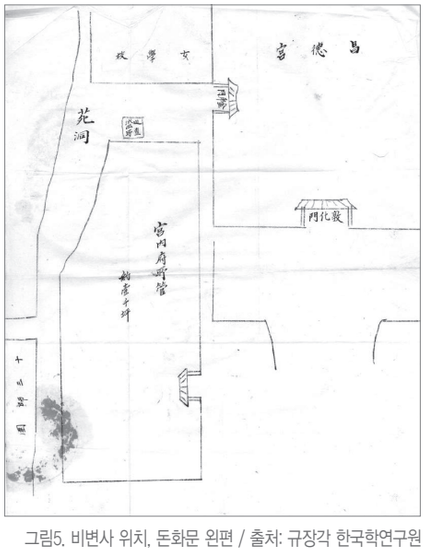


그림5. 비변사 위치, 돈화문 왼편 /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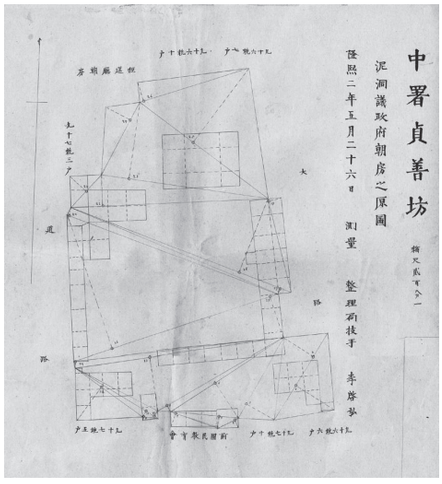


그림6. 의정부조방으로 사용되던 시절의 비변사 건물 배치도, 1908년 /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사의 개혁은 왕권강화의 핵심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하고 삼군부를 다시 설치하고 의정부를 복원한 것이다.

1865년 5월 26일(음력) 영의정 조두순은 경복궁 복원에 관한 보고와 함께 삼군부와 의정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고 있다.

"경복궁(景福宮)의 건축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의정부(議政府) 역시 새로 중건(重建)되고 있습니다.(필자 강조) 지금 예조가 있는 곳은 바로 국초(國初)에 삼군부(三軍府)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때에 정부와 대치해서 삼군부를 세웠던 것은 한 나라의 정령(政令)을 내는 곳은 문사(文事)와 무비(武備)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오위(五衛)의 옛 제도를 갑자기 복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훈국(訓局)의 신영(新營)과 남영(南營)과 마병소(馬兵所) 및 오영(五營)의 주사(晝仕)하는 곳 등을 지금 예조가 있는 곳에 합설(合設)하여 삼군부라고 칭하고, 예조는 한성부 자리로 옮겨 설치하며, 한성부는 훈국의 신영 자리로 옮겨 설치함으로써 육부(六部)가 대궐의 좌우에 늘어서게 하여 일체 옛 규례를 따르도록 하며, 그 밖에 각사(各司)는 편리한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두순의 말에서 주목할 것은 삼군부와 함께 의정부가 중건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의정부의 중건은 의정부의 기능회복을 전제로 하며, 이는 외척세력이 장악했던 비변사를 폐하고, 의정부의 역할을 회복하고, 삼군부를 다시 설치함으로써 조선초의 정치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정부 기능의 유명무실화는 비변사의 비정상적 역할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변사의 폐지는 순조 이후 세도정치가 득세하던 시절에 세도정치의 종말을 의미했다. 고종의 즉위와 함께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비변사의 비대화와 전횡을 막기위해 1865년 비변사를 의정부에 편입시켰다. 국정과 군권을 분리하여 문신과 무신이 서로 균형을 낮추는 사회 그리고 그 위에 왕권을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중건된 경복궁 앞 육조거리 제일 앞의 좌우측에 삼군부가 위치한 것은 그러한 의지의 건축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9)의 광화문밖 관아실측 평면도에서 제일 위쪽의 왼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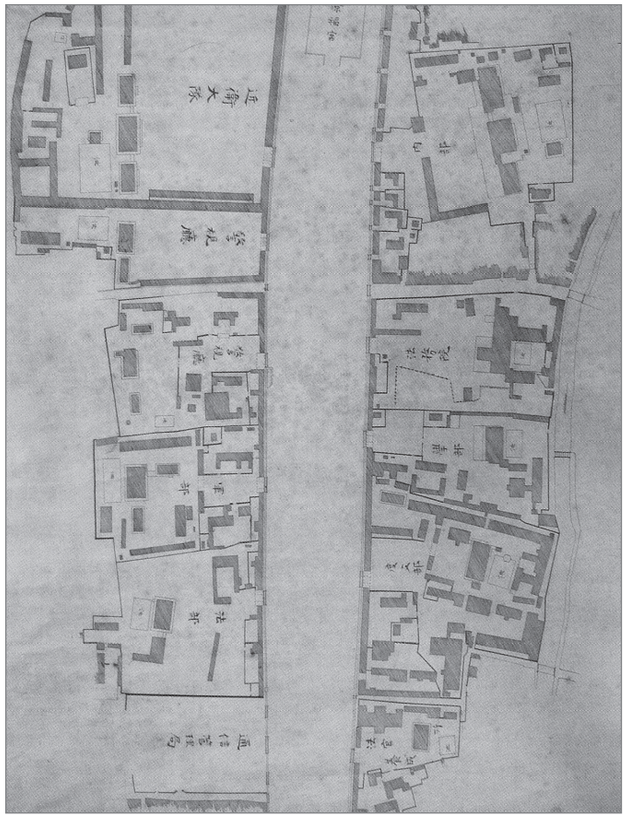


그림7. 광화문밖 관아실측 평면도 1907년 / 출처: 국가기록원

삼군부 오른편이 의정부가 위치했었다.

경복궁의 중건은 부활된 삼군부와 원 위상을 회복한 의정부의 중건과 함께 육조거리를 일신시켰다.(그림 3)

의정부를 중건하고, 예조 자리(현 정부종합청사)에 삼군부를 설치함으로써, 의정부와 삼군부는 동반서반(東班西班)의 도시공간에서도 상징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삼군부가 예조자리에 위치함에 따라 예조는 한성부자리로 옮겨졌으며, 한성부는 훈련도감의 신영자리(경희궁 동쪽 훈련도감 터로 추정됨)로 이전되었다.

(그림8)은 중건된 경복궁의 전경이다. 광화문 왼편으로 흥례문과 근정문 그리고 중층의 근정전이 보이고 모서리에는 철거된 서십자각이 보인다. (그림9)는 삼군부청사가 대한제국기에 시위대로 사용되었을 때의 모습이다. 1960년대말 정부종합청사를 건설하면서 해체되어 총무당건물은 삼선공원으로 청헌당 건물은 육군사관학교 구내로 각각 이축되었다.

도성의 정비

도성 전반에 걸친 정비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1869년의 동대문의 개축이다. 1396년에 신축된 이후 1453년에 수리된 바 있지만 이후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 낡고 퇴락한 동대문을 고치기 위해 영의정을 도제조로 하는 개축공사가 시행되어 도성 성곽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그림8. 경복궁과 주변전경

그림9. 구 삼군부 청사 전경

이밖에 왕실관련 시설들의 정비도 두드러졌다. 임금의 초상화를 모시는 영희전의 증축을 비롯하여, 종친부를 확장하였으며, 후궁의 사당인 경우궁을 옮겨짓고, 선희궁을 새로 지었다. 고종의 생가는 운현궁이라는 궁호를 갖게 되었으며, 대대적으로 개축된 후 새로운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종친부를 중심으로 종친의 힘을 모아 왕권 강화의 배경으로 삼으면서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영희전 증축과 후궁의 사당을 신축하는 것은 왕실의 힘을 모으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관우를 모시는 관왕묘인 북묘와 서묘 2곳을 새로 지었다. 중국의 군신인 관우를 제사지내는 관왕묘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를 도왔던 명나라에 대한 예를 표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빈번하게 출몰하는 서양의 배와 중국과 일본의 개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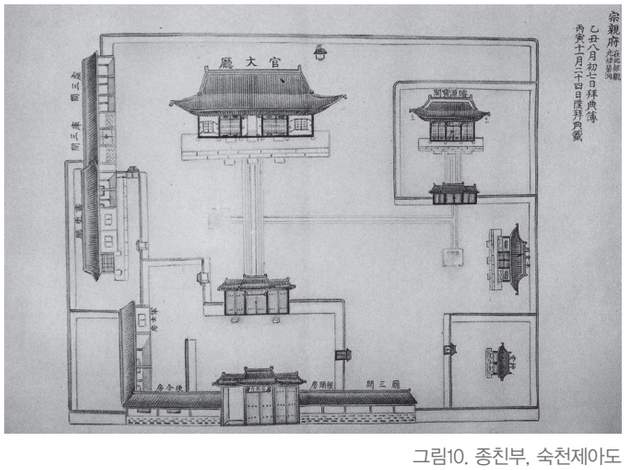


그림10. 종친부, 숙천제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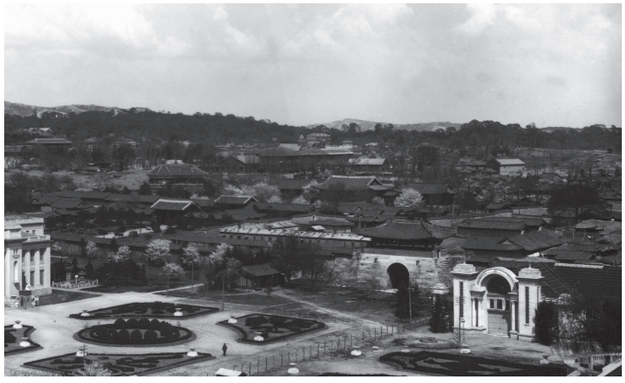


그림11. 일제강점기 경복궁의 총독부박물관과 종친부 전경

바라보는 조선의 입장에서 관왕묘의 신설은 국방에 대한 민심을 수습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을 중건하고 동대문을 개축하고 종친의 힘을 한데 모아 왕권강화의 배경으로 삼음과 동시에 백성들의 불안한 심리를 다독이는 정책의 시행은 개혁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시되었음을 보여준다.

경복궁복원과 도시구조의 재편

정궁이 도성의 도시구조에서 핵심적인 입지를 차지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임진왜란으로 도성의 중심이었던 경복궁이 폐허로 남겨진 채, 운영된 양궐체제는 궁궐이 도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임진왜란이후 창덕궁을 정궁으로 삼고, 경희궁을 이궁으로 삼음에 따라, 행정의 중심인 육조거리, 경제의 중심의 종로 육의전 거리 등 도성 안은 다중심의 구조가 되었고 이 구조는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도성 규모의 시가지에서 3~4개의 중심의 존재는 사실상 중심의 부재와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왕조국가에서 왕권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궁궐이 갖는 중심성은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도시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경복궁의 중건이었다. 서원철폐, 세제 개편 등의 정치개혁과 맞물리면서, 중건된 경복궁은 개혁의 주체인 왕권의 상징이 되었고, 광화문과 육조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중심성을 회복시켰다.

특히, 경복궁 왼편에 의정부를 재건하고, 오른편에 삼군부를 부활시킴으로써 왕권의 확립과 정치적 중심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1907년의 관유지를 실측한 지도자료에 따르면 재 정비된 육조 관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갑수 교수에 따르면 흥선대원군은 정치개혁의 모델을 조선 건국기에 왕권이 강화되었던 시기로 삼고 있었던 듯 하다. 전기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생각은 문신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문신과 무신이 서로 균형을 맞춘 문무 양반이 균형을 맞춘 사회로 보고 그 위에 왕권이 확립되는 정치질서를 모색했다고 한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생각은 비변사의 폐지와 삼군부의 복설과 의정부의 기능회복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비변사를 폐지시켜 소수의 세도정치 세력이 지배하던 국정을 공적 체계로 돌려놓고, 국방은 삼군부가 정치와 행정은 의정부가 담당하는 조선 초기의 정치체제가 다시 구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생각은 도시공간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예조 자리에 삼군부를 설치하고, 비변사의 득세로 유명무실해져 폐허화되었던 의정부를 중건한 것이다. 그리고 삼군부와 의정부를 거느리는 왕권의 상징인 경복궁이 그 위에 자리잡고 있다.

1886년 일본 동경의 중앙당(中央堂)에서 흥선대원군을 다룬 책이 출판되었다. 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이다. 박제경(朴齊絅)은 이 책에서 흥선대원군의 인물 됨됨이와 그의 정치적인 이면사를 다루면서, 흥선대원군을 당대의 인걸로 묘사하고 있다.

"만약 이 공(公)이 아니었더라면 능히 개화를 막아서 완고함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며, 후일 또한 완고함이 변해서 개화하는 데로 진보하는 것도 또한 바라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박제경이다. 박제경은 박영효, 김옥균의 지도하에 개화독립당의 일원으로 개화운동에 헌신했던 이 개화파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개화파의 일인으로 갑신정변에도 참여했던 박제경의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은 흥선대원군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흥선대원군과는 사뭇 다르다.

자주적 근대화를 지향했던 대원군, 그래서 부국강병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정치가 그러나 지나치게 무리한 경제정책과 대결구도로 인해 흥선대원군은 성공하지 못한 개혁정치가가 되었지만, 오늘날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자리 매김하는데 있어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이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늘의 서울은 흥선대원군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 문화재청, 경복궁변천사(상),(하), 2007
- 권영상, 조선후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구조, 서울대 박사논문, 2003
- 이규철, 대한제국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재편, 서울대 박사논문, 2010

‘시민과 함께한 살고싶은 청주 만들기’ 회고와 남은 과제

Making Livable City of Cheongju with Citizen - Retrospect and Prospect

최효승 |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시민과 함께하는 철당간 보존 운동

청주 진입로의 플라타너스 터널에 반해 청주사람이 된지 42년이 되어간다. 필자를 청주인이 되게 한 또 다른 이 도시의 매력은 옛 청주읍성터인 도심 한 가운데 서 있는 서기 962년에 주성(鑄成)된 철당기(鐵幢記)가 양각된 용두사지철당간(龍頭寺址鐵幢竿, 국보41호)이었다.

청주읍성터와 철당간

철당간 문화재 보호구역

그러나 진입로 가로수터널은 자동차 속에서 볼 때 멋있는 인도 없는 도로였고, 철당간은 유럽의 유명광장에 서 있는 애급에서 가져온 석재 오베리스크와는 달리 처음 세워진 그 자리에서 천년 넘게 청주지킴이 역할을 해왔음에도 상응한 대접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젊은 혈기에 ‘내가 플라타너스 길을 자랑 못하는 이유’, ‘철당간 보호구역 내 건물철거를 위한 제언’ 등 청주의 자랑을 잘 가꾸고 지키자는 글을 지역신문에 기고도 해 보았지만 중앙지의 작은 지역소식란에 더 의존하는 풍토에서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다.

1988년 5월, ‘철당간 주변환경 정비에 대한 의견서’를 시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취지는 좋지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매입 · 철거 1순위인 철당간 최인접 건물 외벽을 새 타일로 단장하는 갑작스런 사태를 맞게 된다.

이 사태는 필자를 심층취재 기자같이 변신시켜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4반세기동안 용두사지철당간이 청주시민과 행정당국의 어떤 관심과 보호 조치를 받아왔는지 자료 조사에 몰입하게 만든다.

충청일보의 ‘천년역사 서린 철당’, 한국일보의 ‘문화재보수 형평을 잃었다—군사유적에만 편중’ 등 찾아낸 많은 사진과 기사를 정리하고 국보 바로 옆 건물변모에 대한 의문점과 주변환경개선에 대한 글 ‘철당간광장 환경개선을 위한 한 고찰’을 잡지 ‘월간청풍’ 에 기고하게 된다.

1989년 청주에 ‘시민 의식을 가진 충북사람’이란 의미를 담은 ‘충북시민회’란 시민단체가 출범한다. 고속전철 청주정차를 대선

최효승은 한양대 건축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청주대 명예교수로 도시.건축, 에코뮤지엄연구소장, 주민참여도시만들기 지원센터 공동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버클리대학 건축과 C. Alexander연구실에서 ‘이용자참여에 의한 건축,도시만들기’, 동경대 도시과 西村연구실에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마을만들기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 보행환경개선, 자전거생활도시만들기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건축학회 초대회장과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였다.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N후보가 약속을 파기하려는데 분개한 시민회 회원들은 시정촉구 상경집회를 하면서 권력기관의 핍박을 받게 된다.

시민운동 이전의 철당간과 광장 상태(1987. 9)

철당간 옆에 지어진(1968?) 건물

4층 건물로 증축(1973)

건물외벽에 타일 부착(1987)

보존처리(1999) 전의 철당간 모습

1990년 충북시민회 신년회에서 고속전철 청주정차 약속을 파기하려는 무책임에 실망한 회원들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재 보존시민운동'을 제안했고, 이사회의 흔쾌한 동의를 받아 '철당간 보존과 주변환경정비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준비를 자임하고 시민회와 함께 뛰게된다.

1990년 10월 27일 충북시민회의 '철당간보존과 주변환경정비를 위한 심포지움'에서 정영호 교원대 교수, 차용걸 충북대 교수, 이원복 국립청주박물관 관장과 필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박병주 홍익대 교수의 진행으로 윤홍로, 문영빈 문화재전문위원등 여러분이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필자는 발표 말미에 철당간 최인접 건물의 철거를 위해 시민모금 운동을 제안하고 황희연교수는 그 자리에서 시민모금 운동을 정식으로 선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의를 얻게 되고 시민성금 모금이 시작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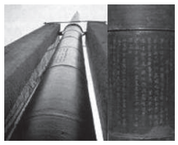
철당간 보존과 주변환경 정비 심포지움 포스터와 대토론회 (1990. 10.27)

철당간 옆 건물철거(1993)

당간 보호구역 첫 정비사업(1993)

예술의전당 광장에 철당간 재현물 건립(1995)

철당간 안전진단 및 보존처리 가설물(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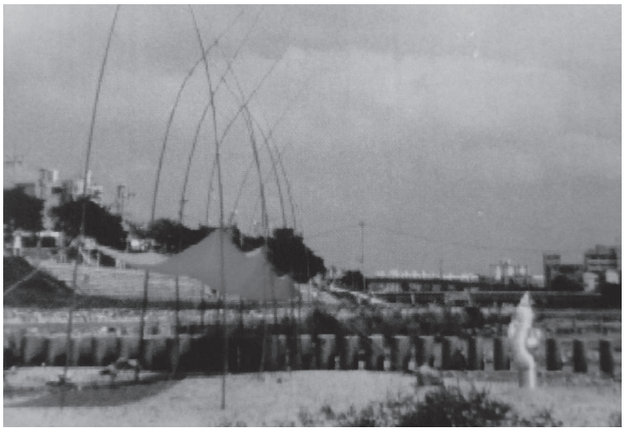

철당간 보존처리 후의 모습(1999,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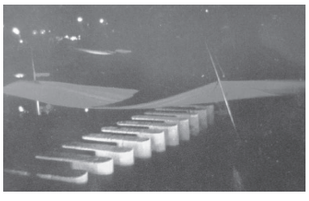
20년의 노력과 충청일보의 적극적인 동참에도 변화가 없던 철당간 광장이 새로 출범한 충북시민회 역할 3년만에 당간 최인접 건물철거라는 첫 결실을 거두게 된다. 1993년 동짓날 시작한 당간제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시민음악회 개최 등 옥외 문회공간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청주시민의 날에 열린 광장정비 경축 시민음악회(1994.4)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지역의 건축3단체 주최로 '1999 청주국제건축디자인캠프'를 개최하게 된다. 9개국 13개팀, 81명의 건축 · 도시 · 조경 전문가와 대학원생이 참가해 다양한 제안들을 냈으나 한 작품만 간단히 소개한다. 무심천 모래사장에 야외PC방과 철당간 용의 꼬리를 만들어 놓았으나 밤에 누군가가 뽑아가 버렸다.

Chongju Int'l Architectural Design Camp


청주국제건축디자인캠프 철당간주변환경정비/유럽팀의 무심천변 야외 pc방과 용꼬리


징검다리 위의 텐트 구조

최종결과 발표회/시민토론회

디자인캠프 이후 문화재보호구역 북측부분에 빨간지붕 극장 일부분이 걸쳐 있던 건축주는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보호구역 선 밖에 새 건물을 신축한다. 더하여 보호구역 안 토지(흰색 텐트 2개가 쳐있는 회색 대리석 부분)의 기부체납약정서를 시에 자진 제출한다. 시민 모두 기부자를 칭송하고 국제디자인캠프 덕이라고 고마워 했지만 그 사업가는 IMF로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기부체납 약속을 철회하고 건물을 매도한 후 서울로 떠났다.

같은 IMF속에서도 철당간을 올려 비치는 조명등 기증과 그 무료시공을 약속한 두 업체는 약속을 잘 지켰다.

1999 청주국제디자인캠프 후의 철당간 광장 음악회

철당간 주성 1050년이 되는 금년에 청주시가 자체예산으로 광장바닥 정비를 하였다. 백화점 앞 광장 양쪽에 있던 벤치 자리에 등장한 백화점 옥외판매대는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벤치 잃은 시민들이 철당간 난간과 둘레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을씨년스럽다.(아래 사진 윗줄)

'99국제건축디자인캠프' 후 세계인에게도 잘 알려진 철당간광장의 남측 1층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해야 할 남은 과제다. 아랫줄은 '2011청주대국제심포지엄'에서 필자가 소개한 유럽 광장의 오픈카페 사진 중 일부이다. 과도한 토지매입가의 요구에 움추리지만 말고 '건물철거와 오픈카페 허용'이란 발상의 전환으로 건물주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을 토론해보자는 것이다. 조상의 빼어남을 세계인들과 함께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배려는 좋은 일이기도 하니까.

광장에 있던 벤치

옥외 판매대와 난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벨기에 앤트워프 시청앞 광장

오빌리스크가 있는 판테온 극장광장

시민과 함께한 보행환경 개선성과의 남은 과제

1987년 8월 청주의 중심가로 상당로 밑에 민간자본에 의한 지하상가가 개장하면서 지상횡단보도를 없앴다.

이 상황을 보고 '도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사람, 횡단보도 부활하라'(87.9.7)는 글을 비롯해 여러 매체에 '사람이 주인인 외국 도시 사례'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장애인 단체나 종교계에서도 지하상가 위 현장에서 횡단보도 부활 캠페인을 꾸준히 벌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상가가 없는 단순 지하도 위와 육교철거와 횡단보도 부활 운동을 먼저 시작하고 '도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사람'임을 느낄 때 지하상가 위 횡단보도 부활운동을 다시 하기로 하였다.

지하도 이용이 불가능한 시민들이 있음에도 없애버린 지상 횡단보도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의 횡단보도 부활 캠페인

외국의 대각선 횡단보도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한 '사람이 도시의 주인'이란 시민인식 바꾸기 운동은 2000년대에 들어와 결실을 보기 시작한다. 자동차를 위해 땅 속과 하늘로 사람을 건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된 시민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01년부터 용암동, 중앙시장입구, 남사로네거리 등에 횡단보도가 연이어 부활되고 서문다리 앞엔 대각선횡단보도도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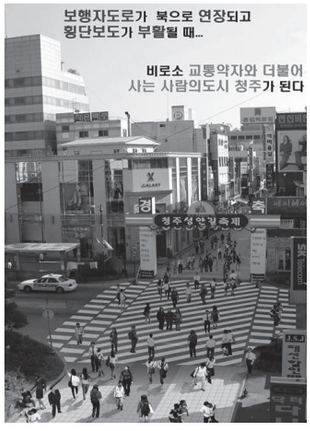
용암동 지하도 위 횡단보도 설치 전(위)과 후(아래) (2001. 5)

2003년 10월 지하상가 위 횡단보도 부활운동을 재점화한다. 연구실에서는 횡단보도 부활캠페인 포스터를 만들어 중앙로 입구에 세우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구 충북시민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유모차 들고 지하도 건너기 체

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지상 횡단보도를 없앤 후 피폐해진 중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이 활발히 열리게 된다.

중앙시장 입구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부활(2002. 4)

구 남궁외과 네거리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부활(2004. 9)



유모차 지하도 건너기체험과 횡단보도 부활 캠페인 포스터

87년 8월에 없애버린 지하상가 위 횡단보도가 18년이 지난 2005년 5월에야 부활돼 남녀노소, 장애인과 자전거, 유모차, 손수레가 땅을 밟고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이 대현 지하상가는 일부 상인들의 당초 우려와 달리 횡단보도 부활 전에 비해 더욱 활기 넘치는 명소가 되었다. 또 지하상가 위 횡단보도 부활에 극단적인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다른 도시와 달리 상인들 합의로 만든 규약에 의해 '상점문 안으로 열기', '통로에 상품 매대 안내 놓기'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 전국의 지하상가가 부러워하는 쾌적한 공간이 되었다.(아래 사진 윗줄)

아쉬운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해 유모차와 휠체어의 출입을 어렵게 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횡단보도 부활로 오랫동안 피폐돼 있던 중앙로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시 당국에선 오랜 방치에 대한 미안함에선지 가로 중앙에 물도 흐르는 녹지를 조성해 준다. 아쉬운 것은 시정 모토인 '녹색수도 청주'를 과잉 해석한 탓인지 전선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많은 변압기를 녹지공간 대신 사람의 통행 공간에 놓는 아쉬움을 남기는데 그중의 하나다.(사진 아랫줄 우)

부활된 지상 횡단보도와 활기 넘치는 지하상가

중앙로의 새 모습과 보행공간에 설치된 변압기

2004년 9월, 상당공원 지하도 위 네거리에도 횡단보도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남.동.서 세곳에만 횡단보도를 긋고 북측엔 횡단보도를 안 만든 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동서방향의 차가 움직일 땐 남북방향의 차는 직진을 하지 못하는데도 동쪽, 북쪽 도로 차의 우회전 배려 때문인지 편도 2차선 도로를 교통섬 셋을 거쳐야 건널 수 있게 해 놓았다.(아래 사진 윗줄)

우회전 차량을 위한 포켓까지 포함하면 종 8차선의 서울 남부버스터미널 앞 네거리의 경우 우리 도시엔 유난히도 많은 교통섬 하나 없이 4곳 모두 횡단보도를 그어 사람 중심의 교통행정을 하고 있다.(사진 아랫줄)

상당공원지하도 위 횡단보도 부활(2004. 9)되었지만 횡단보도는 남동서 3곳에만 그었다.

서울 남부버스터미널 사거리의 횡단보도

청주 가경버스터미널네거리 횡단보도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스쿨존만 벗어나면 안전하게 걸어다닐 길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통학로다.(사진 좌) 일본 유후인의 이 학교에도 인도가 없었

지만 낮은 운동장 쪽으로 캔틸레버를 달아내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배려하고 있다.(사진 우)

스쿨존 밖의 우리나라 통학로(좌) 유후인의 캔틸레버 인도 바닥과 측면(우)

우리 주거지역의 생활도로를 걷는 것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사진 좌) 일본의 커뮤니티 도로는 일방통행의 차로와 좁더라도 반드시 인도를 확보하고 있다.(사진 우)

우리나라 주거지역의 생활도로(좌) 일본의 커뮤니티 도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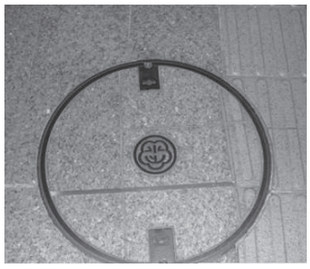
건축선을 넘어 밖으로 여는 문,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품들을 내 놓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 인식이 우리는 거의 없는 것 같다.(윗줄 사진) 유후인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좁은 인도지만 절대로 건축선을 넘어 보행공간을 잠식하지 않으며 꽃집과 출입구의 문도 예외가 아니다.(다음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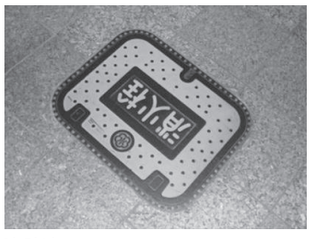
건축선 침범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식 차이 / 우리나라의 예

건축선 침범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식 차이 / 일본의 예

맨홀을 보면 통행인을 배려한 정성을 알 수 있다. 인도 바닥면보다 높은 맨홀을 너무도 많이 만나고 신속히 교체하지 않는 깨진 뚜껑도 쉽게 볼 수 있다.(사진 좌)

일본은 바닥과 맨홀 뚜껑이 거의 같은 면이다.(사진 우)





맨홀 뚜껑에 대한 우리나라(좌)와 일본(우)의 차이

지상 변압기는 필수품이지만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 변압기는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지만 일본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게 폭좁은 변합기를 놓는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뚱보변압기와 일본의 날씬 변압기(우리나라–좌, 일본–우)

버스정류장 구조물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 길 한가운데 세운 우리와 달리 일본은 식수대 폭을 넘지 않는 좁은 폭의 구조물을 세워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이 없게 처리하고 있다.

인도를 점유한 버스정류장의 구조물(우리나라-좌, 일본-우)

맺음말

우리 도시가 살고싶은 곳이 되기 위해선 보행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이 절실한데도 이런 움직임을 쉽게 접하기가 힘들어 아쉽다.

화급히 고쳤으면 하는 것 두가지만 제안하려 한다.

우선 앞뒤 자동차의 위협과 매연 속에서 파란 신호를 기다리는 손바닥교통섬부터 없애 자동차 아닌 사람이 주인인 도시로 회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곳은 신호등구조물 안전섬으로 우회전 차량의 운전자를 거칠게 만드는 역기능까지 하기 때문이다.(사진 좌)

녹색어머니회원 분들께도 바람이 있다. 식구들의 바쁜 출근, 등교시간의 교통봉사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차량운전을 하는 가족들에게 '도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란 식탁교통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사진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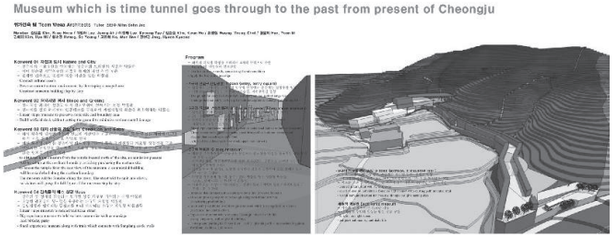
손바닥 교통섬

녹색어머니회 등교시간 교통봉사

끝으로 '1999국제건축디자인캠프'이래 매 5년마다 청주대 건축과에서 주관한 2004, 2009 '청주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캠프'의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글을 마친다.

'체험형 박물관'은 한 독지가가 평생 수집한 옛 생활물품 박물관 계획안으로 평생 수집한 2만여점의 유물을 단순 전시를 지양한, 살아있는 체험형박물관(에코뮤지엄)을 지어 지역사회에 기증할 계획을 세우고 대지까지 확보 했으나 갑작스런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페이퍼디자인으로 끝나고 말았다.

폭 15m, 길이 1km인 '수동성당길 재생' 캠프 결과는, 성당에 접한 한 블록에만 좁은 인도가 설치되는 작은변화에 그쳤다.(우단 사진 상) 여전히 도로 중앙은 양방향 자동차도로 양쪽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유료주차와 불법주차(사진 좌열 상의 좌측과 우측부분)공간으로 계속 존치돼 새 학생도서관이 1년전 준공되었지만 아직도 인도 설치가 안되고 있다. 거기에 상점에서 내



체험형 박물관 및 체험가로 만들기

2009 청주국제건축디자인 캠프/청주구도심 수동 성당길 주변환경 재생

놓은 풍선형 광고탑까지 가세해, 보행자와 자전거는 위험속을 계속 헤치고 다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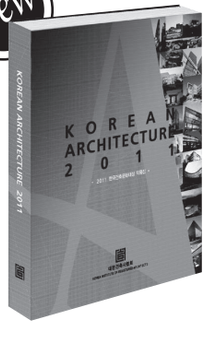
희망적인 것은 이 길의 식당을 이용하는 간선도로변 사무실 직원들의 자동차를 압도하는 분위기(우단 사진 하좌)가 이 도로를 걸고싶은 길로 변화시키리라 기대한다.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사람이 주인인 도시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KOREAN ARCHITECTURE 2009, 2010, 2011」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도서 구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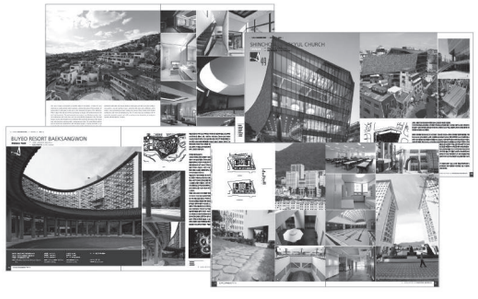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건축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각종 건축도서를 발간하여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시대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KOREAN ARCHITECTURE」시리즈,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월간 '건축사'에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등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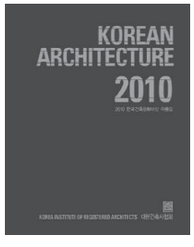
New



「KOREAN ARCHITECTURE 20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수록
면수: 376여쪽
4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KOREAN ARCHITECTUR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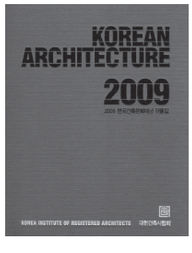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500여쪽
3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 「KOREAN ARCHITECTURE 2010」&「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2권 세트 구매시 **할인가 40,000원(배송비 포함)**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구입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7) ※ 계좌번호 : 기업은행 667-002597-04-232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소식

제9회 이사회

2012년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9월 12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교육원 설립의 건,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의 건, 회관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 및 외부간판 설치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여부의 건,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협찬금 모금의 건, 건축문화행사 후원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건축사의 「민간업무 대가산정 방법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계획 승인의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조정 승인의 건, APEC등록건축사회계 예산 목간전용 승인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교육원 설립의 건
  – 교육원 명칭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으로 하고, 원장은 협회 회장이 겸직하기로 함.
  – 건축사교육원 운영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교육원 프로그램 개발시 기존에 등록원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이번 기회에 비용이 들더라도 협회 전산시스템 통합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기로 함.
• 제2호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의 건
  – 정책토론회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1회만 개최키로 하되,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범건축계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시행하기로 함.
    ▷ 참석범위와 토론자 등은 정회원에 한정하지 말고 FIKA 3단체 및 정치권 등 폭넓은 참여 유도
    ▷ 개최시기와 장소는 대선도 고려하여 프레스센터나 국회의원 회관으로 변경 검토
    ▷ 주제와 토론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적인 측면에서 건축설계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향 모색 필요
• 제3호 : 회관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 및 외부간판 설치의 건
  – 회관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 및 외부 간판 설치는 회관관리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되, 음향전문기술자에게 자문을 받아 시행하기로 함.
• 제4호 :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여부의 건
  –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구성하지 않고 정관에 맞도록 4인을 추가 위촉하기로 함.
  – 다만, 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역할도 막중한 만큼 현재의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선하기로 함.
• 제5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협찬금 모금의 건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협찬금이 목표 금액에 도달될 수 있도록 임원 모두가 적극 협조하기로 함.
• 제6호 : 건축문화행사 후원의 건
  –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의 「민간업무 대가산정 방법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계획 승인의 건
  –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후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 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한국건축산업대전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
  – 사업위원회 협의를 거쳐 회장단에서 확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조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APEC등록건축사회계 예산 목간전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APEC등록건축사제도 전반에 대하여 임원 2인(조형식, 최남수)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차기 회의시 APEC등록건축사위원장을 참석시켜 현황을 보고 받기로 함.
• 제5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중 제16조(선거운동금지) 제3항을 삭제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8회 국제위원회

제8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해외단체장 초청의 건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위임하기로 협의함
  ▷ 소위원회 : 신춘규 국제이사, 김성민 직전위원장, 오동희, 주 범 위원
  ▷ 건축물탐방(24일,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예정)
  담당 : 오동희 위원
• 제2호 : 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의 건
 – 잼버리 참가 학생대표 선발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 담당위원인 이윤석, 주범 위원과 국제담당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협의
 – 각 위원회 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9월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대표단 업무 분장(안)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작성하기로 협의

□ 대표단 구성 (안)

구 분		인원	성 명
대표단	공식대표	2인	회장 김지덕 자문위원
	일반대표	5인	신춘규 국제 담당이사 이윤석 국제위원 임희선 국제위원 이승석 국제위원 전성호 국제위원
	학생대표	2인	차후 선발예정
주제발표		1인	조인숙 국제위원장 ※발표자 항공권(2인) 및 숙박(2박) 제공

□ 대표단 구성 (안)

회 의 참 가 (회의참석 담당 위원은 회의 전 보고서 / 회의 후 회의록도 작성)	
이 사 회 (Council)	공식대표(회장, 국제위원회 1인), 대표단
교육위원회 (ACAE)	조인숙 위원장, 이윤석 위원
건축실무위원회 (ACPP)	신춘규 이사, 이승석 위원
친환경위원회 (ACGSA)	전성호 위원
사회책임위원회 (ACSR)	김성민 직전위원장, 임희선 위원
Fellowship 미팅	김지덕 자문위원
임원회의(OB Meeting)	–

보고서 작성	
KIRA Country Report	이사회 담당자
ARCASIA Center 건립	(위원장이 관계자와 확인 예정)
ARCASIA 홈페이지 운영	신춘규 이사
문화행사	
우정의 밤	임희선 위원
영상/사진	전성호 위원

• 제3호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의 건
 – 연사 또는 발표자가 발표주제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협의

□ 연사 및 발표자 논의결과

(6.1, 제5회 국제위원회 / 6.20, 제6회 국제위원회 / 8.3, 제8회 국제위원회)

일자		발표주제	발표자 / 연사
11.15 (목)	협의회	APEC 건축사 제도	• 대한민국 APEC 등록 건축사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 (예정)
		건설시장 감리에 관한 소통, 건축사 실무행정, 건축사의 책임과 신뢰 3국의 건축사 윤리	국토해양부 관계자 (예정)
		차기회의 주최 단체 소개발표 (대한민국 인천)	• 국제위원 또는 인천건축사회 관계자가 발표하는 방안 제안
	회의	회장단 회의 3국의 최근 이슈 및 차후 교류방안 논의 ○ 참 석 : 회장 및 관계자	• 발표자 : 조인숙 위원장
	건축세션	주제 1 국제적인 관광 섬(Island) 건설에 관한 의견	• 심형섭 위원
		주제 2 건축에서의 자연재해 방지와 완화	• 차후 논의 (서울시에 발표제안 예정)
	회의	Community Architects 포럼	• 발표자: 오동희 위원

▲기타사항

가. UIA 준비위원회 안건 중 2차 분납금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조율

ㅇ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2차 분납금(80,000 유로) 납부시기(9.15까지)가 다가오는 바, 분납금 준비방법 및 납부에 관해 회장 보고 후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FIKA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

나. "Architect의 우리말 해석"에 대한 건축사지에 기고 필진

ㅇ 'architect'의 우리말 번역에 관해 본협회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음

다. '.archi' 도메인의 사용에 관한 UIA의 공문회신내용

ㅇ 'qualified architect'에 관해서는 '건축사'로 해석하고,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축사'로 한정한다는 본협회의 의사를 피력하는 방안을 제안

■ 제7회 건축사교육원설립준비위원회

제7회 건축사교육원설립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의 건

– 한국건축산업대전 연계 전문교육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강의안 및 원고 요청 문서 시행하기로 함. 동영상촬영은 동의하신 강사에 한하여 동영상촬영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건축교육원』실행예산(안)의 건

– 세입예산 교육수수료 항목, 세출예산 지방순회교육비 항목은 추후 예산(안) 회계운영을 위해 목존치 10,000원을 넣기로 함.

– 교육과정개발관련 용역은 교육원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므로 중요도를 감안할 때, 충실한 용역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비를 5,000만원으로 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예산에 3,000만원, 2013년 예산에 2,000만원 반영하기로 함.

• 제3호 : 시 · 도 건축사회 교육 활성화의 건

– 효율적인 실무교육 시행을 위하여 본 협회에서 종합시스템을 개발하여 본 협회 및 시 · 도 건축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기타 사항은 실무교육과정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다음 회의나, 시 · 도 건축위원회 워크숍을 통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회원인증교육의 건

– (주)마이더스 아이티가 요청해온 사항이 회원인증교육이면 인증해 주되, 실무교육인증이 아님을 확실하게 인지시킨 후 인증 처리 해주기로 함.

▲기타사항

• 국토부, 환경부, 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석면감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황정복 이사가 석면감리원에 대하여 검토사항 check 하기로 함.

•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별표1 건축사 실무교육 종류별 인정기준 관련하여 전문교육 부분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교육으로 인정한 경우" 문구 삽입 요청하여야 함.

■ 제10회 건축영화제 TF

제10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8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함.

▷ 영화 수급 최종 결정을 8월말로 정하여, 현재 고려중인 3작품(Persepolis, Urbanisation on China, Hands over the city)을 영화선정 전담위원인 한동욱 위원이 시청 후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함.

▷ 시도건축사회 건축문화제 행사 시 상영할 영화 4편을 선정하여, 17개 건축사회에 상영 여부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을 시작.

▷ 영화제 홍보대사를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특별상 수여를 조건으로, 〈건축학개론〉의 엄태웅 기획사에 섭외 공문 발송.

▷ HAF/GV 명단을 확정하여 정식 초청을 진행.

▷ 광고대행사 '아담스페이스'와의 계약을 추진.

■ 제3회 정책소위원회

제3회 정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책토론회 세부 주제 중 업무확대 정착 방향 세부 조율의 건

– 건축설계시장 정상화와 업무확대 정착화의 현실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1. 건축설계시장 현황과 문제점
2. 건축설계시장 정상화 방안
3. 업무확대 정착화
4. 협회의 역할 강화
5. 설계시장 정상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제5회 정책위원회**

제5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의 건

– 정책토론회는 '(가칭)건축시장의 정상화 방안'이란 주제로 2차에 걸쳐 개최하기로 함.

– 발표자는 2명으로 하고, 발표자 및 토론자는 소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이외에 추가로 추천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후 사무처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 발표자는 내부시각과 외부시각 모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숭실대 김홍기, 이상진 교수)을 추천

– 종합적인 토론회 개최계획은 소위원회에서 작성토록 위임하고, 기존에 건축시장 위기와 관련된 주제로 개최되었던 토론회 발표 자료를 사무처에서 조사하여 소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함.

■ **기타사항**

• 대한여성건축사회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회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최소한 협회 신문매체를 통해 사과성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회장에게 전달하기로 함.

• 회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 발주제도 개선에 대하여 다룰 예정인 만큼 아래와 같이 오늘 논의된 공공기관의 설계용역 발주제도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 공공기관에서 설계용역 발주를 할 때 BF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에너지절약심의 이행 등을 설계비에 포함해서 발주하므로 이것은 설계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

▷ 공공기관(LH공사 등)에서 건축설계용역시 설계비의 5%~10%는 준공시 지급하도록 유예시켜고 있는 것은 불공정계약임.

▷ 준공도면 작성은 시공자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준공도면 작성시 건축사의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책임소재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업역확대 측면에서 준공도면도 설계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4회 정책소위원회**

제4회 정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의 건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1) 토론회 제목 : 건축설계시장 정상화 방안은 있는가?

2) 토론회 추진배경 및 목적 : 위원들이 검토 후 보완

3) 일시 및 장소

가. 1차 토론회 :

– 일시 : 10월 11일(목) 15시~18시

– 장소 : 본협회 1층 대강당

나. 2차 토론회

– 일시 : 10월 26일(금) 10시~12시

4) 발표자, 좌장, 토론자, 사회자

– 추천한 발표자 또는 토론자에게 참여여부를 타진한 후 확정된 인사에 대해서는 발표주제를 포함하여 9월 12일 이전까지 사무처에 전달

구 분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발표자 (2인)	– 외부 : 유광흠(건축도시공간연구소) 또는 이상진(숭실대학교 교수) – 내부 : 전영철(열린모임참 건축사사무소)	좌 동
좌 장	이종정 위원장	이종정 위원장
토론자 (7인)	– 외부 • 손희준(충주대 행정학교 교수) • 국토해양부 팀장 이상 1인 • 박은섭(강남구청 과장) • NGO 단체 인사 1인 – 내부 • 정익현 이사, 조익수 위원, 최봉기 위원	– 외부 • 좌동 • 좌동 • 광주시청 또는 구청 인사 1인 • 광주지역 NGO 단체 인사 1인 – 내부 • 시도건축사회 회장 3인
사회자	조재용 위원	좌 동

5) 설문지 작성 관련

– 위원장이 작성한 '건축설계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위원들이 검토한 후 수정사항을 9월 4일까지 사무처에 전달하기로 함.

– 설문지는 9월 이사회 토론회 개최여부 확정 후 협회 홈

페이지 및 시도건축사회를 통하여 9월말 이전까지 시행

6) 일정계획

– 설문 일정을 포함하여 일정대로 추진

7) 오늘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장 검토 후 이사회에 상정

■ 제6회 친환경TF

제6회 친환경TF 회의가 지난 8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방향의 건

–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회의(8월 21일)에 참석하여 에너지평가사 및 에너지 관련 고시 규정에 건축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 제2호 : 기타의 건

– 친환경 심포지엄에 관한 건 : 당위성, 예산 효율성, 일정을 위원장과 임인옥 위원이 검토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내용(주제, 소주제 등)은 담당위원(임인옥 위원, 조일권 위원)들이 검토하기로 함

■ 제9회 리모델링TF

제9회 리모델링TF 회의가 지난 8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제15호 검토의 건

–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중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참석 위원들 모두 큰 이견 없이 찬성함.

– 리모델링 설계의 경우 신축설계보다 더 많은 노력과 기술력이 들어감에도 적정 대가기준이 없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임.

– 리모델링의 감리업무에 대해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만 참여 할 수 있으나,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함.

☞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자 선정방법 대안 마련

• 제2호 : 제7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주제발표의 건

–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두 가지를 주제로 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준비 담당위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 : 박세희(주제발표), 최재윤, 김승욱 위원

▷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 서태근(주제발표), 라상학, 이정용 위원

▷ 한국건축산업대전 회원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동훈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키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 다음회의 안건

▷ 주택법 리모델링 관련 내용 검토

▷ 제7회 한국건축산업대전 리모델링 주제발표 중간 점검

■ 제4회 건축위원회

제4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공공기관 건축설계 및 감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건의의 건

– 「공공기관 건축설계 및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령」을 검토한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키로 함.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령」에서 설계 · 감리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삽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령」의 2007.12.21 제4조 전문개정과 2008.3.21 제5조의2 개정취지를 조사 · 정리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령」에서 건축사 고용 시 건축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 정리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삭제와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의원입법 등을 통한 법의 개정을 모색하는 방안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건축사법을 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메일을 활용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교류하고 보완하여 회장에게 제출키로 함.

• 제2호 : 용역발주제도 개선의 건

– 용역발주제도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이 수행했던 용역 등 용역발주 과정에서 부당공고 · 계약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사무처에 자료를 송부하기로 함.

ex) 입찰제도 개선 : 건축설계, 전기설계 분리발주

• 제3호 : 기타의 건

– 건축사 민간업무의 대가산정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안) 자문의 건

– 연구계획안을 다시 정리 후 이메일로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회람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기로 함.

■ **제5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제5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5차 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 참가의 건

– 이사국 현황 보고서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고 12. 8. 22(수)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제5차 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 공식대표 참가 예산 증액 (1인→2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함.

• 제2호 : APEC등록건축사 계속교육 인정기준 개정의 건

– 계속교육 이수기준 시간은 2년 24시간(윤리교육 2시간, 필수교육 1시간, 소양교육 6시간)으로 하되, 최고 인정시간은 교육과목별 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인정시간은 수강한 시간 및 최고 인정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정하는 것으로 협의.

– 금일 논의된 사항을 차기 신규 및 갱신등록부터 APEC등록건축사 계속교육 기준에 적용하기로 협의.

■ **기타사항**

• 제1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정기학술세미나(8.10)에 참석한 APEC등록건축사에게 4시간을 인정하기로 협의.

• 올해 APEC등록건축사 계속교육으로 독일자재회사 Knauf와의 세미나, APEC 등록건축사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영어(Business Correspondence)를 검토 · 추진하기로 하고 일정, 예산 등 세부사항은 해당기관과 협의 후 재논의하기로 함.
※공개강좌로 개최예정

■ **제6회 사업위원회**

제6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KAFF 2012 중간점검의 건

– 유료부스[무료부스 포함 총부스]현황 2012.08.17 기준

참가업체	기본부스	독립부스	부스 합계
34 [38]	51 [57]	23 [25]	74 [82]

• 제1-1호 : 대한민국건축사대회(광주) 교통비 후원의 건

– 회원들의 전시회 참여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비용이므로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교통비 후원이란 명칭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전시회 관련 시 · 도지원비'로 명칭을 정정함.

– 전시회 관련 시 · 도지원비는 전시사업비 4,000만원(1인당 최대2만원) 내에서 전시회 종료 후 관람회원수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각 시 · 도건축사회에 지급키로 협의함.

• 제1-2호 : 건축사교육 운영비 지원의 건

– 부대행사로 건축사교육 총3시간(교육2시간, 전시1시간) 인정에 따른 회의실 및 장비임대료를 전시사업비 예산 내에서 지원하되 전담위원과 사무처가 담당부서와 조율하여 집행키로 협의함.

▲기타사항

– 미술동호회의 전시회 참여 및 장치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광주건축사대회만 참여키로 협의되었기에 광주건축사회와 미술동호회의 의견조율 후 결과에 따라 재논의 할 사항이므로 지원을 보류키로 함.

– 과년도 미수금 강제집행에 관하여 협회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법적조치를 자중키로 함.

– 자재추천제 심사단 및 심사운영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소집키로 함.

■ **제6회 주거복지위원회**

제6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현장답사 협의의 건

– 지난 회의에서 "우리도시 되살리기" 대상지로 대전시 유천동을 선정하였으나, 대전시 정동이 역세권으로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및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향을 고려하여 대전시 정동으로 대상지를 변경함.

– 정동 2구역과 3구역은 면적도 크지 않고 대전역과의 연계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여 두 지역을 함께 진행키로 함.

– 성공사례도시 현장답사 및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키로 함

▷ 9월10일 현장답사(대구 중구 동성로)/간담회(대구건축사회 회의실)

▷ 9월 17일 현장답사(인천 송도 커넬워크)/간담회(인천건축사회 회의실)

▷ 9월 24일 현장답사(무주군 일대 및 대전 정동)/간담회(추후결정)

• 제2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사업계획 협의의 건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사업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키로 함.

1. 일시 : 2012년 11월 중순
2. 장소 : 대전시청

3. 세미나 주제발표자 :
   - 대전시 도시국장
   - 대전시 NGO단체장 또는 시의원
   - 주거복지위원회 위원(현장답사 및 성공사례도시 사례발표)
   -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우리도시 되살리기" 사업추진 및 발전방향)
4. 간담회 및 현장답사는 제1안에서 협의한대로 진행.
5. 위원별로 현장답사와 간담회 의견서 및 사업방향성과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보고서를 10월 위원회에 제출토록하고 과중한 업무의 분산을 위하여 역할을 분담함.

■ 제3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3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자격등록증 등 제작의 건
  - 회장님 안을 기반으로 하고, 회장님께 일임 함.
- 제2호 :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인정신청 공고(안)의 건
  - 공고(안)과 운영규정(안) 모두 원안대로 결정함.
- 제3호 : 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 참가의 건
  - 이사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동의 함.

▲기타사항

- 해외사례자료 국문화 작업의 건
  - 조인숙 위원이 담당하여 검토한 후 다음 회의 때 논의함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등록원 관계자 출장 교육 요청의 건
  - 교육담당으로 정태복 위원, 건축사자격등록 현장접수를 위해 사무처 직원2명이 출장가는 것으로 함.
- 건축사자격등록신청 현장접수의 건
  - 건축사대회 및 한국건축산업대전 등에서 건축사자격등록 현장접수를 받도록 함.

■ 제4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4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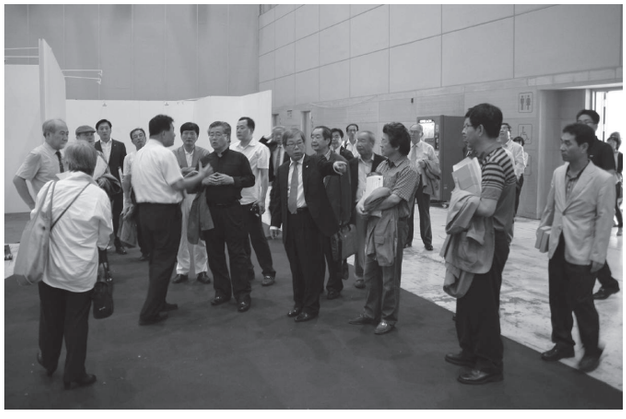
▲협의사항

- 제1호 : 공공기관발주 설계 용역비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이사회 회의결과에 따른 대처 방안의 건
  - 공공발주사업의 설계 및 감리 대가에 관한 문서를 이사회 협의 내용에 따라 협회 법제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9월 15일까지 공공기관(지자체 및 교육청)에 발송하기로 함.
  - 와 관련한 내용을 건축문화신문과 각 시 · 도건축사회에 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송기선 위원이 작성하여 게재하기로 함.
- 제2호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위원회 결의 방안의 건
  - 건축사의 의견을 각각 들어본 바, 정경수 건축사가 실제 설계를 했으며, 이기수 건축사도 정경수 건축사가 실제 설계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에 정경수 건축사를 설계자로 정정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이기수 건축사에게 설계자 성명 변경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기한 내에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에 우리위원회 명의로 회부할 것임을 신상일 위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함.
- 제3호 : 인테리어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 처리 방안의 건
  - 인테리어 업무 범위가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문서를 김지한 위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실내건축가협회(소속 지부 포함)에 문서로 발송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신고 및 업무대행 수수료의 건
  - 건축신고의 경우 유사명칭 사용 등 사건별로 검토 후 적극 대응키로 함.
    - ㅇ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건은 차기 회의 시 논의하기로 함.
- 제5호 : 면허 대여 문제에 대한 대응의 건
  -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6호 : 면허대여사건(원주)에 대한 논의
  -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7호 : 사건의 인지를 위한 신문매체 활용의 건
  - 추후 논의하기로 함.

▲기타의 건

- 차기 회의 일정 확정 – 2012. 9. 24(월) 오후 4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합동회의 가져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時광+文주=建築, 건축사, 삶을짓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건축사의 대축제인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대회가 개최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델리하우스에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합동회의를 갖고 보다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상세하게 점검하고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회장인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각표 부회장 등 임직원과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이창섭 위원장 및 위원 그리고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심상봉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과 신정철 부위원장 및 집행위원,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임직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또 차기 대회 유치 준비 중인 경상북도건축사회 임원들과 경상북도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합동회의에서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준비 진행경과에 대한 점검, 대회일정 및 각 세부 행사에 대한 내용과 행사 시나리오, 외국 귀빈 스케줄 등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행사장인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대회장과 세미나실, VIP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세세하게 점검하고 보완했다.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1989년 이래 대한건축사협회가 개최하고 있는 건축계 최대 행사로써 건축사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점검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의 토대를 이룩하기 위한 최신 정보와 기술도 교류한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2012 하반기 회원세미나'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택붕)는 지난 9월 6일 대구 동구문화체육관 2층 웨딩홀에서 회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하반기 회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건축문화연합 이노수 이사장(전 TBC 대구방송 사장)을 초청해 특강과 조재모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전통 한옥에 대해, 이완진 대구건축공사감리업무운영협의회 부회장이 건축공사감리업무 실무교육 및 유의사항, 건축사 등록원 운영위원회 위원인 정태복 대한건축사협회 이사가 건축사자격제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각각 세미나를 진행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2012 충남건축사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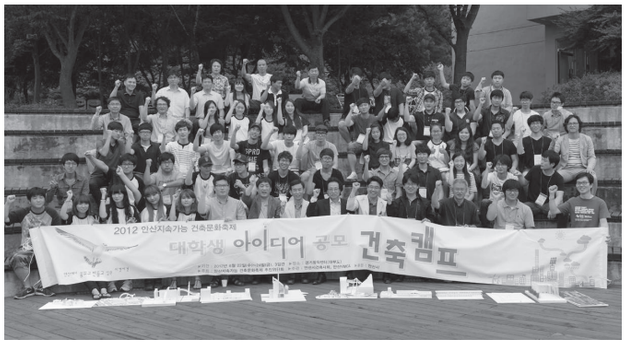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최종옥)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 소재 대명리조트에서 회원 2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 충남건축사대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박용현 제주도청 도시디자인 본부장과 고봉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최종옥 충남건축사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평소 건축문화 발전에 노고가 많은 회원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충남건축사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협회의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아울러 이번 건축사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충남건축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대회 첫째 날은 대명리조트에서 충남건축사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공로패 수여와 조봉환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건축문화담당 계장의 '내포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道 자문 · 심의계획', 박철민 제주대학교 교수의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만들기', 김규린 건축사의 '건축영화 마이 아키텍트(My Architect)' 등의 세미나가 개최됐고 저녁만찬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프, 한라산등산, 바다낚시, 올레길투어 등의 동호회 활동 후 지역회별 단합행사를 가졌다. 셋째 날에는 제주도 건축물 답사, 오름 답사로 나누어 에코 랜드, 섭지코지, 거문오름, 절물오름 등의 답사로 일정을 마쳤다.

안산지역건축사회, 2012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개최



경기도건축사회 안산지역건축사회(회장 김훤인)는 2012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캠프'를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위치한 경기창작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안산시에 소재한 4개 대학교 총16개조 48명의 학생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참가한 대학교는 서울예술대학교(지도교수: 천세근), 신안산대학교(지도교수: 백경무), 안산대학교(지도교수: 주진형), 한양대학교(지도교수: 유영진)이다.

이번 행사는 '안산에서 꿈꾸고 만들고 싶은 이것저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25시 광장 업그레이드 △전철교각 하부 활용 방안 △37블럭 내 청소년 시설 디자인 △안산 시민시장 재건축계획 △홈플러스와 노적봉 연결다리 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의 경연이 펼쳐졌다.

안산건축사회는 이번 캠프에서 제작된 작품을 제출 받아 엄중한 심사를 거쳐 시상 할 계획이며 제출된 모든 작품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25시 광장 전망대광장에서 있을 '2012 안산 지속가능 건축문화 축제'시 전시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안산지역건축사회는 이번 캠프가 학교별 유대 강화,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 대학생들에게 작품 참여 기회 제공 등 유익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캠프를 개최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 김해소방서와 MOU

경상남도건축사회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9월 6일 최근 늘어나는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김해소방서와 '화재피해 원천적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근 김해시건축사회 회장과 최주경 소방서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제8회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지난 9월 14, 15일 양일간 전남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성료됐다.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가 추죄하고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가 주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후원한 이번대회는 '건축사, 화합과 정보 교류의 장'이라는 주제로 전국건축사축구연합회원 및 가족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기에서는 강남, 관악, 광진, 경기(남부, 북부), 경남, 고양, 광주, 대구, 마포, 부산, 서초, 송파, 울산, 인천, 전북, 충북, 전남, 대전, 강원, 충남, 경북 등 20개 팀이 각축전을 벌였다.

7번의 전 경기를 승리한 경기 청팀이 우승을, 전라북도건축사회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다음 대회는 전라남도에서 개최된다.

건축계소식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10월 25일~26일 광주서 열린다

국내 건축계 최대 행사인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時광+文주=建築, 건축사, 삶을짓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1989년 이래 대한건축사협회가 개최하고 있는 건축계 최대 행사로써 건축사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점검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의 토대를 이룩하기 위한 최신 정보와 기술도 교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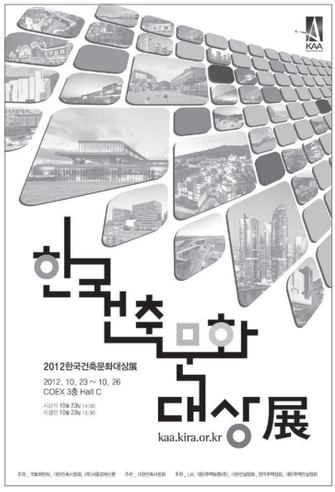
특히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과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건축사'로서의 정체성과 위상 정립 및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됐다.

대회 첫째 날에는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막식', '건축문화대상 입상작 전시', '전국건축사회화전', '건축사의 가족 합창제', '광주 · 전남건축물 투어',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선포식 및 환영만찬' 등이 개최되며, 본 대회 둘째 날에는 건축사 접수 및 등록을 거쳐 '심포지엄 및 세미나'와 대회 참가자 '오찬'행사가 준비돼 있고, 기념식 1부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건축사헌장 낭독' '건축비전 선포식' 등이 이어지며, 2부 행사에서는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한마당이 펼쳐진다.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1989년 이래 대한건축사협회가 개최하고 있는 건축계 최대 행사로써 건축사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점검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의 토대를 이룩하기 위한 최신 정보와 기술도 교류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02-3415-6800)나 광주광역시 건축사회(062-521-0025)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시상식'이 오는 10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C홀에서 개최된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해양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해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인영 서울경제신문 사장 등 정부관계자 및 수상자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공로상에 대해 시상되는데, 먼저 준공건축물부문은 사회 ·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일반주거부문 각 부문 대상 4점에게 영예 대통령상과 국토해양부장관상을, 본상 4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우수상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로 시상된다. 계획건축물부문은 대상 1점에게 상금 500만원 및 국토해양부장관상과 해외건축탐방 기회가 주어지며, 우수상 5점에게는 상금 20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과 해외건축탐방, 특선 6점에는 상금 10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입선 다수작에게는 상금 3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이 시상된다. 특히 우수상 이상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 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에 파견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한편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1인에 한해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공로상은 기념패를 수여한다.

수상작은 시상식 날인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동 장소 코엑스 3층 C홀 전시장에서 전시된다.

제7회 한국건축산업대전 개최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NETWORK'를 주제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친환경건축문화와 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축전문가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7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이하 KAFF 2012)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삼성동 COEX 3층 C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KAFF 2012'는 우수한 건축자재의 발굴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건축자재추천제'를 전시기간동안 심사하

제6회 한국 건축산업대전 개막 장면과 대전 전경

며, 친환경건축과 관련된 건축사사무소/건설자재/조경/에너지/환경기업이 참가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건축전문전시회이다.

우수건축자재추천서를 받은 공공시설재(원기업), 구조재(경민산업, 이조흙건축, 피에스테크), 내외장재(삼한씨원, 우성세라믹스공업, 주신기업, 하나인더스), 단열재(오씨아이, 일신산업, 세이크, 한국바스프)가 전시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제품들을 소개한다.

또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 및 전시하는 국내 최대의 건축시상제도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과 작품전이 동시에 개최되어 최근 국내에 지어진 우수 건축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한국승강기안전엑스포, 스마트그린빌딩엑스포, 공공환경시설산업전, 자동인식 및 출입통제 산업전 등 유관전문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GREEN CITY WEEK'로 많은 건축전문가와 관람객들의 방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10월 24일과 25일에는 건축사실무교육과 공동주택&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사례 발표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캐나다우드 등 다양한 건축분야 세미나를 부대행사로 준비하여 폭넓은 건축문화 정보를 제공한다.

※ 세미나장 : COEX 3층 307호, 308호

※ 교육인정 : 전문교육(세미나 최대 2시간), 자기계발(전시관람 1시간)

자세한 관람문의는 전시회 홈페이지(www.kaff.biz) 접속 또는 KAFF주최사무국(대한건축사협회 전시사업팀 T.02-3415-6866~6867)으로 연락하면 된다.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최

제3회 서울 국제 건축영화제 개막식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오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최된다.

11월 8일에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며, 개막식에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대회장인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건축계인사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형수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막을 열 이번 영화제는 '도시'를 주제로 총 5개국 10편의 영화가 7일간 상영될 예정이다.

개막작은 에쿠메노폴리스로 이스탄불의 도시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상영작 중 '브라질'은 80년대 SF영화로 당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관객층을 불러 모을 예정이다.(관련기사 : 본지 20페이지 참조)

2012 건축의 날 기념행사 및 건축인 걷기한마당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 한국건축가협회 ·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2 건축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10월 8일 14시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건축문화발전에 애쓴 공로자에게 공로 훈장 및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가건축정책위원장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국토해양부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건축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행사가 펼쳐진다.

또 지회 우수 작품 전시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의 특별강연 등 여러 행사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건축의 날'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한편 건축의날을 기념해 '건축인 걷기한마당'행사도 10월 6일 오전 8시부터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 개최된다.

건축의날 식전행사인 건축인 걷기한마당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최된다. 행사 후에는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품증정, 다양한 경품추첨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며, 9월 25일(화)까지 건축인 뿐 아니라 건축 관련 종사자와 가족, 학생, 일반인 등 선착순 3,000명의 참가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학회(02-525-1841, www.aik.or.kr)로 문의하면 된다.

2012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개최

한옥의 창조적 계승과 저변확대를 위한 '2012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이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한옥 공모전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한옥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 활용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는 홍보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모전은 한옥에 대한 계획 · 건축 · 사진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계획부문은 '함께 사는 한옥 : 한옥 공동주택'을 주제로 한옥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5명 이내의 팀 또는 개인자격으로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건축부문은 최근 5년 이내('07.9.6~'12.9.5)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진부문은 '한옥의 일상'을 주제로 일반인 부문(만 19세 이상의 성인)과 청소년 부문(만 19세 미만 청소년, 초등학생 제외)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작품접수는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계획부문은 11.12~11.16)이며,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건축부문의 경우 현장실사 포함)를 거쳐 11월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규모는 계획부문 18개, 건축부문 3개 및 사진부문 50개 내외 작품으로 국토해양부장관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과 상금(총 상금 3,000만원) 등을 수여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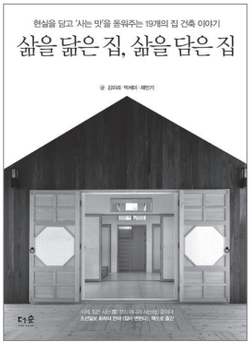
또한 수상작품은 홈페이지 게재 및 작품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시상식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competition.hanokdb.kr)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031-478-96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간안내

삶을 닮은 집, 삶을 담은 집 : 현실을 담고 '사는 맛'을 돋워주는 19개의 집 건축 이야기

김미리, 박세미, 채민기 공저 | 466쪽 | 더숲



신간 '삶을 닮은 집, 삶을 담은 집'은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을 담고 그들이 그 속에서 삶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만든 19개의 집 건축 이야기이다.

조선일보에 2012년 1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집이 변한다' 시리즈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한 이 책은 신문지면의 한계상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다. 이 책은 집을 짓기로 한 건축주, 집을 짓는 건축사, 그로 인해 지어진 집, '이 세 주춧돌 위에 쌓아올린 이야기집'으로, 일상이 펼쳐지는 현실의 집을 다루고 있다. 건축주가 직접 지은 1채의 집 외에 모두 국내 내로라하는 대표 건축사들이 지은 이 집들은 단순히 화려하고 예쁜 집을 고집하기보다는 그 집에 살 사람의 생활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현했다.

'집은 사는(買) 것인가, 사는(住) 곳인가.' 이것은 이 책의 시작을 알리고 결론을 말한다. 이 책은 주택을 꿈꾸는 개인들에게는 집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와 안목을 선사할 것이며, 사회에게는 더 이상 집이 사람과 삶이 빠진 개체여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남부지역건축사회/(043)543-9911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400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2-2084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진교남_Chin, Kyo-nam | ㈜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 3본부장

메타볼리즘과 텐덴자의 회고전

Metabolism La Tendenza, 이태리 신합리주의

Metabolism and Tendenza : A Retrospective of Italian Neo-Ratonalism

Metabolism

해외의 영향력 있는 미술관에서는 두개의 주목받은 회고전(Retrospective) 유형의 건축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열렸으며, 일본 동경의 Mori Art Museum (MAM)에서 열린 Metabolism : The City of Future, Dreams and Visions of Reconstruction in postwar and present day Japan (2011.09.17. ~2012.01.15.)과 그리고 뒤를 이어 프랑스 파리 Centre pompidou에서 최근 전시를 마친 La Tendenza : Italian Architecture 1965~1985(2012.06.20.~2012.09.10.)가 그것이다.

최근 십여 년 동안 건축계에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건축전시가 없었던 상황에 두 건축운동의 회고전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론과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약 35년에서 45년 전 사이에 이뤄졌던 두 건축운동을 오랜 시간의 연구와 기획 기간을 거쳐 오늘날 회고전을 갖는 의미와 그것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현 건축문화계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비춰볼 때, 두 전시가 갖는 공통적 이야기가 역사적인 상황 비교에서 오는 미묘한 신선함과 다소의 향수적 감정 때문일 것이다.

La Tendenza

메타볼리즘(Metabolism)과 텐젠자(La Tendenza)는 20세기 건축의 마지막 진정한 건축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자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CIAM 전통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전위적 운동의 유토피아적 야망이었으며 그에 비해 후자는 사회주의 개념과 교감하여 전위적 혁명보다는 역사와 현실의 이해 속에서 새로운 건축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메타볼리즘은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 중반까지 이어졌으며, 전후 빠르게 성장하는 일본의 도시와 주거의 미래를 계획 구축하려는 일본건축의 지역적 전위적 운동이었다. Kenzo Tange를 중심으로 Kisho Kurokawa, Kiyonori Kikutake, Fumihiko Maki외 구성원들은 미래기술발전의 희망과 생물학적(Metabolic)역동에 개념을 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을 도모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정부, 관료, 학교, TV, 잡지 등 대중 미디어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계획적인 기획아래 영향력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텐젠자는 메타볼리즘과 비슷한 시대인 1960년 중반 이태리에서 시작되었던 반(反)전위적 건축운동이었다. 역시 세계 2차 대전이후 재건되는 이태리의 사회와 정치 그리고 그 안에서의 건축문화에 대한 전반적 비평과 대안을 제시하였던 이 운동은 이전 아방가르드나 파시즘의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이상주의보다는 도시의 역사와 건축 그리고 현실에 기반을 둔 합리적 개념의 새로운 건축을 제시하였다. Aldo Rossi, Manfredo Tafuri, Carlo Aymonino, Giorgio Grassi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텐젠자 운동은 건축의 본질(Autonomy)적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건축의 형태를 통해 이태리 건축의 현대적 정체성을 구축하였으며 그들 역시 (Metabolist의 기획력처럼…) 당대의 문호, 문화평론가, 예술가, 정치인 및 여러 가지 대중 미디어와의 교류를 통해 그 영향력을 넓혔다.

위의 두 전시가 우리에게 남기는 여운은 사회 속에서 건축문화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복잡한 생각일 것이다. 두 건축운동이 20세기 건축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수많은 변화 과정 중 단순히 또 하나의 '시도'이기보다 두 특정 그룹이 건축을 통하여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회, 정치적 방향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일종의 건축문화의 의무 이행에 대한 예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윗글의 일부는 아래의 기사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음
〈http://www.mori.art.museum/english/contents/metabolism/index.html〉
〈http://www.centrepompidou.fr/Pompidou/Manifs.nsf〉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8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780	5,780	90	180	8	24	5,878	5,984	1,691	1,691	233	466	56	168	26	104	19	125	2,025	2,554	7,903	8,538
서울	910	910	22	44	1	3	933	957	861	861	128	256	42	126	8	32	13	76	1,052	1,351	1,985	2,308
부산	490	490	11	22	2	6	503	518	111	111	23	46	1	3	3	12	2	15	140	187	643	705
대구	485	485	21	42	4	12	510	539	69	69	18	36	2	6	3	12	0	0	92	123	602	662
인천	283	283	3	6	0	0	286	289	66	66	6	12	1	3	0	0	0	0	73	81	359	370
광주	215	215	0	0	0	0	215	215	43	43	6	12	1	3	3	12	0	0	53	70	268	285
대전	264	264	6	12	0	0	270	276	32	32	7	14	4	12	1	4	1	13	45	76	315	351
울산	186	186	5	10	0	0	191	196	20	20	3	6	0	0	0	0	0	0	23	26	214	222
경기	809	809	1	2	0	0	810	811	245	245	19	38	3	9	2	8	1	5	270	305	1,080	1,116
강원	192	192	2	4	0	0	194	196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22	229
충북	220	220	2	4	0	0	222	224	39	39	3	6	1	3	2	8	1	9	46	65	268	289
충남	270	270	1	2	0	0	271	272	48	48	5	10	1	3	2	8	0	0	56	69	327	341
전북	261	261	5	10	0	0	266	271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5	307
전남	215	215	0	0	0	0	215	215	19	19	2	4	0	0	0	0	1	7	22	30	237	245
경북	390	390	4	8	1	3	395	401	39	39	3	6	0	0	0	0	0	0	42	45	437	446
경남	455	455	7	14	0	0	462	469	35	35	3	6	0	0	0	0	0	0	38	41	500	510
제주	135	135	0	0	0	0	135	135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1	152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538	100%	13
서울	2,308	33.9%	2
부산	705	7.9%	8
대구	662	7.7%	0
인천	370	3.8%	0
광주	285	3.7%	0
대전	351	3.7%	0
울산	222	2.6%	0
경기	1,116	12.2%	3
강원	229	2.6%	0
충북	289	3.0%	0
충남	341	3.1%	0
전북	307	3.0%	0
전남	245	1.9%	0
경북	446	4.6%	0
경남	510	5.0%	0
제주	152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984	2,554	8,538	
비율	70.09%	29.91%	100%	
사무소수	5,878	2,025	7,903	
비율	74.38%	25.62%	100%	